『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



일시: 2025년 4월 8일(화) 오후 3시 30분~6시 30분

장소: 영락교회 본당(서울 중구 수표로 33)

(재)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

일시: 2025년 4월 8일(화) 오후 3시 30분~6시 30분

장소: 영락교회 본당

(재)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

ⓒ 대한성서공회 2025
2025년 3월 21일 초판 1쇄 인쇄
2025년 4월 4일 초판 1쇄 발행

발행처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등 록 1962년 7월 20일, 제1-78호
인쇄소 삼립인쇄(주)
제본소 삼립인쇄(주)

환 영 사

권의현(대한성서공회 사장)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인 『새한글성경』의 완역과 출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한글성경』의 번역 특징과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이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한글성경』은 다매체 시대의 젊은이들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된 새로운 성경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의 필요와 요청에 귀 기울여,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 안팎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번역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올해로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성서공회는 격동의 시기마다 한국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번역하고 보급해 왔습니다. 한 예로, 1950년대 한국전쟁 중에는 피난지에서 당시 예배용 성경이었던 『셩경 개역』(1938년)과는 별도로, 새로운 철자법을 적용한 『기쁜 소식: 누가복음』을 발간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공립 초·중학교 교과서로 채택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21세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의 예배용 성경인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교회학교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새한글성경』(2024년)을 완역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새한글성경』의 번역을 위해 지난 13년 동안 헌신해 주신 신약 책임번역자 김창락 교수님, 구약 책임번역자 박동현 교수님, 국어자문 민현식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랜 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 『새한글성경』을 번역하고 검토하며 다듬어 주신 36명의 성서학자 교수님들과 3명의 국어학자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수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한글성경』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새

로운 번역 성경을 읽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하게 쓰이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한글성경』이 한국교회의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교단 공과용 성경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박동현(『새한글성경』 구약 책임번역자)

반갑습니다. 『새한글성경』 구약 책임 번역을 맡았던 박동현입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한글성경』은 2000년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한국어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새롭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포들, 나라 안뿐만 아니라 나라 밖 동포들,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읽는 외국인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섬기도록 번역한 성경입니다.

새천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기독교계의 성경 번역 경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직역이냐 의역이냐 하는 종래의 논쟁을 넘어서서 다매체 시대를 사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게 성경을 번역하자는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난 것입니다. 『새한글성경』도 그 앞자리에서, 짧은 문장과 새로워진 표현으로 이전의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원어 성서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강단과 개인의 경건 생활을 이끌어 온 개역 전통의 성경과 함께 『새한글성경』은 한국어 사용자들의 신앙과 신학과 교육과 선교에 이바지하는 성경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새한글성경』의 발간에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한글성경』을 통해 새롭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 한국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를 두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동혁 교수님과 박형대 교수님이 각각 『새한글성경』 구약과 신약 번역의 특징을 간추려 소개하십니다. 뒤이어 유선명 교수님이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나란히 펼쳐 놓고 함께 읽으면서 성경을 더욱더 깊고도 넓게 이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이승문 교수님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활용 방안을 알려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수인 교수님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 『새한글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권순희 교수님이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어떠한지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 잠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심포지엄이 『새한글성경』이 널리 알려지고 많이 읽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지역 사회와 이 나라 이 세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말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정 표

시 간	내 용
	사회: 호재민(대한성서공회 총무)
3:30~3:40	**환영사:** 권의현(대한성서공회 사장)
	인사말: 박동현(『새한글성경』 구약 책임번역자)
	사회: 이두희(성경번역연구소 소장)
3:40~4:00	**제1주제:** 새 부대에 새 포도주 ― 『새한글성경』의 구약 번역 특징과 실제 ― / 김동혁(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4:00~4:20	**제2주제:** 『새한글성경』의 신약 번역 특징과 실제 ―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 / 박형대(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4:20~4:40	**제3주제:**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함께 읽는 방안 ― 욥기 번역에 나타난 특성들을 바탕으로 ― / 유선명(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4:40~5:00	**휴 식**
5:00~5:20	**제4주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활용 방안 / 이승문(명지전문대학 교목실장/교수)
5:20~5:40	**제5주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 『새한글성경』 / 이수인(아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교수)
5:40~6:00	**제6주제:**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 연구 / 권순희(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6:00~6:30	**종합토론**

* 참석자의 질의응답 방법: 참석자는 본 자료집 159쪽에 있는 질의서를 작성하여 안내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환영사 ····· 권의현 / 3

인사말 ····· 박동현 / 5

새 부대에 새 포도주 – 『새한글성경』의 구약 번역 특징과 실제 –
····· 김동혁 / 9

『새한글성경』의 신약 번역 특징과 실제 –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
····· 박형대 / 28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함께 읽는 방안 – 욥기 번역에 나타난 특성들을 바탕으로 – ····· 유선명 / 59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활용 방안 ····· 이승문 / 75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 『새한글성경』 ····· 이수인 / 101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 연구 ····· 권순희 / 130

약어표 ····· 156

질의서 ····· 159

새 부대에 새 포도주

— 『새한글성경』의 구약 번역 특징과 실제 —

김동혁*

1. 들어가며

스웬슨(K. Swenson)은 성경 번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정의를 인용한다.[1] 마일스 스미스(M. Smith)는 번역이 창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 번역을 통해 빛을 볼 수 있다니 번역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3] 움베르토 에코(U. Eco)는 번역을 실패의 기술로 규정한다.[4] 이 말은 번역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스미스의 말도 에코의 말도 첫인상과는 반대되는 측면을 담고 있다. 스미스의 말의 경우, '만약 창문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짓궂게 물을 수도 있겠다. 반면 에코의 말은, '그렇더라도 여전히 번역은 기술(art)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5] 하긴 그렇다. 실패하기만 하는 번역도 없고 최초의 빛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투과시키기만 하는 창도 없다. 번역자는 다만 원문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갈 뿐이다. 그러니 완벽한 번역 성경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성경 번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관념적인 말이 아니어도 성경 번역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 Yal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donghyukk@yonsei.ac.kr.

1) K. Swenson, 『가장 오래된 교양』, 김동혁 역 (서울: 사월의책, 2013), 109.
2) KJV 초판 서문에서 M. Smith가 한 말. Ibid., 108에서 재인용.
3) Ibid., 109.
4) Ibid.에서 재인용.
5) Ibid.

가지 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유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첫째, 원천 언어, 즉 원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점점 깊어진다. 예컨대 성서 히브리어의 경우 소위 '하팍스'(hapax 혹은 hapax legomenon)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어려웠던 단어들 중 20세기 이후 뜻을 비교적 자신 있게 규정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있다. 이것은 1928년부터 발견된 우가리트어 자료와 194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간 발굴된 사해 인근의 수많은 문헌 자료들,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헌 자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둘째,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문장 단위 이상의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정확해졌다. 형태론을 넘어 구문론이 발전했고, 내러티브의 구조를 분석하는 담화 분석도 정립되었다.[6] 따라서 오늘 우리의 문장 단위 이상의 히브리어 이해는 20세기 초에 출간된 게제니우스-카우치-카울리(W. Gesenius, E. Kautzsch, and A. E. Cowley) 최신판은 물론 20세기 말/21세기 초에 나온 주옹-무라오카(P. Joüon and T. Muraoka)나 월트키와 오코너(B. K. Waltke and M. P. O'Connor)의 설명을 훌쩍 뛰어넘는다.[7] 셋째, 사본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일컬어지는 사해 두루마리 발견 덕분이다. 사해에서 발견된 200여 개의 성경 필사본 덕분에 오늘날 히브리어 성서 출간본(edition)들은 이전보다 원문에 가까워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유는 앞의 세 이유의 맞은편에 있는 이유이다. 지금까지의 세 이유는 원천 언어와 관련된 것인데, 네 번째 이유는 수용 언어, 즉 한국어가 변한다는 사실이다. 언어는 언중 간에 합의된 체계이므로 우리가 언어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언어의 단면을 비교해 보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1900년대 초반의 문헌을 읽을 기회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8] 따져 보면 100년이 아주 긴 세월이 아닌데도 그렇

6) 성서 히브리어의 담화 분석에 대한 개관으로 R. D. Bergen, "Discourse Analysis: Biblical Hebrew",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ed. G. Khan et al., 4 vols. (Leiden: Brill, 2013; 이하 *EHLL*), 1:746-749를 보라.

7) W. Gesenius, E. Kautzsch, and A. E. Cowley, *Gesenius' Hebrew Grammar*, 2nd English ed. (Oxford: Clarendon, 1910);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v. English ed., Subsidia Biblica 27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역서: 『주옹-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B. K. Waltke and M. P.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8) 흥미로운 자료로서 「조선일보」에서 구축한 말뭉치(corpus)인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을 보라(https://newslibrary.chosun.com/). 이 말뭉치는 「조선일보」가 창간된 1920년 3월부

다.[9] 최근 이른바 '90년대 서울 사투리'를 재현하는 배우의 영상이 인기를 끌었는데,[10] 40대 이상에게는 '엊그제' 같다고 느껴지는 90년대의 실제 말씨를 영상 등을 통해 들어 보면 발음, 억양, 어휘 등이 요즘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요컨대, 원천 언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깊어짐과 동시에 수용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12월 10일에 출간된 『새한글』 구약과 신약은 한국어가 모어인 모든 기독교인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자 하는 모든 한국인, 한국어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모든 세계인에게 반가운 선물이다. 한국교회로서는 개신교의 『표준』(1993) 이후 31년 만에, 가톨릭의 『성경』(2005) 이후 19년 만에 새 번역을 품게 된 것이다. 2021년 『새한글 신약과 시편』이 출간된 후, 또한 2024년 말에 『새한글』 완역 성경이 나오면서, 『새한글』의 번역을 논의하고 그 주요 특징을 정리하는 글들이 여러 편 나왔다.[11] 따라서 이 글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또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새한글』의 특징 중 필자의 관심을 끌었던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어순의 문제, 화자와 말의 종류 표기, 다양한 화계가 그것이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터 1999년까지의 지면 26만 1,589면과 기사 295만여 건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이 말뭉치는 모든 한자 옆에 한글을 병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1920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사 약 122만 6,113건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이 제공하는 현대어 변환 서비스도 포함한다. 이 말뭉치를 통해 최근 100년의 한국어를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다. 「조선뉴스 라이브러리 100」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153.html을 참고하라.

9) 필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필자의 조부모님들은 100년도 더 전에 태어나셨다.

10) "윤가이, 70년대×90년대 서울 사투리 차이!", https://youtu.be/SvZG-BascvQ?feature=shared (2025.2.12.).

11) 신약학자 이두희와 국어학자 민현식은 『새한글 신약과 시편』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두 글 모두 「성경원문연구」 51호(2022.10.)에 들어 있다. 이두희, "『새한글』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224-251쪽)와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353-384쪽)를 보라. 「성경원문연구」 51호에는 다른 여러 신약학자들이 『새한글』의 특정 본문이나 세부 주제에 관해 연구한 연구들도 들어 있다. 또한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2024.12.)은 신약의 여러 책들에서 선택한 몇 개의 본문을 『새한글』을 중심으로 역본 비교 연구를 한 연구들을 담고 있다. 대한성서공회 웹사이트(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는 박동현의 "[구약 간추린 번역 해설] 『새한글』 간추린 번역 해설집: 구약"(2024) 등을 비롯하여 『새한글』에 관한 다양한 자료집을 제공한다.

2. 『새한글』 구약 번역의 특징(1): 문장 내 도치

2.1. 성서 히브리어 어순과 한국어의 어순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의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성서의 세계와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 참으로 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뿐만 아니라 장소, 시간, 문화, 세계관 등에서도 큰 간극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언어학적인 면에만 집중하겠다.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겪게 되는 언어학적 어려움 중 두드러진 것 하나는 어순의 차이이다. 이것은 언어 유형론의 지식을 빌려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언어는 기본 어순(basic word order), 즉 주어(S[ubject]), 목적어(O[bject]), 서술어(V[erb])의 어순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다.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 기본 어순은 6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SOV, SVO, VSO, VOS, OSV, OVS이다. 이 여섯 가지 경우 중 주어–목적어–서술어(SOV) 순서를 따르는 언어와 주어–서술어–목적어(SVO) 순서를 따르는 언어가 전 세계 언어의 90퍼센트 가까이 된다(각각 45%, 42%).[12] SOV 언어 중 대표적인 것은 우리 한국어이고, SVO 어순은 다수의 유럽 언어에서 볼 수 있는데 신약의 언어인 헬레니즘 그리스어도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가능한 네 어순(VSO, VOS, OSV, OVS) 중에서는 VSO가 세계 언어의 9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13] VSO에 속하는 언어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는 성서 히브리어일 것이다.[14] 요컨대 전 세계 언어의 절대 다수는 SOV, SVO, VSO 어순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순서를 다시 둘로 분류하기도 한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순서만 따져서 OV 언어와 VO 언어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SVO 언어와 VSO 언어는 모두 VO 언어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언어 유형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OV 언어와 VO 언어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일관되게 보여 준다.[15]

---

12) R. S. Tomlin, *Basic Word Order: Functional Principles*, Routledge Library Editions: Linguistics 13 (London: Routledge, 1986), 22.

13) Ibid.에 따르면 나머지 어순 중 세계 언어 중 VOS는 약 3퍼센트, OVS는 약 1퍼센트를 차지하고, OSV 어순은 없다.

14) 다수의 학자는 성서 히브리어가 VSO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SVO 언어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꽤 있다. 성서 히브리어의 기본 어순에 관한 논쟁을 개관하려면 A. Moshavi, "Word Order: Biblical Hebrew", *EHLL* 3:991-998, 특히 991-993을 보라.

15) 아래 표의 내용은 E. A. Moravscik, *Introducing Language Typology*, Cambridge Introduc-

<표 1> OV 언어와 VO 언어의 어순 비교

OV 언어의 어순	**VO 언어의 어순**
목적어 – 서술어	서술어 – 목적어
명사구 – 부치사(adposition)	부치사 – 명사구
소유자 – 피소유물	피소유물 – 소유자
관계절 – 명사구	명사구 – 관계절

위 데이터는 특정 언어의 문장 내 어순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한국어 같은 OV 언어는 다음과 같은 어순을 따를 것이다. 명사구 뒤에 부치사(한국어의 경우, 조사)가 오고, 소유자 뒤에 피소유물이 오고, 명사구를 꾸며 주는 관계절 뒤에 명사구가 뒤따른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어순은 임의적이지 않다. OV 언어의 네 종류의 어순은 의존어(dependent)가 핵어(head) 앞에 나온다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16] 그러니 한국어 같은 OV 언어는 꾸며 주는 말 다음에 꾸밈을 받는 말이 나오고, VO 언어인 다수의 유럽 언어의 경우 꾸밈을 받는 말 다음에 꾸며 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OV 언어는 중요한 말(핵어)이 뒤에 나오고 VO 언어는 중요한 말이 앞에 나온다. 가령 다음 한국어 어구를 보라.

정교하게 세공된 금박 장식과 은은한 광택을 자랑하는 화려한 과자 봉지

이 말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어순을 따르는데, 꾸며 주는 말들('정교하게 … 화려한')이 불러일으키는 기대를 마지막에 나오는 핵어('과자 봉지')가 깨뜨려 버린다. 이로써 이 어구는 일종의 우스갯소리가 된다. 반면 같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런 효과는 사라진다.

A snack bag, ornate with elaborate gold embellishments and a subtle sheen

이 말은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멋진 의미를 전해 주는 말도 아니다. 그저 싱거운 소리가 될 것이다. '과자 봉지'를 뜻하는 'snack bag'이 맨

tions to Language an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99에서 가져온 것이다.

16) Ibid., 100. 물론 이러한 어순들을 예외 없는 법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언어 속 이 순서들은 일종의 경향이다. 예를 들어, VO 언어인 영어의 경우 명사구를 꾸며 주는 관계절은 명사구 뒤에 나오는 일반적인 어순을 따르지만(예: a place that is holy), 형용사의 경우 앞에서 명사구를 꾸며 준다(예: a holy place).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 어구에서 만난 반전은 경험할 수 없다.

성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다.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기본 어순이 같지는 않지만(각각 SVO, VSO), 둘 모두 VO 언어이니 핵어가 의존어보다 먼저 나온다. 그러니 많은 경우 우리말과는 어순이 반대가 된다. 즉, 히브리어는 목적어 앞에 서술어, 명사구 앞에 부치사(즉, 전치사), 소유자 앞에 피소유물, 수식어 앞에 피수식어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말은 그 반대다. 목적어 뒤에 서술어, 명사구 뒤에 부치사(즉, 후치사 또는 조사), 소유자 뒤에 피소유물, 수식어 뒤에 피수식어가 나온다. 이것은 어순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의 진행과 관련되는 문제다. 적어도 문장 내에서는, 생각의 흐름이 성서 히브리어 사용자와 한국어 사용자가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마치 주소를 적을 때 영어에서는 작은 단위에서 시작하여 점점 큰 단위로 나아가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큰 단위에서 시작하여 작은 단위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영어와 한국어 사용자 각각이 머릿속에서 주소를 확정하는 방향은 정반대일 것이다. 한국어 사용자는 '줌인'의 방식으로, 영어 사용자는 '줌아웃'의 방식으로 주소를 확정한다는 말이다.

실제 성경의 예를 살펴보자. 여호수아의 제일 첫 부분이다.

여호수아 1:1

BHS	wayhî ’aḥărê môt mōše(h) ‘ebeḏ YHWH
주석	그리고 ...였다 뒤 죽음 모세의 종 야훼의
번역	[때는] 야훼의 종 모세의 죽음 뒤였다.
BHS	wayyō(’)mer YHWH ’el-yĕhôšū(a)‘ bin-nûn məšārēṯ mōše(h)
주석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들-눈의 사환 모세의
번역	야훼께서 모세의 사환 곧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위 본문에서 볼 수 있듯, 히브리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각 단어의 배열은 히브리어와 우리말에서 거의 정반대로 나타난다. 주지하듯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번역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손가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짚어 가는 경우가 많다. 요약하자면, 적어도 문장 내에서는 성서 히브리어 사용자의 생각과 한국어 사용자의 생각은 그 진행

방향이 정반대다.

2.2. 원문의 어순을 따르는 문장 내 도치

이런 의미에서 『새한글』이 문장 내 도치를 자주 사용한 것은 혁명적이라 말할 수 있다. 『새한글』의 문장 구조에 관해서는 민현식이 간략히 다룬 바 있다.[17] 민현식의 논의를 확장하여 여기서는 성서 히브리어와 우리말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다.

잠언 10:26

BHS	kaḥōmeṣ	laššinnayim	wəḵe‘āšān	lā‘ênāyim
주석	같다-식초	에-이	그리고-같다-연기	에-눈
『새한글』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지,			

BHS	kên	he‘āṣēl	ləšōləḥâw
주석	그와 같다	정관사-게으른 사람은	에게-그를 보낸 사람들
『새한글』	게으른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비교:

『개역개정』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새번역』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먼저 보자. 이 두 역본의 한국어 어순은 확실히 자연스럽다. 한국어에서 ‘A는 B와 같다’라는 형식으로 직유법을 말할 때는 언제나 보조 관념(‘B’)이 서술어가 되어야 하므로, 유려한 우리말 문장을 구사하려면 ‘이에 식초’와 ‘눈에 연기’가 문장의 뒤쪽에 올 수밖에 없다.

반면 원문(혹은 주석)의 어순은 『개역개정』 및 『새번역』과 확연히 다르다. 원문에서는 ‘이에 식초 같다’와 ‘눈에 연기 같다’가 상반절에 먼저 나온다. 이들은 보조 관념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그다음 하반절에 원관념을 구성하는 성분들인 ‘게으른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들에게’ 같은 말이 나온다. 이 잠언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상상해 보자면, 아마 서스펜스 같은 것을

17)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368을 보라.

느꼈을 것이다. 상반절을 들으면서 '어, 이에 식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라고 속으로 묻지 않았을까?

요컨대 잠언 10:26의 번역에 있어 기존의 『개역개정』 및 『새번역』과 『새한글』의 특징은 그 방향이 서로 반대다. 기존 역본들은 우리말 문장이 자연스러운 반면 원문의 생각의 진행을 재현하지 못한다. 『새한글』은 자연스러운 어순을 포기한 만큼 원문의 생각의 진행을 잘 재현한다.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를 보낸 사람들한테요!"

잠언 25장에서도 원문의 어순을 따르는 도치 구문을 많이 만날 수 있다. 25:11-12를 보라.[18]

잠언 25:11

BHS	tappûḥê zāhāḇ bəmaśkîyôṯ kāseṗ dāḇār dāḇūr 'al-'oṗnâw
주석	사과 금 안에-그릇 은 말은 말해진 에-제때
『개역개정』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새번역』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새한글』	그림을 새겨 놓은 은그릇에 담긴 금사과야, 제때에 하는 말은.

잠언 25:12

BHS	nezem zāhāḇ waḥălî-ḵāṯem
	môḵî(a)ḥ ḥāḵām 'al-'ōzen šōmā'aṯ
주석	고리 금 그리고-장신구-순금
	꾸짖는 사람 지혜로운 에-귀 듣는
『개역개정』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새번역』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새한글』	금고리와 순금 장신구야, 잘 듣는 귀에 들리도록 지혜롭게 꾸짖는 사람은.

18) 또한 13-14, 18-20, 22-26, 28절에서도 원문의 어순을 따르는 문장 내 도치 구문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널리 알려진 시편 23장의 3절과 6절을 보라.

시편 23:3

『개역개정』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새번역』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새한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 위해서라네.

시편 23:6

『개역개정』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새번역』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새한글』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민현식이 관찰했듯 도치 구문은 『새한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19] 도치 구문은 내러티브보다는 운문과 대화체에서 특히 많이 쓰였다.[20] 도치 구문은 원문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반면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따르지 않기에 우리의 읽기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점이 아닐 수도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을 때의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새한글』의 문장 내 도치는 성서 원어를 모르는 독자로 하여금 원문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제 한국어 독자는 상호 보완적인 두 방향의 성경 번역을 소유하게 되었다. 원문의 생각을 따르지만 천천히 읽어야 하는 번역과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따르기에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 말이다.

19)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360, 368.
20) 예컨대, 막 1:8과 시 1:1-2의 도치에 관한 민현식의 논의를 보라(Ibid.).

3. 『새한글』 구약 번역의 특징(2): 화자와 말의 종류 표기

3.1. 한국어의 이인칭 대명사 회피

영어나 다른 유럽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이인칭 대명사를 번역하는 일이다. 한국어에도 이인칭 대명사가 있긴 하다. '너(희)', '자네(들)', '그대(들)', '당신(들)'은 대화에서 자주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이인칭 대명사를 손윗사람에게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성서 히브리어 및 성서 그리스어와 한국어 사이의 큰 차이다. 영어 같은 유럽어에서는 손윗사람에게도 이인칭 대명사를 쓸 수 있으므로, 성서 언어에서 손윗사람 혹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를 번역할 때 어려운 점은 없다. 한국어는 다르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 주는 흥미로운 예가 있다. 미국의 결혼식에서 자주 활용되는 성경 본문이다. 아래는 NIV 본문과 그것의 한국어 번역이다.

>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May the Lor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even death separates you and me." (Ruth 1:16b-17 NIV)

> "그대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대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그대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그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대가 숨을 거두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그대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그대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 1:16하-17, 『새번역』을 조금 고침)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상대를 향한 충정을 고백하고 다짐하기에 매우 적절한 성경 본문이다. 그런데 한국 결혼식에서 이 본문의 한국어 성경 번역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 이 말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어서, 원문의 이인칭 대명사가 한국어 역본에서 '어머니'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룻의 고백과 다짐을 『새한글』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으로 가고, 어머니 묵으시는 곳에서 묵을 테니

> 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게 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떠난다면요!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룻 1:16하-17, 『새한글』)

생각해 보면 룻기 1:16하반-17의 성서 히브리어 본문도 결혼식에서 그대로 쓸 수가 없다. 성서 히브리어는 이인칭 대명사의 남성형과 여성형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룻기 1:16하반-17의 원문을 보면 여자(며느리)가 여자(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결혼식에서 위 본문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영어에서는 어머니든 배우자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you'로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나 손윗사람을 가리키는 성서 히브리어의 이인칭 대명사는 한국어에서는 호칭으로 번역해야 한다(예: '하나님', '주님',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임금/왕' 등).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인칭을 가리키게 되면 이인칭을 가리키는 표현과 삼인칭을 가리키는 표현이 같아지게 된다. 예컨대, 임금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옆집 어른에게 "임금님이 저희 집에 오셨네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똑같은 말을 지금 우리 집을 방문하시는 임금님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특히 글말에서 "임금님이 저희 집에 오셨네요."라는 말은 임금에게 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 물론 전후 맥락을 보면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대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헷갈리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장의 경우 자신을 향해 말하는 고백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섞여 있는데(1-3, 6절은 혼잣말, 4-5절은 기도), 만약 오늘날의 독자가 100년 전 한국어의 종결 어미에 익숙하지 않다면, 『개역개정』을 읽을 때 어느 말이 혼잣말이고 어느 말이 기도인지 알기가 어렵다.

> **시편 23:1-4**
>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에서 ‘주께서’로 번역된 말과 ‘주의’로 번역된 말은 원문에서 각각 이인칭 단수 대명사 주격과 소유격이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 또한 이인칭 대명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른 많은 언어에서는 — 4절이 기도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 4절이 기도임을 알려 주는 표지는 맨 끝의 종결 어미 ‘-나이다’뿐이다. ‘-나이다’는 공손한 표현이므로 이 말이 혼잣말이 아님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하여 100년 전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현대 한국인에게 1-3절의 ‘-으리로다’, ‘-는도다’와 4절의 ‘-나이다’는 그저 비슷하게 들린다. 둘 다 예스러운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는 예사말이고 다른 하나는 존댓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3.2. 화자와 말의 종류 표기

한국어의 이런 특징, 즉 손윗사람을 가리킬 때 이인칭 대명사를 회피하는 특징은 성경의 원문을 이해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남 얘기가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필자는 아주 오랫동안 시편 23장 중 4-5절이 하나님께 직접 올려 드리는 기도임을 알지 못했다. 어린 시절 교회학교 숙제로 시편 23장을 암송했는데도 그랬다. 4-5절이 기도임을 알게 된 것은, 신대원에서 히브리어를 배운 후 원문을 읽으면서인 것으로 기억한다. (영어 본문을 정독했다면 알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런 기억은 없다.) 그런데 만약 필자가 『새한글』을 읽었다면 4-5절이 기도문임을 곧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새한글』이 원문에 없는 말을 끼워 넣는 과감한 시도를 한 덕분이다. 『새한글』이 시편 23장을 번역한 것을 보라.

시편 23장
여호와를 의지하는 노래
1 노랫말(시). 다윗에게 속한 것.
(혼잣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2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3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 위해서라네.
(기도)
4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 됩니다.
5 주님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내 적들 맞은편에.
주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내 잔이 넘쳐 납니다.
(혼잣말)
6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위 번역에서 본문 중간중간에 괄호로 표기된 '(혼잣말)'과 '(기도)'는 원문에는 없는 말이다. 소제목처럼 번역자들이 집어넣은 말이다. 그런데 그 덕에 이제 『새한글』로 시편 23장을 읽는 어린이들은 시편 23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고백이고 중간 부분(4-5절)은 기도임을 저절로 알 것 같다.

이렇게 본문의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어떤 종류의 말인지를 명시해 준 또 다른 예로서, 시편 20장을 보라.

시편 20장
임금을 위한 말과 기도
1 찬양 인도자에게 맞춤. 노랫말(시). 다윗에게 속한 것.
(임금에게 하는 말)
임금님이 어려울 때에 여호와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임금님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가 도움의 손길을 거룩한곳(성소)으로부터 임금님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으로부터 임금님을 떠받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호와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이 바치는 모든 곡식제물(소제물)을.
임금님이 바치는 다태우는제물(번제물)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셀라.
…

(혼잣말)
6 이제 나는 알아,
여호와가 여호와께 기름부음받은 사람을 도우셨다는 것을,
거룩한 하늘로부터 그에게 대답하셨다는 것을,
여호와의 오른손이 도우시는 힘으로.
…
(기도)
9 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임금이 우리에게 대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날에!

1절에 끼워 넣은 '(임금에게 하는 말)'이 없었다면 1-3절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기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임금을 '임금님'이라고 안 부를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기도할 때 임금을 '임금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우리도 회중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목사**님**' 같은 말을 쓰지 않는가? 『새한글』은 화자 및 말의 종류 '(임금에게 하는 말), (혼잣말), (기도)'를 명시함으로써 한국어 독자가 시편 기자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즉, 1-5절에서 저자와 독자는 임금의 얼굴을 바라보고, 6-8절에서 저자와 독자는 본인의 내면을 바라보고, 9절에서 저자와 독자는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4. 『새한글』 구약 번역의 특징(3): 다양한 화계

『새한글』에서 화자와 말의 종류를 표기한 것은 시편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예언서를 읽을 때도 도움이 된다.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이 다중으로 인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전할 경우 예언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원문은 '코 아마르 아도나이', 즉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치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을 구별해 준다.

화자와 말의 종류를 표기하는 방식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한글』의 또 다른 장치는 다양한 화계를 사용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민현식이 국어학자의 관점으로 친절하게 논의한 바 있다.[21] 여기서는 성서학적 의의 한 가지를 짚고자 한다.

긴 예언서를 남긴 세 예언자(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책 중 가장 읽

기 힘든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서일 것이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직접 한 말(또는 직접 쓴 글)과 예레미야에 관해 쓴 글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직접 일인칭으로 말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삼인칭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자료 비평과 관련되는 중요한 단서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일인칭으로 말하는 내용은 예레미야가 직접 말하고 쓴 내용이며 예레미야가 삼인칭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 혹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관해서 쓴 것이다.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두 자료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 『새한글』은 훑어보기만 해도 두 자료가 쉽게 구별된다. 두 자료에서 서로 다른 화계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6-10

『개역개정』

6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7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9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번역』

6 요시야 왕 때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7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8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9 그는 음행하는 것

21) 예컨대, Ibid., 370-376을 보라.

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10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새한글』

6 (예언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임금 **때였습니다**. (하나님) "너는 보았느냐?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여자는 높은 산과 울창한 나무 아래라면 어디든지 그리로 가서 거기서 놀아났다. 7 나는 생각했다, 그 여자가 이런 온갖 짓을 한 뒤에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을 그 여자의 자매이면서 나를 배신한 여자인 유다가 보았다. 8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놀아난 탓에 내가 그 여자를 내보냈다는 것을 유다가 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와 갈라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 나를 배신한 여자 곧 그의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가서 자신도 놀아났다. 9 그 여자 유다가 경솔하게 놀아난 탓에 땅이 더러워졌지. 그는 돌과 나무와 더불어 놀아났다. 10 이런 온갖 일이 일어났는데도 나를 배신한 여자인 그의 자매 유다는 마음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거짓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ㅡ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ㅡ"

3장에서 『새한글』은 예언자가 백성에게 말할 때 종결 어미를 존대형으로 번역했다. 이것은 예언자가 대중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한국어였다면 존댓말을 썼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상상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새한글』의 예언서에서 인용되는 말 밖에 있는 서술어의 종결 어미가 존대형인 경우는 굳이 괄호 속 화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예언자의 말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레미야 3:1-6은 일인칭 자료에 속한다.

반면 아래 인용된 예레미야 26장의 일부를 보라.

예레미야 26:1-6

『개역개정』

1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3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4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줏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새번역』

1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 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3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4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5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6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줏거리가 되게 하겠다.'"

『새한글』

1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2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 있어라. 그러고는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 모든 도시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에게 말해 주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모두 전해 주어라. 한 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3 어쩌면 그들이 듣고 저마다 자신의 나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려고 한 뜻을 바꾸겠다. 4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예언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자. 5 너희가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자.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거듭거듭 보낸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6 그렇게 계속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26장에서 인용문 밖의 문장들은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이로써 위에 인용된 26장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삼인칭 자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새한글』에

서 다양한 화계를 사용한 것은 국어학적 의의뿐만 아니라 성서학적 의의도 지니는 것이다. 즉, 현대 비평적 성서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새한글』구약 번역의 세 가지 특징, 곧 문장 내 도치, 화자와 말의 종류 표기, 다양한 화계에 관해 살펴보았다. 우선, 문장 내 도치는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조금 희생시키지만, 원문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된다. 둘째,『새한글』이 과감하게 번역 속에 화자와 말의 종류를 명시한 것은 한국어 독자가 성경의 내용과 문학의 갈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셋째, 다양한 화계를 활용한 것은 국어학적 의의는 물론 성서학적 의의까지 지닌다. 13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은혜를 통해 한국어 독자는 귀한 선물을 얻게 되었다. 기존의『개역한글』,『공동』,『표준』,『개역개정』,『공동개정』,『새번역』위에 주어진 새 귀한 선물을 통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내려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References)

김승재, “신간회 창립과정 궁금하다면…”, 「조선일보」, 2020.3.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153.html (2025.2.12.).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10.), 353-384.

박동현, “[구약 간추린 번역 해설] 『새한글』 간추린 번역 해설집: 구약”,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 (2025.2.12.).

“윤가이, 70년대×90년대 서울 사투리 차이!”, https://youtu.be/SvZG-BascvQ?feature=shared (2025.2.12.).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10.), 224-251.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 https://newslibrary.chosun.com/ (2025.2.12.).

Gesenius, W., Kautzsch, E., and Cowley, A. E., *Gesenius’ Hebrew Grammar*, 2nd English ed., Oxford: Clarendon, 1910.

Joüon, P.,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v. English ed., Subsidia Biblica 27,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Khan, G., et al.,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4 vols., Leiden: Brill, 2013.

Moravscik, E. A., *Introducing Language Typology*, Cambridge Introductions to Language an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Swenson, K., 『가장 오래된 교양』, 김동혁 역, 서울: 사월의책, 2013.

Tomlin, R. S., *Basic Word Order: Functional Principles*, Routledge Library Editions: Linguistics 13, London: Routledge, 1986.

Waltke, B. K., and O’Connor, M. P.,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새한글성경』의 신약 번역 특징과 실제
—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

박형대*

1. 들어가는 말

이번에 발행된 '다매체 다기능 다음 세대' 한국어 번역 성경인『새한글』 안에 담긴, 많은 분의 지난 12년 동안의 수고를 짧은 글 안에 담는 일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 안에 담는 것 같을 것이다. 2012년 12월 중순에 들었던, 어리둥절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과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떠올리니, "바로 내가 그대들을 보내어 거두어들이게 했는데, 그대들 자신은 그걸 위해 힘들여 일한 것이 없어요."(요 4:38)라는 말씀이 필자의 몫이다.

『새한글』 신약의 번역 특징과 실제를 다루기 위해 참고할 자료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반드시 언급해야 할 자료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로,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에서 번역 및 수정 과정에서 제작하여 기초번역자에게 배포한 자료들이 한 아름이다.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원칙 해설"(2012년 11월 1일), "제1회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워크숍 자료"(2012년 12월 14일, 15일),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과 관련된 몇 가지 안내 사항"(2013년 2월 13일), "제2회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워크숍 자료"(2013년 2월 13-15일),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서신서 분과 모임 자료집"(2013년 5월 24일),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복음서 분과 이차 모임 자료집"(2013년 7월 2일), "제3회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 London School of Theology(Brunel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hdpark@chongshin.ac.kr.

워크숍 자료집”(2013년 8월 23-24일), “제3회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워크숍 신약 기초자료 자료집”(2013년 8월 23-24일),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복음서 분과 4차 모임 자료집”(2013년 12월 7일), “제4회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워크숍 신약 자료집”(2014년 2월 6일),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서신서 분과 모임 II 자료집”(2020년 2월 24일)으로, 이들 모두 필자가 참여했던 모임에서 받은 자료이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참고문헌’에 정리하지는 않겠지만, 번역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이 외에도 자료를 작성하고 보내고 받고 공유할 때 사용할 파라텍스트(PARATEXT)라는 ‘번역자용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었다.

둘째로, 2021년 11월 30일에 『새한글 신약과 시편』이 발행된 다음에 나온 논문들이 있다. 이 글들에는 필자가 쓸 말들이 이미 많이 담겨 있다. 가장 발 빠른 반응은 발행 직후에 나온 김주한, “『새한글성경』 신약성경에 관한 고찰”, 「신약연구」 64 (2021. 12.), 729-768에서 읽을 수 있다. 이어, 반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4월 23일에 “성서 번역의 이상과 현실: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113차 한국신약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후속 게재 논문들이 있다.

발표 논문 가운데 다섯 개가 2022년 10월 30일에 발간된 「성경원문연구」 51호에 게재되었다.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장성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역사적 현재’ 번역에 대한 평가와 제언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 조재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원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안창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에 관한 제언 —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 이승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πίστις 번역에 대한 분석과 제언 —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이다.

발표 논문 가운데 세 개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조태연, “메타포가 살게 하라! 『새한글성경』의 비유 번역”, 「신약논단」 29 (2022), 297-338; 김주한, “『새한글성경』 사도행전 번역과 방향성: 헬라어 대본의 변경 가능성과 준비”, 「개혁논총」 60 (2022), 43-76; 임성욱, “성경 번역의 문화정치: 『새한글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장애 및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42 (2022), 169-202이다.

발표 논문 가운데 두 개는 아직 게재되지 않은 듯하다. 이민규, “『새한글성경』 번역에 대한 평가와 제안: 마태복음 중심으로” (자료집 65-79쪽)[1]; 김

1) 이민규의 제안 가운데에서는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다. 예로, 마 1:19의

한원, “『새한글성경』 존칭어미 ‘-님’에 대한 평가와 제언” (자료집 177-187쪽)이다. 이 두 논문은 “2022년 한국신약학회 제113차 정기학술대회: 성서 번역의 이상과 현실” 자료집의 것을 사용한다.

셋째로, 『새한글』 번역이 시작된 이후에 『새한글』 번역과 관련되어 게재된, 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문과 글들이다. 그 이전의 글들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성경원문연구」에 2012년부터 게재된 것을 발간 및 게재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의 노고가 읽히는 부분이다.

최영숙, “καυχᾶσθαι ἐν τινι의 새 번역과 바울의 ‘자랑’ 모티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84-102; 민경식, “디도서 3:5하반절에 대한 고찰과 우리말 번역 제언”,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103-120;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140-160; 이두희, “누가복음 18:22의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번역에 대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2012. 10.), 88-111; 윤철원, “빌립보서의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인 폴리튜마(πολίτευμα)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31 (2012. 10.), 112-133; 이달, “요한계시록 14:6에 나타난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1 (2012. 10.), 134-157; 문우일, “마가복음 4:3의 번역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53-159; 이재현, “성서 번역에서 접속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78-187; 장해경,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수정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88-196; 이재현,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 재고찰: 통시적 방법론 평가와 공시적 접근 제안”, 「성경원문연구」 32 (2013. 4.), 159-184; 박정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의 번역 문제(막 19:16; 막 10:17; 눅 18:18; 10:25)”,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34-53; 배재욱, “요한계시록 1:14상반절과 21:3 번역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139-146; P. 엘링워스, “수사의문문의 번역: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이달 역,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155-167;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83-109; 김주한, “요한복음 7:15의 분사구 μὴ μεμαθηκώς의 새로운 이해”,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

“요셉은 올바른 사람이어서”를 “요셉은 의인이라”로 제안한 것은 “요셉은 의인이어서”로 반영되었지만, 마 3:7의 “독사의 자식들”을 “독사의 새끼들”로 제안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110-127;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162-180; 이달, “요한계시록 6:8에 나오는 ἐν θανάτῳ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181-202; 정창욱, “누가복음-사도행전의 φόβος(‘두려움’/‘무서움’)에 대한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5 (2014. 10.), 195-217; A. Somov, “‘He Lifted Up His Eyes’: Translating Luke 16:23 in the Context of Cognitive Interpretation”, 「성경원문연구」 35 (2014. 10.), 291-309; 김태섭, “마태복음 19:28의 κρίνοντες에 대한 해석”, 「성경원문연구」 36 (2015), 165-186; 민경식,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한국어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36 (2015), 187-205; 정창욱, “사도행전에 사용된 σέβω와 φοβέω 동사의 분사형 번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10.), 173-192; 양재훈, “문맥적 읽기와 성서 번역: ‘탕자들의 비유’(눅 15:11-32)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183-202; 김선욱, “데살로니가후서 3:6, 11의 ἀτάκτως에 대한 문맥적 이해와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23-247; 조재천, “상호본문성을 반영하는 성서 번역: 히브리서 12:15하의 우리말 번역과 표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48-265; 장동수,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의 본문 변화들에 대한 연구”, 266-287; 전혜영, “주기도문의 사동문 구절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88-306; 현우식, “고대 천문학의 언어로 읽는 마태복음 2:9”,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17-136; 이재현, “바울 서신의 ‘마음’ 번역에 대한 제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의미론과 신학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37-161; 박성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15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62-186; 박찬웅, “벳새다 맹인 단락(막 8:22-26)의 ‘보다’ 관련 동사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100-122; 김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서술어인가?: 디도서 2:13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160-178; 정창욱, “요한1서 3:6, 9의 죄 문제 재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206-227; 이승현, “고린도전서 11:23의 παρεδίδετο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2 (2018. 4.), 45-67; 이상일, “내적 재구 방법론을 통한 신약성경 그리스어의 자음 음가 재구”, 「성경원문연구」 42 (2018. 4.), 68-89; 권영주, “‘너희가 미쳤구나’인가 ‘너희에게 신이 임했구나’인가?: 고린도전서 14:20-25의 μαίνεσθε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4 (2019. 4.), 114-134; 정창욱, “주요 요약구절인 사도행전 9:31

의 번역”, 「성경원문연구」 44 (2019. 4.), 94-113; 김선욱, “요한복음 21:24-25에 나타난 인칭 변화 연구와 οἶμαι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98-126; 조호형, “πᾶσα ἀνθρωπίνη κτίσις에 대한 재고 ― 베드로전서 2:13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127-150; 이상일, “신약성경 그리스어 외래어 표기 방식에 대한 제안과 그 적용 ―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151-170; 김서준, “바울서신의 ‘속죄’와 ‘화해’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ἱ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αγή의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98-130; 김영인, “‘누룩과 유월절 양’의 메타포 ― 고린도전서 5:7의 번역과 해석 ―”,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31-148; 김태섭, “고린도전서 13:13의 국문 번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49-167; 신현우, “야고보서 난해 구절 번역 ―야고보서 2:18과 4:5-6 ―”,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68-190; 김홍석, “신약성서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51-175; 한철흠, “요한계시록 3:10의 한글 번역에 대한 제언 ― Τηρήσω ἐκ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76-195;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요람’과 ‘여호람’ 번역에 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96-221; 조지윤, “λέπρα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9 (2021. 10.), 94-121; 정창욱, “요한1서 4:13의 번역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49 (2021. 10.), 196-213; 신현우, “마가복음 4:12 번역 ― 비유의 목적인가, 결과인가? ―”,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87-106; 송승인, “요한복음 3:13의 번역에 대한 재고”,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07-122; 김형동, “요한복음의 ‘여자’(γύναι)의 이해와 번역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23-140; 최갑종,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 로마서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문맥적 접근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41-173; 조재형, “『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한 제언들 ― 마태복음 21:29-31의 두 아들 비유에 관한 번역 ―”, 「성경원문연구」 50 별책 (2022. 8.), 112-118; 이승현, “고린도전서 11:10의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50 별책 (2022. 8.), 119-129; 김태섭, “‘두 아들의 비유’(마 21:28-32)의 본문 유형과 국문 번역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25-150; 권영주, “사람들의 완악해짐은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목적인가 결과인가? ― 마가복음 4:12의 ἵνα 해석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51-169;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 『개역개정』 사도행전의 인명과 지명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70-200;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53-384; 김서준, "마가복음의 어린아이 이야기의 주된 주제에 대한 고찰 ― παιδίον의 의미와 마가복음 10:15의 문장 구조 이해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2 (2023. 4.), 54-80; 김의창, "고린도전서 15:45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제안 ― '살아 있는 육신'인 아담과 '살려 주는 영'인 그리스도 ―", 「성경원문연구」 52 (2023. 4.), 81-100; 김영인, "예수에 대한 칭호 ἀρχηγός의 해석과 번역", 「성경원문연구」 53 (2023. 10.), 140-160; 조호형, "갈라디아서 1:6-7에 나타난 '다른'에 대한 재고", 「성경원문연구」 53 (2023. 10.), 161-184; 빌슨 숄츠, "신약성서 최신 그리스어 본문(NTG[28] 및 GNT[5])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 조재천 역, 「성경원문연구」 53 (2023. 10.), 271-286; 김서준, "로마서 5:16-21의 δικαι―용어들의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25-147; 김두석, "로마서 14:1-2와 15:1의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48-171; 최갑종, "에베소서 1:8-9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1:8하)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72-188; 정창욱,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 연구 ― 요한1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89-209;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연구",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210-244; 강세현, "마태복음 1:7-8의 Ἀσάφ에 대한 주해와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55 (2024. 10.), 27-47;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2) ― 『개역개정』의 개정에 부쳐 ―", 「성경원문연구」 55 (2024. 10.), 80-104이다.

한편, 「성경원문연구」 이외의 학술지에 『새한글』과 관련하여 게재한 글로는 김주한, "번역 대본과 번역자: 『새한글성경』 유다서 1:5b 번역", 「인문언어」 24:2 (2022), 41-62; 조지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고", 「한국여성신학」 98 (2023), 160-163; 김충연, "갈라디아서 2:11-4:7의 번역 연구: 『새한글성경』에 따른 형식 일치 번역을 중심으로", 「신약과 세계」 105 (2023), 45-78이 있다.

넷째로, 2024년 12월 30일에 발간된 「성경원문연구」 제55호 별책이 있다. 여기에는 '기초번역자'들의 글이 실려 있다. 자신이 기초 번역한 뒤, 많은 수고로 다듬어진 『새한글』 신약 최종 본문을 바탕으로, 번역자들이 다

섯 개의 예를 골라 '번역 특징', 즉『새한글』의 특장점을 역본 비교 및 차이점 기술의 방식으로 소개한다. 모두 열세 개의 글이니,『새한글』 신약의 번역 실제 65개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게재 순으로 나열하면, 이두희,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제안과 예시 －"; 류호성,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마태복음 －"; 정창욱,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누가복음 －"; 박영진,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요한복음 －"; 박형대,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사도행전 －"; 권연경,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로마서 －"; 최영숙,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고린도전서 －"; 윤철원,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빌립보서 －"; 유은걸,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데살로니가전후서·베드로후서 －"; 김경식,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디모데전후서 －"; 신현우,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야고보서 －"; 채영삼,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베드로전서 －"; 임진수,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요한1서 －"이다. 참고로, 기초번역자들은 GNT 5판,『개역개정』,『새번역』,『공동개정』, (드물게『성경』[2005]도),『새한글』 순으로 나열하여 번역을 비교한다. 예로, 사도행전 7:5의 경우, '발 붙일 만한 땅'은『개역개정』의, '손바닥만한 땅'은『새번역』과『공동개정』, (소개는 하지 않았으나 '한 치의 땅'은『성경』[2005]), 마지막으로 '한 발바닥만 한 땅'은『새한글』의 번역이다. 이 자료의 예들은 얇은 별책에 요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는다.

다섯째로, '성경 번역에 꼭 필요한 세 권의 책'이 있다. R. 프리츠,『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R. Pritz,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 (London: UBS, 2009)과 R. 쿱스,『성서 속의 식물들』, 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R. Koops,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London: UBS, 2012)과 E. R. 호프,『성서 속의 동물들』, 채은하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8); E. R. Hope,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London: UBS, 2005)이다. 이 책의 표현들은『새한글』 곳곳에 녹아 있다. 이 책과 관련된 용례도 따로 소개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에 넣을 만한 자료로, <성서의 땅을 찾아서>(The Bible Lands as Classroom)라는 DVD 여덟 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주인공은 성경책 자체이다. 2021년 11월 30일에 발행된『새한글 신약과 시편』과 2024년 12월 10일에 발행된『새한글』이다.

이상 소개된 자료 가운데 논문은 지면 절약을 위해 아래 본문에서 '저자명 년도' 혹은 '저자명 년도, 쪽' 혹은 '(년도, 쪽)'과 같이 표기한다. 단, 김주한과 이승현과 정창욱의 경우, 두 개의 논문이 같은 해에 게재된 경우가 있다. 이에, 김주한의 "『새한글성경』 사도행전 번역과 방향성: 헬라어 대본의 변경 가능성과 준비"는 '2022a'로, "번역 대본과 번역자:『새한글성경』 유다서 1:5b 번역"은 '2022b'로 표기한다. 또한, 이승현의 "고린도전서 11:10의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번역 문제"는 '2022a'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πίστις 번역에 대한 분석과 제언: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는 '2022b'로 표기한다. 마찬가지로, 정창욱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 연구: 요한1서를 중심으로"는 '2024a'로,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누가복음"은 '2024b'로 표기한다. 이 외의 참고 자료는 각주와 참고문헌에 형식을 갖춰 소개한다.

2. 연구 방법

필자는『새한글』 신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를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정리하려 한다. 먼저, '저본'에 대해서는 민경식 2015, 김주한 2021, 2022a, 2022b, 이두희 2022, 숄츠 2023 등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추가할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문법'에 대해서는 '품사'를 기준으로 '동사, 명사, 대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수사, 감탄사' 순으로 다루면 좋겠지만,[2] 위 논문들에서 주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동사, 접속사 등'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언하는 것으로 '문법' 관련 특징과 실제를 갈음한다.

마지막으로,『새한글』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고유명사 음역, 단어 및 구 번역, 신학 개념 번역, 장애 및 여성 관련 번역, 번역 이론 대입'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고유명사 음역'은 현재 변화가 심하기에, '장애 및 여성 관련 번역'은 중요하게 떠오르기에 따로 다룬다. '존대법'은 '번역 이론 대입'에서 다룬다.

2) '품사'에 대해서는 박형대,『나름 친절한 헬라어 문법책: 헬라어 신약성경 직독직해』(서울: 그리심, 2017) 참조.

3. 『새한글』 신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

『새한글』은 특징이 많다.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3.1. 저본[3)]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원칙 해설"(2012년 11월 1일) 5쪽에 따르면, 『새한글』의 대본은 GNT 4판과 NTG 27판이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4일 워크숍 당일에, 때맞춰 출판된 NTG 28판이 기초번역자들에게 배부되면서 NTG 28판을 따른다고 공지되었다.

'저본'은 번역의 대본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말 최초 번역 성경인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의 저본은 '로스의 증언, 주기도문, 고유명사 음역'의 측면에서 볼 때, 1881년 '팔머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4)] 이후 『구역』의 일부가 된 1906년 『신약젼셔』의 저본도, 비록 '저본의 충실도'가 의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팔머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5)] 『개역』(1938)의 신약 저본은 NTG 12판으로 보인다.[6)] 이후의 번역 성경은 머리말에 저본을 밝힌다. 『새번역』의 저본은 GNT 3판(1983)이고, 『공동개정』의 저본은 GNT 1판(1966), 『성경』(2005)의 저본은 GNT 4판(1993)이다.

이 점에서 『새한글』이 NTG 28판을 저본으로 삼은 것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 익숙한 이들은 NTG 26판(GNT 3판) 때 비평본의 읽기가 이미 매우 많이 달라졌음을 알아야 한다. NTG 26판과 27판에 보면 '십자가 표시(†)'를 통해 NTG 25판의 읽기를 제공한다. NTG 27판의 '십자가 표시'는 768개나 된다.[7)] NTG 28판의 서문에서 NTG 27판과 다른 곳으로 서른세 표현이 소개되기에, 『개역개정』에 익숙한 독자는 단순 합산으로

---

3) '저본' 대신 '번역 대본'이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더 자주 쓰는 편이다.

4)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Canon&Culture」 8 (2010), 114-115; 박형대, "존 로스의 고유명사 음역원칙: 『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와 『예수셩교젼셔』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32 (2013), 683-684;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72-73 참고.

5) 조병수, "『신약젼셔』(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 85, 100과 이복우, "『신약젼셔』(1906년) 요한복음 번역의 그리스어 저본(底本) 사용연구", 「신학정론」 30:2 (2012), 574, 599 참고.

6)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75.

7) Accordance 프로그램으로 검색됨.

계산할 때『새한글』을 통해 '저본으로 인한 차이점 801곳'을 만나게 된다.

흥미로운 예를 두 가지만 들어 본다. 하나는 구두점과 관련된 예이다. 요한복음 1:3에는 구두점 관련하여 '십자가 표시'가 있다. NTG 26판으로 오면서 마침표가 바뀌어, 요한복음 1:3-4는 '그분 없이 생겨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겨난 것은 생명이 있었다.'와 같이 번역될 원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NTG 26판 때부터 구두점이 바뀌었기에, NTG 28판을 따르자면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초번역자는 이전의 구두점 즉,『개역개정』과 같은 번역을 낳을 구두점을 선호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처음에는 반영되기 어려워 보였다. 그런데 최종 번역을 보니, 이전 구두점이 선택되었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와 같이 번역된 것이다. 하나의 예이기는 하지만,『새한글』이 '표현된 저본' 즉, NTG 28판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고려 즉, 신학적인 고려까지 반영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1:29-31에 있는 '두 아들 순종' 본문이다. 본래 존 로스의『예수셩교젼셔』(1887)와『구역』(1911)에는 '첫째 아들 순종' 본문이었는데,『개역』(1938)부터 '둘째 아들 순종' 본문이 되었고 이 전통은 현재『개역개정』에만 남아 있다.[8] 이에 조재형 2022와 김태섭 2022는『개역개정』본문을 '첫째 아들 순종 본문'으로 바꿔주기를 강하게 요구한다. 이번『새한글』에는 '첫째 아들 순종'으로 본문이 선택되어 있다.

> "첫째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소. 하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소. 한편 그 사람이 다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소. 그 아들은 '제가 당연히 가야죠, 주님.' 하고 대답했소. 그런데 가지 않았소.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소?" 그들이 대답한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세금업자들과 몸 파는 여자들이 당신들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소."

다음 세대 독자들을 고려할 때, 저출산으로 이제 더 이상 '둘째 혹은 다른 아들'이 있기 어려운 시기에 들어섰으므로, '둘째 아들 순종 본문'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되었다.

---

8) 필자는 칼빈과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본문 차이를 다룰 때 '두 아들 순종 본문'을 예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박형대, "칼빈과 우리의 성경본문 차이에 대한 소고",「개혁논총」47 [2018. 9.], 12-21 참고).

『새한글』의 저본 특히, NTG 28판 본문 변화와[9] 관련한 연구로는 민경식 2015, 김주한 2021, 2022a, 2022b가 있다. 민경식은 “아직까지는 28판 공동서신 부분의 변경된 본문에 대한 본문주석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했다(2015, 201). 장동수도 NTG 28판의 새로운 읽기 가운데, “세 곳(약 2:3; 벧전 1:6; 벧후 2:6)에서는 이전 본문(NTG 27판/GNT 4판)이 낫고”, “네 곳(벧전 4:16; 벧후 2:18; 요일 5:10, 18)은 ECM/GNT 5판의 본문이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2016, 281). 슐츠 2023 역시 28판의 선택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김주한의 “헬라어 대본의 변경 가능성과 준비”(2022a, 43-76)와 “유다서 1장 5절에서 달라진 부분의 연구”(2022b, 41-62)는 저본과 관련하여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한편, 조재천은 저본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대비평본(2017)이 반영되지 못한” 걸 아쉬워하면서도, 『새한글 신약과 시편』의 원문 충실도가 높다고 평가했다(2022, 298-299).

---

9) NTG 27판과 비교할 때 달라진 곳은 다음과 같다. 약 1:20의 ‘우크 에르가제타이(οὐκ ἐργάζεται)’는 ‘우 카트에르가제타이(οὐ κατεργάζεται)’로, 2:3의 ‘에케이 에 카쑤(ἐκεῖ ἢ κάθου)’는 ‘에 카쑤 에케이(ἢ κάθου ἐκεῖ)’로, 2:4의 ‘우 디에크리쎄테(οὐ διεκρίθητε)’는 ‘카이 우 디에크리쎄테(καὶ οὐ διεκρίθητε)’로, 2:15의 ‘레이포메노이(λειπόμενοι)’는 ‘레이포메노이 오신(λειπόμενοι ὦσιν)’으로, 4:10의 ‘퀴리우(κυρίου)’는 ‘투 퀴리우(τοῦ κυρίου)’로 바뀌었다. 벧전 1:6의 ‘뤼페쎈테스(λυπηθέντες)’는 ‘뤼페쎈타스(λυπηθέντας)’로 바뀌었다. 1:16 ‘[호티]([ὅτι])’와 ‘[에이미]([εἰμι])’는 삭제되었다. 2:5의 ‘[토]([τῷ])’도 삭제되었다. 4:16의 ‘오노마티(ὀνόματι)’는 ‘메레이(μέρει)’로, 5:1의 ‘운(οὖν)’은 ‘투스(τούς)’로 바뀌었고, 5:9의 ‘[토]([τῷ])’와 ‘[예수]([Ἰησοῦ])’도 삭제되었다. 벧후 2:6의 ‘아세베신(ἀσεβέ[σ]ιν)’은 ‘아세베인(ἀσεβεῖν)’으로, 2:11의 ‘파라 퀴리우(παρὰ κυρίου)’는 ‘파라 퀴리오(παρὰ κυρίῳ)’로, 2:15의 ‘카타레이폰테스(καταλείποντες)’는 ‘카타리폰테스(καταλίποντες)’로, 2:18의 ‘올리고스(ὀλίγως)’는 ‘온토스(ὄντως)’로 바뀌었다. 2:20의 ‘[헤몬]([ἡμῶν])’은 삭제되었다. 3:6의 ‘디 혼(δι᾽ ὧν)’은 ‘디 혼(δι᾽ ὅν)’으로, 3:10의 ‘휴레쎄세타이(εὑρεθήσεται)’는 ‘우흐 휴레쎄세타이(οὐχ εὑρεθήσεται)’로, 3:16의 ‘에피스톨라이스(ἐπιστολαῖς)’와 ‘스트레블루신(στρεβλοῦσιν)’은 ‘타이스 에피스톨라이스(ταῖς ἐπιστολαῖς)’와 ‘스트레블로수신(στρεβλώσουσιν)’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3:18의 ‘[아멘]([ἀμήν])’은 삭제되었다. 요일 1:7의 ‘데(δέ)’는 삭제되었고, 3:7의 ‘테크니아(τεκνία)’는 ‘파이디아(παιδία)’로, 5:10의 ‘엔 헤아우토(ἐν ἑαυτῷ)’는 ‘엔 아우토(ἐν αὐτῷ)’로, 5:18의 ‘아우톤(αὐτόν)’은 ‘헤아우톤(ἑαυτόν)’으로 바뀌었다. 요이 1:5의 ‘카이넨 그라폰 소이(καινὴν γράφων σοι)’는 ‘그라폰 소이 카이네(γράφων σοι καινή)’로, 1:12의 ‘페플레로메네 에(πεπληρωμένη ᾖ)’는 ‘에 페플레로메네(ᾖ πεπληρωμένη)’로 바뀌었다. 요삼 1:4의 ‘테 알레쎄이아(τῇ ἀληθείᾳ)’는 ‘알레쎄이아(ἀληθείᾳ)’로 바뀌었다. 유 1:5의 ‘판타 호티 [호] 퀴리오스 하팍스(πάντα ὅτι [ὁ] κύριος ἅπαξ)’가 ‘하팍스 판타 호티 예수스(ἅπαξ πάντα ὅτι Ἰησοῦς)’로 바뀌었고, 1:18의 ‘[호티]([ὅτι])’와 ‘[투]([τοῦ])’는 삭제되었다.

3.2. 문법

결국, 그리스어 문법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리스어 문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실제 번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3.2.1. 동사

동사 상에 대한 견해가 번역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학자들이 입장이 갈리기도 한다. 최근 공부하고 온 학자들은 동사 상 이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송승인은 요한복음 3:13의 동사와 관련하여, "그러나 이 동사의 상 이론을 적용한 해석은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의 용례를 통해 볼 때 그리 설득력이 없다."라고 평가하여(2022, 118), 동사 상 이론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다. 정창욱이 제안한 요한1서 3:6, 9에 대한 이해 즉, "3:6, 9의 '죄짓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동사 '하마르티노(ἁμαρτίνω)'의 현재 직설법 동사는 반복적/습관적 동작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2017, 225)라고 하는데, 이도 최근 유행하는 동사 상 이론의 입장은 아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새한글』이 전체적으로 '동사 상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예로, 장성민은 부정과거를 "외부적인 관점에서 그저 '완결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며, 마가복음 1:11의 부정과거는 '기뻐한다'로, 로마서 5:14의 부정과거는 '다스렸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는데(2024, 236), 『새한글』에는 각각 '난 네가 좋아.'와 '지배했습니다.'와 같이 번역하여 반영되어 있다.

동사 상 외에도 동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다. 장성민은 『새한글 신약과 시편』에서 "원문의 '역사적 현재'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긴 것"을 중요하게 평가했다(2022, 274). 정창욱도 『새한글 신약과 시편』이 "기존의 한글 성경들과는 달리 적어도 요한1서에서 현재완료 시제의 의미를 한글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한다(2024, 206). 그러한 평가와 함께, "현재완료 시제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분명히', '똑똑히', 또는 '생생히'와 같은 부사를 첨가하는 방식을" 권하는데(2024, 206), 반영되지는 않았다.

문우일이 '명령형 동사'와 관련하여 제안한 마가복음 4:3의 번역 '들으라, 보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문우일 2012, 159)는 '잘 들으세요.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와 같이 참신하게 반영되

었다. 또한, 요한복음 7:15의 분사구 '메 메마쎄코스(μὴ μεμαθηκώς)'를 '숙의적 의문문'으로 해석하여 '만약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글을 알겠는가!'와 같이 번역하자는 김주한 2014, 121의 제안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갖췄지?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이야!'와 같이 참신하게 표현되었다.

3.2.2. 접속사 등

문법과 관련하여 동사와 더불어 다양하게 다뤄진 품사가 접속사이다. 먼저, 마가복음 4:12의 '히나(ἵνα)'를 "목적절이 아닌 결과절로 해석하는 견해가 문맥적으로 훨씬 타당하다는" 권영주의 결론(2022, 165)은 『새한글 신약과 시편』에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와 같이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접속사 번역과 관련하여, 김영인이 고린도전서 5:7과 관련하여 제안한 '때문입니다'(2020, 145)는 '때문입니다'로, 디도서 2:13과 관련하여 제안한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2017, 174)는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반영되었다.

접속사 번역 및 생략에 대한 이재현의 제안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예로, 고린도전서 13:13에 대한 '그러나 이제는'(이재현 2012, 181) 제안은 '그런데 이제는'으로 번역되었고, 로마서 1:16상반에 있는 접속사 '가르(γάρ)' 번역에 대한 제안인 '때문이다'는 '때문입니다'로 번역되었다. 김태섭은 『신약젼셔』(1904)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3:13에 '그런즉'과 'ᄒᆞᆼ샹'이 있는 게 적절하다고 보았는데(2020, 161), 『새한글』에는 이 부분이 '그런데 … 남아 있습니다.'와 같이 번역되어 있다.

한편, 장해경이 접속사와 관련하여 제안한 '오직' 생략 및 '오히려 혹은 그러나' 추가 제안(장해경 2012, 194-196) 가운데, '오직' 생략은 반영되었으나 '접속사 추가'는 반영되지 않았다(예. 롬 1:17하).

또한, 신현우가 마가복음 4:12와 관련하여, "『새한글 신약과 시편』(2021)의 번역은 이 구절에서 '히나(ἵνα)'와 '메포테(μήποτε)'를 결과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번역한 점에서 이 난해한 구절을 용례와 문맥에 부합하게 잘 번역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구절에서 동족 분사의 사용을 '보고 또 보겠지만'과 '듣고 또 듣겠지만'으로 번역한 부분은 동족 분사를 사용한 칠십인역과 신약성서의 용례에 부합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그리하여 그들은 분명히 보더라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며,

또한 확실히 듣더라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돌이켜 용서받을 것이다.'와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하지만(2022, 104),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와 같이 표현이 유지되었다.

또한, 신현우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고려하여 야고보서 2:18을 "그러나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말이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소?' 그러나 나는 말이죠, 나는 행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행함 없이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이죠,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그대에게 보여 드리기도 하지요."와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2020, 185). 그러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대의 그 믿음을 보여 주세요. 행함을 떼어 놓고요.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나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 드릴게요.'"와 같이 번역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김서준이 마가복음 10:15의 '호스 파이디온(ὡς παιδίον)'을 '목적격으로' 이해하여,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혹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와 같이 번역하는 것(2023, 72-73)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3.2.3. 정리

이두희는『새한글 신약과 시편』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임을 '최신 원문을 바탕으로 번역, 원문의 어원, 접두어, 시제를 최대한 살린 번역, 원문의 어순을 살린 번역, 인칭대명사 강조 용법을 살린 번역, 원문의 문학적 갈래와 문체적 특징을 고려한 번역, 원문의 수사적 기법과 신학적 특징을 고려한 번역'으로 설명했다(2022, 235-244). 장성민도『새한글 신약과 시편』에서 "문법적 구조, 어원적 특징, 어순이나 대명사의 강조 용법 등을 꼼꼼하게 살펴 원문의 풍부한 의미와 분위기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감행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았다(2022, 274). 앞서 언급했듯, 조재천도『새한글 신약과 시편』의 '원문 충실도'를 높이 평가했다(2022, 298-299).

그럼에도, 동사 상 이론에 대한 합의와 번역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학자들이 모여 원문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도움이 될 것이다.

3.3. 표현

2012년 12월 14일 워크숍 때 NTG 28판과 함께 제공된 성경이 하나 더 있었다. 독일성서공회에서 2012년에 발행한 BasisBibel: Das Neue Testament und die Psalmen이다. 『새한글』이 다매체를 염두에 둔 번역이었기 때문에, 다매체 번역의 선구라 할 수 있는 BasisBibel을 보고 참조하라는 것이었다. 이두희(2022, 233-247)는 『새한글』의 번역 특징을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이분법을 넘어서"라는 전제하에, '다매체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한 번역(짧은 문장으로 번역, 순차적인 정보 전달), 원문에 충실한 번역, 우리말 어법에 맞는 번역'에 담았다. 민현식은 '우리말 어법'과 관련하여 『새한글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특성'을 '어휘론적 의의, 문장론적 의의, 담화론적 의의, 표기론적 의의'로 나눠 설명했다(2022, 356-380).

『새한글』이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읽는 것은 중요하다. 결국, "한 문장이 16어절 50글자 이내의 짧은 문장이 되도록 번역한다는 세부 지침"(이두희 2022, 232)으로 인해, 에베소서 1:8-9에 대한 최갑종의 번역 제안(2024, 185)은 반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3.3.1. 고유명사 음역

『새한글』 신약의 고유명사 음역은 독자적인 원칙을 따른다.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원칙 해설"(2012년 11월 1일), 20-21쪽에 제시된 원칙은 "고유명사와 원어 낱말의 음역은 개역개정판의 전통을 존중하되,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르고,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나 국어사전에 나오는 고유명사들은 현재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음역 표기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체로 원칙을 따랐다. 이 원칙에는 '전통'과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음역 표기'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포함한다.

고유명사 음역과 관련하여 '그리스어 음가'를 연구한 이상일은 고유명사 음역 기준으로 '전통'도 중요하지만, '칠십인역'과 '파열음을 삼항 대립 체계로 표기하는 것'을 중시한다(2020, 164-165). 이상일의 '삼항 대립 체계'

를 따르지 않는 박정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인명과 지명에 대해 기존 음역과 더불어 수정을 제안하고(2022, 189-194), 새로운 표기법도 제안했다(2024, 80-104). '음가'와 '전통', 그리고 '국내 표준'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영역이 '고유명사 음역' 부분이다. 참고로, 존 로스는 고유명사를 음역할 때, '음가'와 함께 '언중'을 고려하여 "우리말에 없는 발음을 음역을 통해 억지로 표현하려 하지 않았다".[10]

음역의 구체적인 예와 관련하여, 전무용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번역 일관성" 유지를 위해 마태복음 1:8의 '요람'을 '여호람'으로 음역하도록 제안한 것(2021, 216)은 반영되었다. 또한, 강세현이 마태복음 1:7-8의 배경에 시편 78장을 염두에 두면서 '아사'를 '아삽'으로 음역할 것을 제안하는데(2024, 43), 논문이 나오기 전『새한글 신약과 시편』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고유명사 음역과 관련하여 '신구약 통일성'이라는 기준이 가져온 가장 큰 폐해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라면 구약에 나오는 '애굽 혹은 이집트'가 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애굽 혹은 이집트'라는 단어는 없고 '미스라임[미쯔라임]'만 있다. 그럼, 왜 구약에 '애굽 혹은 이집트'라는 지명이 들어왔는가? 신약에서의 지명이 구약에 대입된 결과이다. '애굽'은 그리스어 '아이귑토스(Αἴγυπτος)'의 음역이다.『개역개정』에는 '미스라임' 용례 682회 가운데 그나마 '미스라임'으로 음역 된 곳이 다섯 군데 있었는데(창 10:6, 13; 50:11; 대상 1:8, 11),『새한글』에는 '신구약 통일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미스라임은 창세기 50:11의 '아벨미스라임'에만 남았다.

한편,『새한글』에서는 음역과 번역을 병행하기도 한다. 예로, 사도행전 27:8의 '칼로이리메네스(아름다운 항구)'와 28:15의 '트레이스 타베르나이(세 여관)'가 있다. 참신한 시도이다.

3.3.2. 단어 및 구 번역

조지윤이 '레프라(λέπρα)' 및 '레프로스(λεπρός)'와 관련하여 '심한피부병' 및 '심한피부병을 앓는 사람'으로 제안한 번역(2021, 116)은 반영되었다. 이두희 2012의 '판타 호사 에헤이스 폴레손(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번역에 대한 제안('네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이 누가복음 18:22에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요한복음 21:25의 '오이마이(οἶμαι)'를 "'생각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박형대, "존 로스의 고유명사 음역원칙", 689.

는 김선욱의 제안(2020, 119)도 '생각하기에는'으로 번역되어 반영되었다. 최영숙 2012의 바울의 '자랑 모티브' 및 '카우하스싸이 엔 티니(καυχᾶσθαι ἐν τινι)'에 대한 제안도 고린도전서 1:31('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과 고린도후서 10:17('주님을 자랑하기 바랍니다')에 반영되었다. 고린도전서 11:23의 '파르에디데토(παρεδίδετο)'를 '붙잡힘'이 아니라 '내어진, 혹은 넘겨진'으로 번역하자는 제안(이승현 2018, 64)은 '넘겨지시던'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박찬웅이 마가복음 8:25와 관련하여 '눈을 다시 뜨다,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온전해지다'로 제안한 번역(2017, 118)은 '다시 보게 되어, 또렷이 보게 되었다,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와 같이 참신하게 반영되었다. 한철흠이 요한계시록 3:10의 '테레인 에크(τηρεῖν ἐκ)'가 "시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함, 즉 시험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함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것(2021, 183)도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 주겠다.'와 같이 잘 반영되었다. 이달이 요한계시록 6:8의 '엔 싸나토(ἐν θανάτῳ)'를 '전염병으로써'로 번역하자는 제안한 것(이달 2014)도 '생명을 앗아 가는 병으로'와 같이 참신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포보스(φόβος)'를 '무서움, 공포'의 의미로 표현하자는 정창욱 2014의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제안된 구절 모두에 '두려움' 혹은 '두려워하다'가 번역에 사용되었다. 송승인이 요한복음 3:13의 '에이 메(εἰ μή)'를 '외에는'보다는 '그러나'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 것(2022, 119)도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곧 인자 말고는요.'라고 '외에는'과 유사하게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이승현이 고린도전서 11:10의 '엑수시안 에헤인 에피 테스 케팔레스(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를 "(1) '여인은 그 머리를 향한 자유/권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혹은 (2) '여인은 그 머리를 통제해야 합니다.'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2022a, 129)도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자기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11] 갈라디아서 1:6-7의 '헤테론(ἕτερον)'과 '알로(ἄλλο)'를 '전혀 다른 복음, 또 하나의 복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호형의 제안(2023, 177)도 둘 다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신약에서 빌립보서 3:20에

11) 고전 11:10과 관련하여, 황영자(『바울이 본 아담과 하와: 고린도전서의 남녀관』, 신학총서 [서울: 헵시바총신여동문, 2018], 105)는 "여자는 그녀의 원천인 남자에게 권위를 가져 마땅하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딱 한 번 나오는 '폴리튜마(πολίτευμα)'에 대한 윤철원 2012, 127의 제안("시민권 보다는 [공간적] 영역을 나타내는 '[천상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도 반영되지 않고 '시민권'으로 번역되었다. 김선욱이 데살로니가후서 3:6, 11의 '아탁토스(ἀτάκτως)'를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제멋대로'가 아니라 '게으르고 거역하는'으로 번역하자는 제안(2016, 243)은 '제멋대로'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베드로전서 2:13의 '파사 안쓰로피네 크티시스(πᾶσα ἀνθρωπίνη κτίσις)'가 '인간의 모든 제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 피조물'을 의미한다는 조호형의 주장(2020, 144)도 '사람이 세운 온갖 제도'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이달이 요한계시록 14:6의 '유앙겔리온 아이오니온(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영원한 심판의 복음'과 같이 번역하자는 제안(이달 2012, 153)도 '좋은 소식으로 전할 복음'으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배재욱이 요한계시록 21:3에서 '백성들'로 번역하고 1:14상반에서 '그러나 그의 머리, 곧 그 머리털은'으로 번역하자는 제안(배재욱 2013, 142-144)도 반영되지 않았다. 21:3은 '백성'으로, 1:14상반은 '머리와 머리카락은'으로 번역되었다.

한편, 정창욱이 요한1서 4:13의 '에크 투 프뉴마토스(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를 '성령으로부터'로 보고 '호티(ὅτι)'를 '이유를 표현하는 접속사'로 봐야 하기에,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성령으로부터 주셨기 때문이다.'로 번역하자는 제안(2021, 210-211)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는 것으로 말입니다.'로 번역되어 절반만 반영되었다.

3.3.3. 신학 개념 번역

박정수가 '제2성전기 유대교의 구원관'을 반영하여 마태복음 19:16을 '내게 영생이 있으리이까' 혹은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려면'으로 번역하자는 제안(박정수 2013, 50)은 '얻겠습니까'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가복음 10:17과 관련하여 제안한 '영생을 상속하리이까(유업으로 받으리이까)'와 누가복음 18:18(또한 10:25)과 관련하여 제안한 '상속하려면(유업으로 받으려면)'(박정수 2013, 50)은 '받아 누리겠습니까'와 같은 표현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언약적 율법주의 혹은 신율주의'를 받아들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단어가 다

르기에 달리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최갑종이 '피스티스 흐리스투(πίστις Χριστοῦ)'와 관련하여 "목적 속격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주격 속격인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안(2022, 166)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롬 3:22), '예수님을 믿는 믿음'(롬 3:26)과 같이 번역되어 반영되어 있다. 한편, 이승현이 '에크 피스테오스(ἐκ πίστεως)'를 '믿음에 기초하여'도 좋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기인하여'로 번역하기를 제안한 것과, 갈라디아서 3:26의 '디아 테스 피스테오스 엔 흐리스토 예수(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 것(2022b, 346-347)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는 듯하다.

한편, 정창욱이 "사도행전에 사용된 σέβω와 φοβέω 동사의 분사형 번역"(2015, 188)에서 '하나님 예배자/경배자'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으로, '하나님 경외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참신하게 반영되었다. 또한, 장해경이 바울의 '칭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안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써'(장해경 2012, 193)는 칭의 문맥 내에서 '믿음에 기초하여'(롬 5:1; 갈 2:16하; 3:11; 빌 3:9하)로 번역되어 참신하게 반영되었다. "디도서 3:5가 증언하는 구원의 과정"에 대한 민경식의 번역 제안인 '그가 중생과 갱신의 성령세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문자적 번역)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씻어주심으로써 구원하셨는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였습니다'(기능적 번역)(민경식 2012, 116-117)는 '다시 태어나도록 씻어 주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해 주심을 통해서 그리하셨지'와 같이 참신하게 반영되었다.

김서준은 바울의 '속죄'와 '화해' 개념과 관련하여, 로마서 3:25의 '힐라스테리온(ἱλαστήριον)'이 '죄를 덮는 제물, 진노의 심판을 막는 제물'을 의미한다며, "'속죄'와 '화목'이라는 번역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았는데(2020, 119-120), 『새한글』 로마서 3:25는 '죄덮는제물(화목제물)'과 같이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한다.

바울 서신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부분에 대한 이재현의 제안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예로(이재현 2017, 151), 로마서 1:28에서 '지식'으로 번역하기를 제안했으나 '인정하는 것'으로 번역했고, 12:11에서 '[성령으로 인한] 열정으로'로 번역할 것을 제안했으나 '마음이 뜨거워져서'로 번역했고, 12:16에서 '같은 생각, 교만한 생각'으로 번역하기를 제안했으나 '같은 마

음, 주제넘은 생각'으로 번역했고, 14:15에서 '당신의 형제가 슬퍼하게 된다면'으로 번역하기를 제안했으나 '그대의 형제자매가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으로 번역했다. 다만, 15:26, 27에서 '기뻐했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 것은 '기꺼이, 기꺼이 그렇게 했는데'와 같이 번역하여 반영한 게 되었다.

김홍석은 신약성경에 쓰인 '휘포스타시스(ὑπόστασις)'의 개념을 '실재'로 보고 '실상'(고후 9:4; 히 11:1), '실재'(고후 11:17; 히 1:3상; 3:14)로 번역할 것을 제안했으나(2021, 159-169), '확신 있게 자랑한 일'(고후 9:4), '일'(고후 11:17), '믿음의 근거'(히 3:14), '현실'(히 11:1), '실상'(히 1:3상)과 같이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김영인이 '인도자'로 일관성 있게 번역할 것을 제안한 '아르헤고스(ἀρχηγός)'(2023, 155)는 '창시자'(행 3:15; 히 2:10하), '지도자'(행 5:31하), '이끌어 들이시[는 분]'(히 12:2상)과 같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마태복음 19:28과 누가복음 22:30에 쓰인 '크리논테스(κρίνοντες)'의 개념을 '부정적인 심판'이 아니라 '긍정적인 통치'로 해석하여 번역하자는 김태섭 2015, 182의 제안은 '심판하고'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로마서 5:18의 '디카이오시스(δικαίωσις)'가 '의롭다고 하심'이나 '무죄 선언'이 아니라 '의인의 지위를 얻음'이라는 김서준의 주장(2024, 144)은 '무죄 선언'으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김두석이 로마서 14:1-2의 '피스티스(πίστις)'가 "'믿음'이 아닌 '확신'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과 "로마서 15:1의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할 수 있는/가능한 우리' 혹은 '먹을 수 있는 우리'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2024, 168)은 각각 '믿음'과 '우리 강한 사람들'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구원 관련 개념'인 빌립보서 1:19의 '소테리아(σωτηρία)'를 '구원 상태'로 번역하자는 이재현의 제안(이재현 2012, 175)은 반영되지 않았다. '석방'으로 번역되고, "또는 '구원으로'"가 각주로 추가되었다. 김의창은 『새한글 신약과 시편』의 고린도전서 15:45를 '살아 있는 육신이 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살려 주는 영이 된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는 번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으나(2023, 94) 수정되지 않았다.

3.3.4. 장애 및 여성 관련 번역

채은하 2012, 2014에 제안된 '장애인 관련 표현'은 반영되었다. 예로,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채은하 2014, 174)이 사용되었다. 한편, 치유된 이들에 대해서는 채은하의 제안에서 더 나아가 '못 듣

던 사람들, 말 못하던 사람들'(막 7:37)이라고까지 번역되었다.

김형동은 '귀나이(γύναι)'가 "혈연이나 애정을 담아내는 표현이 아니라 산고의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가리킨다."라면서, 요한복음의 "γύναι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의미하는 용어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2022, 136). 이러한 입장은 안창선에게서도 발견된다. 안창선은 '귀나이(γύναι)'를 '어머니'로 번역하는 것도, '자매님'으로 번역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2022, 313-314).

그러나 조지윤은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른 호칭을 '어머니'로 번역한 것은 '문맥에 맞게' 번역한 것으로 보았다(2023, 161). 더 나아가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마 15:28), '척추장애인 여자'(눅 13:2), '사마리아 여자'(요 4:21),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하다가 붙잡힌 여자'(요 8:10), '막달라 마리아'(요 20:15)를 이 호칭으로 부른 것을 '자매님'으로 번역한 부분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귀나이'로 부른 여자들을 존중하실 뿐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드러내시며, 대화자 모두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력 있게 하신다."라고 지지한다(2023, 161-162). 조지윤의 입장은 임성욱(2022, 182-193)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임성욱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을 경우, 예수는 결코 여성에게 이상적인 남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는 의견을 추가로 개진한다(2022, 193-194).

한편, 박성호가 디모데전서 2:15를 '여자는 출산(의 고통과 위험)을 통과하여/거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했는데(2017, 175-176), '아이 낳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네'와 같이 번역하여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12]

3.3.5. 번역 이론 대입

『새한글』에서 가장 낯선 부분은 『개역개정』과의 문체 차이일 수 있다.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원칙 해설"(2012년 11월 1일), 7쪽에는 "옛 문체를 쓰지 않고 현대 한국어체인 '-다' 체를 기본 문체로 하되, 필요할 때는 '-ㅂ니다' 체도 쓴다."라고 하였고, 13쪽에는 "대화문과 인용문은 상황에 맞는 입말로 옮기며, 한국어 어법에 맞는 존비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원칙

12) 이 구절에 대해서는 황영자, 『바울이 본 아담과 하와: 창세기,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의 남녀관』, 신학총서 (서울: 헵시바총신여동문, 2017), 161-208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황영자는 "그 해산함으로, 한 아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것이다."와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시된다. 이 외에도 14쪽에서는 "부활 이전의 예수께서 대중에게 하신 말씀은 '-ㅂ니다' 체인 격식체 문장으로 끝맺는다."라고 원칙을 제시한다.

국어와 신학을 함께 공부한 박덕유는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에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화계 사용에 대한 기본 얼개를 제시한다(박덕유 2014, 83-109).

> 우선, 제자들과의 화계는 아무래도 엄격성이 있어야 하므로 격식성이 가장 강한 '해라체↔하십시오체'가 적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다. 따라서 육체적 병마로 인해 힘들게 살아온 이들에게 격식 있는 '해라↔하십시오'보다는 '하오↔하십시오'나, 친근감을 주는 '해요↔하십시오'가 더 좋을 듯싶다. 그리고 주로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십시오↔하십시오'가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해라체'보다는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으므로 '하십시오체'가 적합할 것으로 본다. 다만, 개별적인 사람을 상대로 하는 백부장이나 삭개오,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기 전의 시몬, 마[태] 등에게는 '하오↔하십시오'가 무난할 것이다.(박덕유 2014, 105).

물론, 그의 제안 가운데 다르게 적용된 것들도 있다. 예로,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대화에 대해 '해라↔하오'를 제안했으나(박덕유 2014, 104), '-다↔하오'로 번역되었다. 예로, 마태복음 4:3-4를 보자.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 보시오.' 예수님이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한편, 전혜영 2016은 한국어 사용자의 사동문 이해에 근거하여 주기도문에 있는 '시험에 들다'라는 표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마태복음 6:13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와 같이 반영되었다.

수사의문문을 '진술문으로 변형'하여 번역할 수 있다는 엘링워스 2013의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로, 요한복음 4:35는 '않나요?'로, 6:70은 '않았나요?'로, 7:42도 '않았나요?'와 같이 수사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소모브(A. Somov 2014)가 인지언어학에 기초하여 제안한 누가복음 16:23에 대한 제안은 '자기 눈을 들어, …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어요.'와 같이 반영되었다.

‘문맥적 읽기’에 근거하여 양재훈이 ‘탕자의 비유’와 관련하여 제안한 세 가지 가운데 즉, ‘종노릇하다’, ‘원래 입던 옷’, ‘처분하다’ 가운데(2016, 194-196), ‘종노릇하다’만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로 반영되고, 나머지는 ‘제일 좋은 예복, 다 모아’와 같이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칠십인역을 반영하여 히브리서 12:15를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위로 돋아나서 혼란을 일으키거나’로 번역하자는 조재천의 제안(2016, 262)을 칠십인역 표현은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만들어’로 번역하여 참신하게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고대 천문학의 언어를 반영하여 현우식이 마태복음 2:9를 ‘천문학자들이 관측했던 동틀 녘에 떠오르는 별이, 천문학자들 앞에서 역행 운동을 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서 정지 운동을 하였다’와 같이 번역하자는 제안을 했는데(2017, 131), ‘그런데, 보라, 그 별, 그들이 동쪽 지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 별은 한참을 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와 같이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4. 나가는 말

『새한글』 신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를 하나의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서, 그간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실, 연구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참신하게 반영된 것도 있고, 절반만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성경원문연구」에 다양한 색채의 글이 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한글』이 ‘저본, 문법, 표현’에 대한 나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다양성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맞이하면 한국어 번역 성경이 점점 더 발전할 것을 시사한다.

『개역한글』을 암송하다가 『개역개정』이 나왔을 때 난감했던 필자로서는, 찬송가 가사를 외웠는데 가끔 달라진 가사로 인해 정신이 번쩍 들었던 필자로서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삼십 년 넘게 성경만 붙들고 살았던 필자로서는 다음 세대가 『새한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게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한 수고를 열 번 더 하라고 하더라도 할 마음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BasisBibel: Das Neue Testament und die Psalm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Novum Testamentum Graece, 26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3; org. ed. 1979.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revise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revised ed., 3rd corrected printi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The Greek New Testament, 1st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66.

The Greek New Testament, 3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3.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The Greek New Testament, 5th revise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강세현, “마태복음 1:7-8의 Ἀσάφ에 대한 주해와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55 (2024. 10.), 27-47.

권영주, “‘너희가 미쳤구나’ 인가 ‘너희에게 신이 임했구나’인가?: 고린도전서 14:20-25의 μαίνεσθε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4 (2019. 4.), 114-134.

권영주, “사람들의 완악해짐은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목적인가 결과인가?: 마가복음 4:12의 ἵνα 해석”,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51-169.

권연경,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로마서”,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64-76.

김경식,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디모데전후서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107-114.

김두석, “로마서 14:1-2와 15:1의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48-171.

김서준, “로마서 5:16-21의 δικαι−용어들의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25-147.

김서준, “마가복음의 어린아이 이야기의 주된 주제에 대한 고찰 − παιδίον의 의미와 마가복음 10:15의 문장구조 이해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2 (2023. 4.), 54-80.

김서준, “바울서신의 ‘속죄’와 ‘화해’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ἱ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αγή의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98-130.

김선욱, “데살로니가후서 3:6, 11의 ἀτάκτως에 대한 문맥적 이해와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23-247.

김선욱, “요한복음 21:24-25에 나타난 인칭 변화 연구와 οἶμαι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98-126.

김영인, “‘누룩과 유월절 양’의 메타포 − 고린도전서 5:7의 번역과 해석 −”,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31-148.

김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서술어인가?: 디도서 2:13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160-178.

김영인, “예수에 대한 칭호 ἀρχηγός의 해석과 번역”, 「성경원문연구」 53 (2023. 10.), 140-160.

김의창, “고린도전서 15:45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제안 − ‘살아 있는 육신’인 아담과 ‘살려 주는 영’인 그리스도 −”, 「성경원문연구」 52 (2023. 4.), 81-100.

김주한, “번역 대본과 번역자: 『새한글성경』 유다서 1:5b 번역”, 「인문언어」 24:2 (2022. 12.), 41-62. (2022b로 표기)

김주한, “『새한글성경』 사도행전 번역과 방향성: 헬라어 대본의 변경 가능성과 준비”, 「개혁논총」 60 (2022. 6.), 43-76. (2022a로 표기)

김주한, “『새한글성경』 신약성경에 관한 고찰”, 「신약연구」 64 (2021. 12.), 729-768.

김주한, “요한복음 7:15의 분사구 μὴ μεμαθηκώς의 새로운 이해”,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110-127.

김충연, “갈라디아서 2:11-4:7의 번역 연구: 『새한글성경』에 따른 형식 일치 번역을 중심으로”, 「신약과 세계」 105 (2023), 45-78.

김태섭, “고린도전서 13:13의 국문 번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49-167.

김태섭, “‘두 아들의 비유’(마 21:28-32)의 본문 유형과 국문 번역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25-150.

김태섭, “마태복음 19:28의 κρίνοντες에 대한 해석”, 「성경원문연구」 36 (2015), 165-186.

김한원, “『새한글성경』 존칭어미 ‘-님’에 대한 평가와 제언”, 「“2022년 한국신약학회 제113차 정기학술대회: 성서 번역의 이상과 현실” 자료집」 (2022), 177-187.

김형동, “요한복음의 ‘여자’(γύναι)의 이해와 번역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23-140.

김홍석, “신약성서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51-175.

류호성,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마태복음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22-30.

문우일, “마가복음 4:3의 번역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53-159.

민경식,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한국어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36 (2015), 187-205.

민경식, “디도서 3:5하반절에 대한 고찰과 우리말 번역 제언”,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103-120.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53-384.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83-109.

박성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15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62-186.

박영진,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요한복음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42-52.

박정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의 번역 문제(막 19:16; 막 10:17; 눅 18:18; 10:25)”,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34-53.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개역개정』 사도행전의 인명과 지명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70-200.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2) －『개역개정』의 개정에 부쳐 －”, 「성경원문연구」 55 (2024. 10.), 80-104.

박찬웅, “벳새다 맹인 단락(막 8:22-26)의 ‘보다’ 관련 동사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100-122.

박형대, 『나름 친절한 헬라어 문법책: 헬라어 신약성경 직독직해』, 원어성경을 읽

고픈 그대를 위한 책 하나, 서울: 그리심, 2017.
박형대,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사도행전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53-63.
박형대, “존 로스의 고유명사 음역원칙: 『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와 『예수셩교젼셔』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32 (2013), 677-705.
박형대, “칼빈과 우리의 성경본문 차이에 대한 소고”, 「개혁논총」 47 (2018. 9.), 9-38.
배재욱, “요한계시록 1:14상반절과 21:3에 대한 새로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139-146.
송승인, “요한복음 3:13의 번역에 대한 재고”,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07-122.
숄츠, 빌슨, “신약성서 최신 그리스어 본문(NTG^{28} 및 GNT^{5})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 조재천 역, 「성경원문연구」 53 (2023. 10.), 271-286.
신현우, “마가복음 4:12 번역 － 비유의 목적인가, 결과인가? －”,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87-106.
신현우,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야고보서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115-124.
신현우, “야고보서 난해 구절 번역 － 야고보서 2:18과 4:5-6 －”,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68-190.
안창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에 관한 제언 －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04-326.
양재훈, “문맥적 읽기와 성서 번역: ‘탕자들의 비유’(눅 15:11-32)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183-202.
엘링워스, P., “수사의문문의 번역: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이달 역,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155-167.
유은걸,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데살로니가전후서, 베드로후서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97-106.
윤철원, “빌립보서의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인 폴리튜마(πολίτευμα)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31 (2012. 10.), 112-133.
윤철원,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빌립보서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85-96.
이달, “요한계시록 14:6에 나타난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1 (2012. 10.), 134-157.
이달, “요한계시록 6:8에 나오는 ἐν θανάτῳ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181-202.
이두희, “누가복음 18:22의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번역에 대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2012. 10.), 88-111.
이두희,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제안과 예시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7-21.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224-251.
이민규, “『새한글성경』 번역에 대한 평가와 제안: 마태복음 중심으로”, 「“2022년 한국신약학회 제113차 정기학술대회: 성서 번역의 이상과 현실” 자료집」, 65-79.
이복우, “『신약젼셔』(1906년) 요한복음 번역의 그리스어 저본(底本) 사용연구”, 「신학정론」 30:2 (2012), 571-600.
이상일, “내적 재구 방법론을 통한 신약성경 그리스어의 자음 음가 재구”, 「성경원문연구」 42 (2018. 4.), 68-89.
이상일, “신약성경 그리스어 외래어 표기 방식에 대한 제안과 그 적용 －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151-170.
이승현, “고린도전서 11:10의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50 별책 (2022. 8.), 119-129. (2022a로 표기)
이승현, “고린도전서 11:23의 παρεδίδετο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2 (2018. 4.), 45-67.
이승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πίστις 번역에 대한 분석과 제언 －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27-352. (2022b로 표기)
이재현, “바울 서신의 ‘마음’ 번역에 대한 제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의미론과 신학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37-161.
이재현,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 재고찰: 통시적 방법론 평가와 공시적 접근 제안”, 「성경원문연구」 32 (2013. 4.), 159-184.
이재현, “성서 번역에서 접속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78-187.
임성욱, “성경 번역의 문화정치: 『새한글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장애 및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42 (2022), 169-202.
임진수,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요한1서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134-142.
장동수,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의 본문 변화들에 대한 연

구”,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66-287.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연구”,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210-244.
장성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역사적 현재’ 번역에 대한 평가와 제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252-279.
장해경,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수정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88-196.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요람’과 ‘여호람’ 번역에 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96-221.
전혜영, “주기도문의 사동문 구절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88-306.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65-92.
정창욱, “누가복음-사도행전의 φόβος(‘두려움’/‘무서움’)에 대한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5 (2014. 10.), 195-217.
정창욱, “사도행전에 사용된 σέβω와 φοβέω 동사의 분사형 번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10.), 173-192.
정창욱,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 연구 ― 요한1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89-209. (2024a로 표기)
정창욱,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누가복음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31-41. (2024b로 표기)
정창욱, “요한1서 3:6, 9의 죄 문제 재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206-227.
정창욱, “요한1서 4:13의 번역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49 (2021. 10.), 196-213.
정창욱, “주요 요약구절인 사도행전 9:31의 번역”, 「성경원문연구」 44 (2019. 4.), 94-113.
조병수, “『신약젼셔』(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 83-104.
조재천, “상호본문성을 반영하는 성서 번역: 히브리서 12:15하의 우리말 번역과 표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48-265.
조재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원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280-303.
조재형, “『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한 제언들 ― 마태복음 21:29-31의 두 아들 비유

에 관한 번역 —”, 「성경원문연구」 50 별책 (2022. 8.), 112-118.
조지윤, “λέπρα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9 (2021. 10.), 94-121.
조지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고”, 「한국여성신학」 98 (2023), 160-163.
조태연, “메타포가 살게 하라! 『새한글성경』의 비유 번역”, 「신약논단」 29 (2022), 297-338.
조호형, “πᾶσα ἀνθρωπίνη κτίσις에 대한 재고 — 베드로전서 2:13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127-150.
조호형, “갈라디아서 1:6-7에 나타난 ‘다른’에 대한 재고”, 「성경원문연구」 53 (2023. 10.), 161-184.
채영삼,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베드로전서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15-133.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140-160.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162-180.
최갑종,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 로마서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문맥적 접근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41-173.
최갑종, “에베소서 1:8-9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1:8하)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72-188.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Canon&Culture」 8 (2010), 99-132.
최영숙, “καυχᾶσθαι ἐν τινι의 새 번역과 바울의 ‘자랑’ 모티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84-102.
최영숙,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고린도전서 —”,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77-84.
쿱스, R., 『성서 속의 식물들』, 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Robert Koops,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London: UBS, 2012.
프리츠, R., 『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Ray Pritz,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 London: UBS, 2009.

한철흠, “요한계시록 3:10의 한글 번역에 대한 제언 ― Τηρήσω ἐκ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76-195.

현우식, “고대 천문학의 언어로 읽는 마태복음 2:9”,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17-136.

호프, E. R., 『성서 속의 동물들』, 채은하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8; Edward R. Hope,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London: UBS, 2005.

황영자, 『바울이 본 아담과 하와: 고린도전서의 남녀관』, 신학총서, 서울: 헵시바총신여동문, 2018.

황영자, 『바울이 본 아담과 하와: 창세기,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의 남녀관』, 신학총서, 서울: 헵시바총신여동문, 2017.

Somov, A., “‘He Lifted Up His Eyes’: Translating Luke 16:23 in the Context of Cognitive Interpretation”, 「성경원문연구」 35 (2014. 10.), 291-309.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함께 읽는 방안

— 욥기 번역에 나타난 특성들을 바탕으로 —

유선명*

1. 들어가며

금번 발간된 『새한글』은 대한성서공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공인역 성경으로,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이들과 교회학교'를 위해 준비한 21세기 역본이다.[1] 한 사회의 언어는 그 구성원들 간의 복잡미묘한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들려야 할 성경 역본 역시 쉼 없는 수정 작업을 통해 개선, 발전해야만 한다.

『새한글』과 기존 『개역개정』의 유사, 상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2] 필자는 본 연구에서 『새한글』이 단지 젊은이들의 언어 습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smlyu2000@gmail.com.

1)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5), 3.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새한글』 표준 안내서인 이 책에 성서학자이자 성경 번역 전문가인 두 학자의 신약 및 구약 해설과 더불어 국어학자에 의해 세심하게 집필된 "『새한글성경』 간추린 국어 해설"이 포함된 것은 『새한글』이 특정 독자층을 위한 대안적 역본이 아닌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한국교회의 공인역으로 기획되었음을 반증한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특정 세대를 위한 번역의 정당성과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복합적이고 까다로운 이슈들을 고려해야 한다. 대한성서공회의 논의 가운데 '디지털 네이티브'로 묘사되는 다음 세대의 정보 취득과 독서 습관의 특성 문제는 번역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이슈이다. 이들에 대한 분석과 그에 상응하는 '독서 전략'에 관한 소개서로는 아래 책들을 참조하라. J. 아서스, 『말씀을 낭독하라: 커뮤니티 성경 읽기』, 김은정 역 (파주: 국민북스, 2012); 박진우, 김예란, 『디지털 시대의 읽기문화: 쟁점과 전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N. 배런,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종이에서 스크린, 오디오까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읽기 전략』, 전병근 역 (서울: 어크로스, 2021).

2) 「성경원문연구」 51호(2022)에 실린 신약학자 이두희와 국어학자 민현식의 글 및 『새한글』

관을 반영하는 '현대적 번역본'만이 아닌, 원문의 철저한 분석에 근거해 명확성을 추구하는 '정확한 번역본'의 자격이 충분함을 확인한 후,『새한글』을 한국교회의 예전에서 사실상 공인본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개역개정』과 상보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자는 대한성서공회가 주관하는, 21세기를 위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 위원회'에 참여해 그 작업의 일환으로 욥기 본문의 수정 제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본고에서『새한글』의 특징들을 밝히는 과정에서 욥기 본문의 수정 제안들은 매우 유용한 기준점이 되었다. 욥기는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도 본문의 난해함이 유별난 책이다.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은 희귀 단어들(hapax legomenon), 운문이 갖는 특성을 표적 언어에 반영하는 문제, 책 내용 자체의 해석 이슈 등으로 번역자의 역량과 의지를 시험하는 책이다.[3] 따라서 번역본으로서의『새한글』의 특성과 장단점을 시험하기도 좋은 본문이라 판단했다. 이곳에 직간접으로 반영된 '수정 제안'들은 성서공회의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다. 그러나 개정

의 번역 원리와 특징에 관한 상세한 해설은 아래 글들을 참조하라.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51 (2022), 224-251;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성경원문연구」51 (2022), 353-384. 구약에 대해서는 박동현,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wr_id=26과「성경원문연구」56호 별책(2025. 5. 발간 예정)을 참조하라. 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자료는 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자료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에 공개되어 있다. 신약에서 선별된 본문들을『새한글』과 타 역본들을 비교한 연구로는「성경원문연구」55호 별책(2024)이 유용하다.「성경원문연구」50호 별책(2022)은 21세기를 위한『개역개정』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 20편을 담고 있으며,『개역개정』재개정작업에 참여한 학자들도 집필에 참여하였다.

3) 번역을 어렵게 하는 욥기 본문의 난해함은 성서학자와 성경번역가들에게는 친숙하지만, 낭독을 비롯한 공적 사용을 염두에 둔 공인역본들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욥기의 학문적 연구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소개글과 일정 수준 이상의 학문성을 갖춘 주석류가 큰 도움이 된다. 무수한 욥기 주석들 가운데 해석의 명료함과 균형 감각으로는 T. 롱맨 3세,『욥기주석』, 임요한 역 (서울: CLC, 2017); 연구조사의 방대함과 논의의 포괄성으로는 D. J. A. 클린스,『욥기 상 (1~20장) - WBC 성경주석 17』,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6); D. J. A. 클린스,『욥기 중 (21~37장) - WBC 성경주석 18』,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9); D. J. A. 클린스,『욥기 하 (38~42장) - WBC 성경주석 18B』,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14); 실천적 적용에 유의한 강해서로는 C. 애쉬,『욥기: 십자가의 지혜』, 전의우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14)이 유익하다. 욥기 연구사 개관으로는 하경택, "욥과 욥기의 문제: 욥기의 연구사에 관한 소고",「한국기독교신학논총」31 (2004), 47-76; 하경택, "욥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구약논단」21:4 (2015), 264-301; 권지성,『특강 욥기』(서울: IVP, 2019); M. 래리모어,『욥기와 만나다』, 강성윤 역 (서울: 비아, 2021)을 고려할 만하다.

작업의 성격상 이들 제안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차세대 본문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이 데이터가 21세기를 위한 한국어 성경 번역의 방법론과 결과물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새한글』의 최종 결과물은 필자와 다른 연구자들이 『개역개정』 본문의 개선을 위해 제시한 방안들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문체나 어휘 선택을 통해 현대성을 강제하는 대신 원문을 잘 반영한 직역을 추구하면서도 유려하고 가독성 높은 역본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2. 『새한글』과 『개역개정』을 함께 읽는 방안

구체적인 본문을 들어 『새한글』과 『개역개정』을 함께 읽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2.1. 욥기 1:1상반

אִישׁ הָיָה בְּאֶרֶץ־עוּץ אִיּוֹב שְׁמוֹ

『개역개정』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한글』	한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ESV	There was a man in the land of Uz whose name was Job,
NIV	In the land of Uz there lived a man whose name was Job.

욥기를 여는 이 첫 문장은 번역에 있어서 근원 언어와 표적 언어 간의 어순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한 시금석을 제공한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쉬(**אִישׁ**)'(한 사람)를 초입에 등장시키는 다소 이례적인 어순을 채택하고 있다. '이쉬 하야 브에레츠 우츠 이욥 쉬모(**אִישׁ הָיָה בְּאֶרֶץ־עוּץ אִיּוֹב שְׁמוֹ**)'(한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에. 욥은 그의 이름). VSO(동사-주어-목적어) 어순을 표준으로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 문장은 '한 사람'을 두드러져 보이게 한다. 히브리어의 VSO 어순은 표적 언어인 한국어의 SOV(주어-목적어-동사) 어순 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새한글』 본문은 고의적으로 히브리어 어순을 따라 의미 요소들을 배치함으로써 다소 생경한 한국어 문장을 제시한다. "한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히브리어 원문과의 어순 일치 면에서 본다면 이 문장은 두 영문역본(ESV, NIV)보다

원어 문장에 더 근접하고 있다. 이처럼 원문의 요소들이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 그 의미를 표적 언어(한국어)에 구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신선한 접근법이다.

욥기 1:1에서 이 어순의 문제는 성경 묵상과 설교를 위한 석의적 준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히브리어 원문과 『새한글』 번역에 따르면 이 책은 신정론이나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통치 같은 거창한 주제들을 거론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첫 문장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주제들에 의해 욥기를 분석하는 독법은 자신의 세계관과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질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은 한 사람이 겪어가는 일들을 마주하는 방식의 독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문의 '의도'를 살려 번역하다 보면 그 결과물이 표적 언어 구조상 어색할 수 있다. 성서공회가 발간한 해설서에 따르면 『새한글』이 도치문을 다수 채택한 것은 단순히 문체상의 결정이 아닌, 성경 원문의 어순과 그 어순을 통해 전달되는 효과를 한국어로 충실하게 옮기기 위해서이다.[4] 물론 이러한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새한글』 독자들이 내리게 되겠지만, 욥기 1:1을 비롯한 수많은 구절에서 원문의 구조를 잘 반영하면서도 독자의 관심을 끄는 신선한 독법을 제시한 점에서 『새한글』의 접근이 옳았다고 판단된다.

2.2. 욥기 1:3하반

וַיְהִי הָאִישׁ הַהוּא גָּדוֹל מִכֹּל־בְּנֵי־קֶדֶם

『개역개정』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새한글』	이 사람은 동쪽의 어떤 사람보다도 대단한 인물이었다.
ESV	so that this man was the greatest of all the people of the east.
NIV	He was the greatest man among all the people of the East.

원문의 의도는 욥의 인품보다는 그의 부와 지위를 표현하고 있어 '가장 큰 자' 혹은 '가장 유력한 자'가 적당한 번역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유력한 자더라.'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 부분을 『새한글』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번역했다. 『새한글』의 '대단한 인물'은 다소 의역

4)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 해설집 – 마가복음 번역 해설, 시편 1-3장 번역 해설, 국어학적 의의 –』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69-70.

에 가깝지만,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좋은 번역이다. 욥이 일차적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춘 인물이라는 사실은 욥기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욥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에게 회의적으로 도전한 사탄의 논점이 바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당신께서 잘 챙겨주시니 그렇지요.'라는 말에 요약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도전에 응하시면서 당신은 욥을 아직도 신뢰하고 계심을 보여 주신 것이 향후 욥기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의 '훌륭한'이 원문이 의도하지 않은 도덕적 수월성을 암시하고 있는 데 반해, 『새한글』은 '대단한'을 채택해 욥의 성취를 언급함으로써 원문의 핵심에 정확히 도달하고 있다. 이 절의 경우 『개역개정』의 '훌륭한 자'가 오역이라 볼 수는 없다. 욥은 실제로 신앙과 인격, 도덕성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욥기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욥이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새한글』에서는 '대단하다'라는 번역어를 선택하여 욥이 누렸던 재산의 규모와 권세를 물리적으로 상상 가능하게끔 하였는데 이러한 번역은 '훌륭하다'라는 번역어가 인격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욥의 이야기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근원적 배경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역개정』과 『새한글』을 함께 읽는 독자는 한 단어에 다 담기 어려운 욥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좀 더 깊이 음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 욥기 6:15하반

כַּאֲפִיק נְחָלִים יַעֲבֹרוּ

『개역개정』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누나
『새한글』	마른시내 바닥 물처럼 지나쳐 가 버렸다네.
ESV	as torrential streams that pass away,
NIV	as the streams that overflow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우기에는 콸콸 흐르다가 건기에는 자취만 남기고 사라지는 건조지역 와디(wadi)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새한글』이 우리말 '개울'이 담기 어려운 특성을 '마른시내'로 풀어낸 것은 탁월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지나가다'에 비해 '지나쳐 가 버렸다네' 역시 이 시점에서 욥의 정서

즉 친구들의 보호와 응원이 이미 사라져 자취도 남지 않았다는 탄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 이 절의 경우『개역개정』의 번역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새한글』이 오역의 교정이 아닌 순수한 의미에서 개선과 발전을 이룬 성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른시내 바닥 물처럼 지나쳐 가 버렸다네."는 어휘의 선택이나 어조의 조율에서 특정한 세대를 위해 다른 세대를 건너뛰는 방식의 편향성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 절은 개인의 성경공부나 예배 봉독을 가리지 않고『개역개정』과『새한글』을 병행해 사용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좋은 본보기이다.

2.4. 욥기 8:13하반

וְתִקְוַת חָנֵף תֹּאבֵד

『개역개정』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새한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희망은 사라져 버릴 것이네.
ESV	the hope of the godless shall perish.
NIV	so perishes the hope of the godless.

현시대 한국어 용례상으로『개역개정』본문이 원문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저속한 자'는 도덕성이나 문화적 취향에 대한 판단이 내포된 의미로 들리기 쉬운 데 반해, 본문은 매우 명확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 즉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네프(חָנֵף)'는 본질상 저속한 인격이 아니라 신앙심(경건)의 부재를 가리키므로 본문의 직역은 '불경건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정도가 된다. 참고로 영역은 godless, impious를 많이 쓰고 한국어 역본은 '경건치 못함'(『현대인의성경』), '믿음을 저버림'(『새번역』),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는 자'(『공동』) 등으로 처리했다.『새한글』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개역개정』의 '저속한 자'에 비해 의지적 거리두기와 불순종의 행태를 잘 묘사한 탁월한 번역이다. 혹시라도『개역개정』본문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저속함'에 대한 심오하고 유려한 설교를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새한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읽었다면『개역개정』에 기초한 설교라 하더라도 큰 오류를 피할 수 있다.

2.5. 욥기 9:2상반

אָמְנָם יָדַעְתִּי כִי־כֵן

『개역개정』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새한글』 “그 정도는 나도 잘 안다네.
ESV “Truly I know that it is so:
NIV “Indeed, I know that this is true.

친구들의 장광설에 ‘그 정도는 나도 당연히 알지만…’이라 답하는 욥의 태도를 반영한 표현이므로 ‘진실로’보다 ‘물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물론 나도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어감을 더 살리는 것일 수 있다. 『새한글』은 ‘물론 나도’의 정서를 ‘그 정도는 나도’로 담아 완곡하게 옮겼다.

2.6. 욥기 11:6상반

וְיַגֶּד־לְךָ תַּעֲלֻמוֹת חָכְמָה

『개역개정』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새한글』 그대에게 지혜의 숨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ESV and that he would tell you the secrets of wisdom!
NIV and disclose to you the secrets of wisdom,

『개역개정』 욥기 11:6, 7에서 ‘오묘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각각 ‘타알루마(תַּעֲלֻמָה)’와 ‘헤케르(חֵקֶר)’이다. 7절의 ‘오묘함’은 적절한 번역이어서 앞의 6절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6절의 ‘타알루마’는 ‘오묘함’(the deep)보다는 ‘감춰진 것’(the hidden)을 가리킨다. ‘지혜의 비밀들을 네게 보이시기를…’로 번역할 수도 있는 이 부분을 『새한글』은 좀 더 과감하게 ‘숨은 이야기’로 풀어 옮기고 있다.

2.7. 욥기 11:12

וְאִישׁ נָבוּב יִלָּבֵב וְעַיִר פֶּרֶא אָדָם יִוָּלֵד

『개역개정』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새한글』	머리 텅 빈 사람이 정신 차릴 수 있겠는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
ESV	But a stupid man will get understanding when a wild donkey's colt is born a man!
NIV	But the witless can no more become wise than a wild donkey's colt can be born human.

전체 문장 구조와 비교의 포인트를 살리면 '허망한 사람이 지각을 얻는다면 들나귀가 사람으로 태어나리라'로 옮길 수 있고, 실제 ESV와 NIV를 포함한 여러 역본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다. 『새한글』은 두 절이 비교되는 격언('마샬[מָשָׁל]' = 비교하다) 형태로 푸는 대신, 두 절을 분리해 각각을 효과적인 수사의문문으로 처리했다. 『새한글』이 두 절을 비교하는 히브리 잠언의 형태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잠언의 외형적 특성보다 '간략하고 재치있는 언사'라는 잠언의 기능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2.8. 욥기 17:16

בַּדֵּי שְׁאֹל תֵּרַדְנָה אִם־יַחַד עַל־עָפָר נָחַת ס

『개역개정』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새한글』	스올(죽은 사람들의 나라) 문턱까지 희망이 같이 내려가겠는가? 우리가 함께 흙먼지 위로 가라앉겠는가?"
ESV	Will it go down to the bars of Sheol? Shall we descend together into the dust?"
NIV	Will it go down to the gates of death? Will we descend together into the dust?"

어구들과 표상(image) 사용의 복합적 이슈가 있어 번역이 다소 어렵다. '희망'은 여성 단수 명사인데 '내려가다'는 여성 복수형('테라드나[תֵּרַדְנָה]')과 공성복수형('나하트[נָחַת]')이 병용된다는 수적 불일치 문제('임 야하드[אִם־יַחַד]')를 고려해 1인칭의 의미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스올의 입구까지 동행하겠으며, 흙먼지 위에 함께 내려앉겠느냐?'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새한글』은 동일한 해석을 실명사 '희망'을 살려 좀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2.9. 욥기 19:17하반

וְחַנֹּתִי לִבְנֵי בִטְנִי

『개역개정』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새한글』 친형제자매들에게조차 나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네.
ESV and I am a stench to the children of my own mother.
NIV I am loathsome to my own family.

*HALOT*에서는 '하난(חָנַן) II'(be loathsome, be repulsive)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는 거리가 있고, 혐오나 멸시에 가까운 태도를 표현한다고 말한다. '내 허리의 자식'은 오해를 살 만한 번역으로 '내 모태의 자식들'이 보다 직설적인 번역이 된다. 이것은 '내 모태'가 '나를 낳은 모태'를 뜻한다면 욥은 자신의 친형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일부 해석자들처럼 '내 배'가 '내 아내의 아기집'이라면 욥을 혐오하는 이들은 그의 자식들이다. 물론 이 경우 욥의 친자식들이 이미 모두 사망했다는 내러티브와 충돌을 일으킨다. 어쨌든 '하난'의 번역으로 '가련히 여기다'를 택한 『개역개정』은 원문의 의미를 상당히 왜곡했고, 『새한글』은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네'라는 완곡어법을 구사하면서 혐오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

2.10. 욥기 20:3하반

וְרוּחַ מִבִּינָתִי יַעֲנֵנִי

『개역개정』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새한글』 내게 깨달음을 주는 영이 내게 대답해 준다네.
ESV and out of my understanding a spirit answers me.
NIV and my understanding inspires me to reply.

'루아흐 미비나티(רוּחַ מִבִּינָתִי)'(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영)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문맥상 소발이 자신의 지력 혹은 지혜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개역개정』의 번역은 매우 미흡한 번역이다. 소발은 자신을 각성시키는 혹은 깨닫게 하는 외부의 존재를 상정하고 그(분)의 영이 하시는 일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나를 깨닫게 하는 이의 영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정도의 번역이 무난한 해법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ESV와 NIV의 해석은 소발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 『새한글』의 “내게 깨달음을 주는 영이 내게 대답해 준다네.”는 원문의 의미를 유려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본문은 『개역개정』과 『새한글』을 병행해 읽을 때 얻는 유익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개역개정』만으로 묵상하고 설교할 경우 형성하게 되는 심상과 신학적 메시지는 『새한글』이 열어 주는 이해의 영역과 판이하게 다르다.

2.11. 욥기 22:16하반

נָהָר יוּצַק יְסוֹדָם

『개역개정』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새한글』 그들의 터가 강물에 휩쓸려 가 버린다네.
ESV their foundation was washed away.
NIV their foundations washed away by a flood.

함몰은 내려앉은 상태를 연상시키는데, 원문은 강물이 흘렀다는 사실만 있고 결과는 서술되지 않았다. 원어의 함축성을 살려 ‘그들의 터에 강물이 흘러넘쳤느니라.’로 옮기면 좋을 것이다. 『새한글』은 문법상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었다. 원문 ‘나하르 유차크 예소담(נָהָר יוּצַק יְסוֹדָם)’은 양자를 다 허용할 수 있는 모호성을 보이고 있어서 『새한글』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판단된다.

2.12. 욥기 26:7상반

נֹטֶה צָפוֹן עַל־תֹּהוּ

『개역개정』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새한글』 북쪽 하늘을 빈 곳에 펴시는 분,
ESV 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the void
NIV He spreads out the northern skies over empty space;

‘차폰(צָפוֹן)’은 단순히 북쪽 방향 혹은 북쪽 지역이 아니라 허공에 펼치는 하나의 대상이다. 고대 근동 특히 우가릿 신화에서 ‘차폰’은 신들이 거주하는 북방의 언덕 혹은 산이다. 다수의 역본이 ‘하늘:땅, 펴다:매달다’의 평행구조와 신화적 배경을 고려해 ‘북쪽 하늘’(nothern sky)로 번역한다. 『새한글』의 ‘북쪽 하늘을 빈 곳에 펴시는 분’은 얼핏 난해한 텍스트의 자유로운

의역처럼 보이지만 학문적 지지가 탄탄한 충실한 번역이다. 『개역개정』의 '허공' 대신 '빈 곳'을 취한 것은 세대를 염두에 둔 선택일 수 있지만, 한국어 어법상 보편적 호소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귀에 어색한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를 포기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보여 준다.

2.13. 욥기 29:1

וַיֹּסֶף אִיּוֹב שְׂאֵת מְשָׁלוֹ וַיֹּאמַר

『개역개정』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새한글』 욥이 자신의 말을 이어 갔다.
ESV And Job again took up his discourse, and said:
NIV Job continued his discourse:

'마샬(מָשָׁל)'(비유)의 의미를 존중해 '나싸 마샬(נָשָׂא מָשָׁל)'을 '비유로 말하다', '비유를 들어 말하다'와 같은 방식으로 옮길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이 표현은 새로운 혹은 정지 후 재개되는 담론의 시작을 보여 주는 표지(marker)로서, 풍자나 비유라는 장르적 개념에 묶여 있지 않다. 새로운 담화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욥이 다시 말문을 열어 말하되…' 정도의 번역이 무난한데, 『새한글』은 『개역개정』이 놓친 부분인 서사의 연속을 표기하는 바익톨 형 '바요셉'까지 반영해 "욥이 자신의 말을 이어 갔다."로 부드러우면서도 원의를 잘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개역개정』만을 읽을 때 이 구절 이후 어떤 것이 풍자인지 의아해할 독자는 『새한글』을 함께 읽는다면 이곳이 앞서 있던 욥의 말을 이어 가는 지점인 것을 금세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14. 욥기 29:4하반

בְּסוֹד אֱלוֹהַּ עֲלֵי אָהֳלִי

『개역개정』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새한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사귐이 나의 천막에 있었네.
ESV when the friendship of God was upon my tent,
NIV when God's intimate friendship blessed my house,

'소드 엘로아흐(סוֹד אֱלוֹהַּ)'는 하나님과의 근접성을 가리키므로 축자적

번역으로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정도를 시도할 수 있다. 『새한글』이 원문의 뜻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유려함을 보여 주는 성공적 케이스이다. 『개역개정』을 보며 장막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의아해할 독자는 문맥을 염두에 두고 『새한글』과 비교함으로써 욥의 회상과 그리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욥도 잃어버린 재산과 자식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그가 반복해서 호소하는 '상실의 아픔'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소드 엘로아흐'가 요약해 보여 준다.

2.15. 욥기 31:13하반

אִם־אָמְאַס מִשְׁפַּט

『개역개정』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새한글』 내가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게 막았는가?
ESV when they brought a complaint against me,
NIV when they had a grievance against me,

'마아스(מָאַס)'는 무시 혹은 경멸의 의미이므로 본 절은 '내가 그의 권리를 무시했다면'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율법이 보장한 대로 종이 주인에게 근무조건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경우 주인은 그것을 듣고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개역개정』의 '권리를 저버리다'는 욥이 가상적으로 말하는 주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새한글』은 여기서 직역 지향이라는 전체적 방향과 차이를 보이는 의역을 채택했지만 종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풀어냈다.

2.16. 욥기 36:3하반

וְלְפֹעֲלִי אֶתֵּן־צֶדֶק

『개역개정』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새한글』 저를 만드신 분이 공의롭다 밝히겠습니다.
ESV and ascribe righteousness to my Maker.
NIV I will ascribe justice to my Maker.

『개역개정』이 '에텐 체덱(אֶתֵּן־צֶדֶק)'을 '내가 의로움을 돌려보내리라.'라는 의미로 번역한 것은 자구적으로 '의로움을 주다'에 해당하는 관용구의 모호함을 '주다'에서 '돌려주다'로 확장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나탄(נָתַן)'의 용례에는 '영광을 돌리다'와 마찬가지로 'ascribe, give credit, acknowledge'의 의미가 포함된다(NIV, ESV). 따라서 이곳에서는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친숙한 표현 '영광을 돌리다'와 유사하게 '의를 돌리리라'로 옮길 수 있겠다. 『새한글』은 '밝히다'를 사용해 단어 수준에서는 '돌리다'와 불일치하지만, 문맥상으로 사실상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원어를 모르는 독자라도 이 절에서 『개역개정』과 『새한글』을 병행해 읽는다면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과 제언

여러 면에서 『새한글』은 현행 『개역개정』의 21세기판이 가야 할 곳에 이미 도달해 있다. 그간 현대어 역본은 의미 전달을 위해 직역보다 의역을 지향하고 문어체와 대비되는 구어체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신학적 의미가 강하게 착색된 어휘들을 무리하게 일상 언어로 교체함으로써 과도한 이질감을 자초한 성향이 있었다. 그에 반해 『새한글』은 동시대 한국어 사용자의 어법에 충실하되 원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직역을 지향한 결과, 기성세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젊은 세대,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의미 전달에 크게 강점을 보인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새한글』이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서 성공하는 지점은, 한국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기성세대의 귀에 생경함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일 수밖에 없다. 원어 본문의 어감을 살리기 위한 도치 어순이 그 좋은 예이다. 디지털 매체의 환경에 적응한 다음 세대는 짧은 문장을 선호하고 느낌 전달에 필요하다면 기존 문법을 벗어나는 글에 관대하며, 외국어 특히 영어 구조에 익숙한 결과 도치 어순에 그다지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길이가 길더라도 어순과 구조가 정돈된 문장을 선호한다. 특정 독자층에 맞추어진 의도적 선택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새한글』은 젊은이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으로서 훌륭하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성서공회의 의도대로 『새한글』이 모두를 위한 공인역을 지향한다면, 다시 말해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기성세대의 성도들도 편안하고

애정을 가질 성경이 되기를 원한다면, 완성된 성경 자체만이 아니라 성경의 사용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요구된다. 아래에 모든 세대가『새한글』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3.1. 『개역개정』과의 병행 사용을 위한 의도적 노력

사실상 한국교회의 공적 본문이 된『개역개정』은 성경의 독자들이 세대교체를 거듭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독자를 위한 전체적인 개정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되어 21세기판이 출간되면 다음 세대가『개역개정』성경에 대해 느끼는 진입 장벽 중 상당 부분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개역개정』의 재개정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최소 개정' 원칙을 따르고 있기에, 원문의 왜곡이 염려되지 않는 한 기존『개역개정』의 어휘와 리듬, 스타일을 쉬이 바꾸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개정 작업에서 본문의 어휘나 표현을 교체할 경우 가능한 어순이나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것을 피하고, 대체 어휘의 경우도 가능하면 기존 어휘와 음절 수가 일치하는 것을 선호하기까지 한다.

즉『새한글』이 다음 세대에게 친숙해지는 만큼 기존 세대에게는 생경함이 더해지는 필연적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필자는『새한글』출간의 주체인 대한성서공회는 물론, 핵심 사용자이자 오피니언 리더인 목회자들이 두 성경 간에 양자택일 혹은 양쪽을 오가며 읽는 방식보다 두 성경을 늘 의식하며 함께 읽을 수 있는 대안과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한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개인 성경공부와 설교 준비에 임할 때 의도적으로 두 역본을 다, 고르게 사용한다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격하며 대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한 역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건조한 부분을 다른 역본은 더 충실하고 감성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공예배시 성경 봉독을 이중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성도들이 친숙한『개역개정』으로 읽고 들은 말씀을『새한글』로 다시 읽고 듣는다면, 그 차이점들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풍성함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새한글』을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드릴 때 쓴다는 게토(ghetto) 의식이 굳어진다면,『새한글』은 진술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공예배 중 성경 봉독을 두 본문 다 읽는 것으로 정례화할 경우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할 것이다. 사실 공예배에서 성경 봉독 순

서의 시간적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다. 설교와 찬양, 찬양팀을 비롯한 극장적 요소들이 도입된 예배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이에게 잘 전달되도록 두 가지 본문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예전적 방식으로 실행된다면 말씀 선포의 본래 의미가 더 충실하게 구현될 것이다.

3.2. 대조 성경(parallel Bible) 보급

이 같은 지향성을 현실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조 성경의 출간과 보급이다. 한 페이지씩 마주 보든, 한 페이지 안에 두 칼럼의 형식을 취하든, 독자가 두 본문을 상시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구현할 경우 당연히 두께와 무게의 증가, 그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의 현실적 요소가 고려되어야겠지만, 기술적 연구와 설득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극복이 가능한 문제이다. 더구나 이러한 포맷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한다면 최소한의 비용 상승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플랫폼을 따르지 않더라도 PC와 스마트폰에서 읽히는 방식으로만 제작된다면 보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성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시적으로 두 성경의 본문들을 평행 배치한 형태로 본문을 접하거나, 또는 앱 구동이 가능하면 지속적 홍보와 공적 사용에서 매우 유익하리라 예상된다. 단순히 종이 성경의 복제판이 아니라 디지털 텍스트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한쪽 역본의 어느 지점에서든 다른 역본의 해당 본문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경 내 어떤 본문을 읽든 두 역본을 자유롭게 오가고 평행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텍스트 접근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성경 읽기가 일상화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행위가 자동적으로 두 본문을 함께 고려하고 그 개성을 인지하면서 읽는 독법을 실행하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법은 당연히 성경을 내재화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기한 점들이 고려되어 '『개역개정』-『새한글』' 두 본문 성경이 보급되고 읽히면 오는 세대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쉽고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받은 세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권지성,『특강 욥기』, 서울: IVP, 2019.

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자료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 (2025. 2. 28.).

대한성서공회 편,「성경원문연구」50 별책 (2022).

대한성서공회 편,「성경원문연구」51 (2022).

대한성서공회 편,「성경원문연구」55 별책 (2024).

대한성서공회 편,「성경원문연구」56 별책 (2025. 5. 발간 예정).

래리모어, M.,『욥기와 만나다』, 강성윤 역, 서울: 비아, 2021.

롱맨 3세, T.,『욥기주석』, 임요한 역, 서울: CLC, 2017.

박동현,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wr_id=26 (2025. 2. 28.).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새한글성경』간추린 번역 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5.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번역 해설집 ― 마가복음 번역 해설, 시편 1-3장 번역 해설, 국어학적 의의 ―』,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박진우, 김예란,『디지털 시대의 읽기문화: 쟁점과 전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배런, N.,『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종이에서 스크린, 오디오까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읽기 전략』, 서울: 어크로스, 2021.

아서스, J.,『말씀을 낭독하라: 커뮤니티 성경 읽기』, 김은정 역, 파주: 국민북스, 2012.

애쉬, C.,『욥기: 십자가의 지혜』, 전의우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14.

클린스, D. J. A.,『욥기 상 (1~20장) - WBC 성경주석 17』,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6.

클린스, D. J. A.,『욥기 중 (21~37장) - WBC 성경주석 18』,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9.

클린스, D. J. A.,『욥기 하 (38~42장) - WBC 성경주석 18B』,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14.

하경택, “욥과 욥기의 문제: 욥기의 연구사에 관한 소고”,「한국기독교신학논총」31 (2004), 47-76.

하경택, “욥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구약논단」21:4 (2015), 264-301.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활용 방안

이승문*

1.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 Luther)도 그의 저서에서 명확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신학자들이다-모든 크리스천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자를 의미한다. 모든 크리스천은 개별적으로도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1]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성경’[2] 읽기와 듣기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3] 초기 기독교회의 탄

*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명지전문대학 교목실장/교수,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감사, 전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한국대학선교학회 회장 및 한국신약학회 총무. leesm@mjc.ac.kr.

1) M. Luther, “Sermon Psalm 5”,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Böhlau, 1883), 9-11; B. Witherington III, *The Biblical Theology: The Convergence of the Can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19), 1.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G. Goldsworthy, *Christ-Centered Biblical Theology: Hermeneut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2), 45.

2) 고대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거나 쓸 수 없었다. 대략적인 추정으로는 도시들의 경우, 높게 잡았을 때 약 5%의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었다. S. Brown and F. J. Moloney, SDB,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Co., 2019), 15.

3) 최근 들어 한국교회 목회 사역에서도 평신도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중소교회의 ‘부교역자 기피 현상’이라는 현실적 문제 등이 이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신상목, “포텐셜 레이어티”, 「활천」 855 (2025.2.), 20-25, 21. 이러한 상황과 아울러 잠재력을 가진 평신도 훈련을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긴요하다.

생 때부터 성경은 예배 생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는 성경이 성도의 사상 형성뿐 아니라 찬양과 기도에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을 보여준다.[4]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의 중심에 시편을 사용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대부분(아니면 적어도 여러) 교단에서 성찬식 때 복음서를 읽는다는 사실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또 그분의 백성들이 응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암묵적이지만 강력한 믿음이 교회 바탕에 깔려 있음을 증명한다.[5]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그리스도인은 성경 없이 지낼 수 없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기독교인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읽는 방식이 혼잡했던 때가 있다. 그로 인하여 기독교는 실제로 성경의 입을 막아 버렸다.[7]

'인공지능 시대'[8]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대와 세대에 적합한 성경 읽기와 듣기가 가능하도록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9]하여 보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이러한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성경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교회 개신교 초기 시대의 세대들이 가졌던 관심과 성경 활용의 사례와 같이 다음 세대 성경 활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N. T. 라이트,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박장훈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17.

5) Ibid.

6) N. T. 라이트,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 김재영 역 (서울: IVP, 2007), 264.

7) Ibid., 265.

8)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을 계속 지켜보고 궁금해해야 하며, 더 많은 가능성을 끊임없이 고찰해야 한다." 장동선,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파주: 김영사, 2022), 162.

9) "시대가 변함에 따라 모든 언어는 변화한다. 이러한 언어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거나 기존 성경을 개정해 주지 않는다면, 성경은 더 이상 이해될 수 없는 책이 되고 말 것이다. 맞춤법도 제정되지 않았던 1911년에 나온 우리말 최초의 완역 성경인 『셩경젼셔』(『구역』)를 오늘의 독자들에게 주고 읽어 보게 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도 읽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그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셩경젼셔』(1911)의 롬 1:1과 1:10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죵 바울은 부르심을 밧드러 ᄉᆞ도가 되어 하ᄂᆞ님의 복음을 젼ᄒᆞ기 위ᄒᆞ야 ᄐᆡᆨᄒᆞᆷ을 닙었스니"(롬 1:1). "구ᄒᆞ기는 하ᄂᆞ님의 ᄯᅳᆺ대로 됴흔 길을 엇어 ᄆᆞᆺᄎᆞᆷ내 너희에게 나아가려ᄒᆞ노라"(롬 1:10)."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10.), 224-251.

2. 한국교회 초기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

2.1. 한국교회의 초기 세대에 대한 이해 - 근대 개신교 선교 시대

한국은 14세기에 구텐베르크보다 80년 앞서 이미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을 지닌 출판 강국이었다.[10] 하지만 18세기 이후의 출판 환경은 대단히 열악했다. 상업 출판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던 탓이다. 그럴수록 소설의 소비에 대한 욕망과 갈증은 커져만 갔다.[11]

근대 개신교 선교 시대는 성경 번역과 한글 기독교 문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18세기까지 성경은 74개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19세기에 446개 언어가 추가되었다. 아시아에서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된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 버마, 일본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이다.[12] 1887년에 존 로스가 번역한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가 만주의 선양에서 출판되었고, 1900년에 성서번역자회의 한글『신약젼셔』임시본이 서울에서 출판되었으며, 1911년에는 번역자회의 첫 공인역인『구역』이 출판되었다.[13]

한국이 한문 문화권에 속했기 때문에 교육받은 한국인 기독교인은 번역 없이 한문으로 된 신약전서와 성경전서, 찬송가, 서적, 소책자 등을 바로 읽고 사용할 수 있었다.[14] 비록 1904년에 공인역 한글 신약전서가 출판되었고 1911년에는 성경전서가 출판되었지만, 지식층은 한문 신약전서와 성경전서를 사용했다.[15] 반면, 1910년까지 한국의 일반 신자들은 구약성경 없이 한글 신약전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약 기독교인'으로 살았다.[16]

초기 한국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도 출판이 시스템으로 받쳐 주지 못하다 보니, 당시 소설은 기존의 소설책을 빌려 그대로 베껴 쓰는 필사본의 형태로 소비되었다. 그 긴 소설책을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베껴 쓰자면 한 권을 필사하는 데도 여러 날이 소요되었다. 마침내 긴 필사가

10) 정민,『고전, 발견의 기쁨』(파주: 태학사, 2022), 293.
11) Ibid.
12) 옥성득,『한국 기독교 형성사: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517.
13) Ibid.
14) Ibid., 517-518.
15) Ibid., 518.
16) Ibid., 543.

마무리되어 책으로 묶게 되었을 때 필사자의 감회가 왜 없었겠는가?[17] 필사본 고전소설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소설을 베껴 쓴 사람들이 마지막 부분의 필사를 마친 뒤 스스로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 소감을 적어 둔 필사기들이 남아 있다. 여기에 담긴 사연이 또한 진진하다.[18]

당시 소설책은 여자가 시집갈 때 마련하는 혼수품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품목이었다. 소설책을 얼마나 많이 들고 가느냐는 시집에서 받게 될 그녀의 대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19] 당시 소설은 읽기보다는 듣기를 통해 향유되었다. 전문적인 이야기꾼은 일인 다역으로 소설 속의 상황을 예전 무성영화 시절의 변사처럼 실감 나게 설명해, 청중들을 이야기 속으로 빨아들였다.[20]

남녀의 구별이 엄격했던 시대여서 여성들은 바깥출입마저도 자유롭지 않았기에, 그녀들은 여자 이야기꾼을 집으로 데려와 온 집안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21]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으면 글을 잘 읽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대여점에서 빌려 온 소설책을 가족들에게 읽어 주는 방식으로 소설을 향유했다.[22] 요컨대 그녀들은 새로운 소설이 나왔다는 풍문을 듣기만 하면 너무도 궁금해서 패물을 팔아서라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일종의 소설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23] 국왕 영조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말을 대신들과의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당시 조선은 가히 소설 공화국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24] 이러한 상황에 초기 한국교회는 성경을 번역하고 판매하는 권서인들을 통하여 전국 곳곳에 성경을 보급하고 전도부인을 전도자요 성경공부 교사로 양성하여 파송함으로 집안의 여성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게 하였다.[25] 이러한 성경 활용은 당시에 가장 적합한 복음 전도의

---

17) 정민, 『고전, 발견의 기쁨』, 293. 고전은 모범이 될 만한 작품을 말한다. 고전은 당대를 넘어 현대에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는, 시대를 초월한 작품이다. 그래서 '세계 명작' 또는 '정전'이라고 불린다. 정전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전의 선정 기준과 정전의 필요성 그리고 정전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활발하다. 정인모, "서문," 『고전의 힘』 (서울: 꿈결, 2013), 4.

18) Ibid., 293-294.

19) Ibid., 294.

20) Ibid., 297.

21) Ibid., 297-298.

22) Ibid., 298.

23) Ibid., 300.

24) Ibid.

25) 릴리아스 H. 언더우드 여사가 기록한 저서에 따르면, 언더우드 여사 일행은 우선적으로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오늘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놓인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 적합한 성경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 - 알파세대, MZ세대

최근 들어 '다음 세대'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세대는 '알파세대', 'MZ세대' 등이다. 먼저 '알파세대'라는 용어를 맨 처음 제안한 사람은 맥크린들(M. McCrindle)이었다. 이 이름은 새로움을 표시하고, 옛것으로 돌아가거나 머물지 않는다. 알파세대는 21세기의 두 번째 세대로 간주된다. 2010년도부터 그 이후 세대이다. 알파세대는 '앱'(app)이라는 단어가 그해의 단어로 선포되던 동일한 해에 출생했다.[26] 이들은 어떤 이전의 세대들보다도 테크놀로지, 정보, 외적 환경에 훨씬 많이 노출되었다.[27] 알파세대는 이전 세대와 매우 다르다. 특별히 그들의 실제와 모든 삶의 부분이 테크놀로지로 지배되고 있다.[28] 알파세대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은 테크놀로지에 크게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그들의 학습 효율성과 경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29]

20대 중/후반의 연령으로 구성되는 대학원 교실은 1990년대에 태어난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을 M세대, 밀레니엄세대라고 일컫는다.[30] 한편

가난한 농부들과 나이 든 여자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다. 그에 따르면, "이 나라의 오래 정착된 종교 대신에 1,4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고자 했다. 우리는 가난한 농부들과 나이 든 여자들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성공의 요소인 승리의 확실성은 신앙의 신성함에 있었으며, 우리를 보낸 전능한 하느님에게 있었다. 이러한 생각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L. H. 언더우드,『상투의 나라』, 신복룡, 최수근 역주 (서울: 집문당, 1999), 33.

26) R. Ziatdinov and J. Cilliers, "Generation Alpha: Understanding the Next Cohort of University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10:3 (2021), 783-789, 784.; A. K. Jha,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OSF Preprints, 2020), 2-3, doi: 10.31219/osf.io/d2e8g (2025. 2.14.)에서 재인용.

27) M. McCrindle and A. Fell,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McCrindle Research, 2020), 8,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2803353_UNDERSTANDING_GENERATION_ALPHA (2025.2.14.).

28) Ibid., 784. 알파세대에 대한 교육 전략과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A. Höfrová, V. Balidemaj, and M. A. Small,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education for Generation Alpha", *Discover Education* 3:125 (2024), https://doi.org/10.1007/s44217-024-00218-3 (2025.2.14.).

29) Ibid., 788.

30) 김인수, "기독교 교양과 영성 — 인공지능 시대에 참-인간 형성을 위한 대안",「한국기독교신학논총」132 (2024), 275-315, 283.

곧이어 대학생이 될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일컬어 알파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연령층에 속한다. MZ세대와 달리 21세기에 태어나서 자란 첫 번째 순수 21세기형 연령층이기에 알파세대라고 명명한다.[31]

맥크린들을 포함한 일군의 학자들은 알파세대가 2025년 이후 세계 인구의 25%인 약 20억 명에 달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역사상 가장 큰 세대가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32] 알파세대가 가진 디지털, 소셜, 글로벌, 모바일, 비주얼의 특징들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는, 알파세대의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에서는 관상적인 측면,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측면, 그리고 몸을 영성훈련의 매개로서 적극 활용하는 측면의 강조가 필요하다.[33] 예를 들어, 성경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살려내며 그 속에서 재미와 의미, 그리고 관상적인 만남의 경험을 하도록 초대하는 것 등이다.

알파세대와 아울러 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다음 세대는 'MZ세대'[34]이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공정성에 민감하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이한 MZ세대'라는 프레임은 기성 조직의 임원과 리더들에게 '우리 조직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세대가 특이한 것'이라는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 줬다.[35] 나와 조직이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고, 특이한 저들만 잘 이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한 해법도 금방 나올 수 있었다.[36] 이는 '시대 충돌'을 '세대 갈등'으로 덮어씌우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생긴 균열을 MZ세대의 특성 탓으로 돌린 셈이다. "다음은 또 무슨 세대냐?"라고 되물으며 지겨워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도 세대론이 반복되는 건, 편리하고 마음 편한 프레임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37]

---

31) Ibid.

32) 김정희, "알파세대의 영성훈련을 위한 제언",「대학과 선교」62 (2024), 329-359, 332.

33) Ibid., 356.

34) MZ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대학 교육의 사례를 위해서는, 곽호철, 양인철, "MZ세대에게 필요한 기독교대학 채플의 정체성과 방향성: 한남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대학과 선교」47 (2022), 67-103; 김진옥, " MZ세대와 소통하는 맞춤형 대학 채플의 모색 — 명지대학교 채플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학과 선교」55 (2023), 9-29; 곽민정, 오영섭, "다문화사회 교양 수업을 통한 MZ세대의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 경험 연구",「다문화콘텐츠연구」47 (2024), 39-62를 참고할 수 있다.

35) 고승연,『우리가 싸우는 이유: MZ세대는 없다』(화성: 프랜비디자인, 2023), 28-29.

36) Ibid., 29.

37) Ibid., 29. MZ 직원들이 이미 직원의 50%를 차지하는 조직이 많으며, 수년 내에 전체 구성원의 70-80%를 차지하게 된다. 인적 구성의 운동장이 바뀌고 있는 오늘날, 직원들의 학

사실 '세대'는 세상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설명할 수 없는 변수다.[38] 엄밀히 말해 '세대'란 각 연령대가 10대나 20대 등 가치관 형성기에 겪은 중요한 사건이나 트렌드, 공통된 경험으로 인해 함께 공유하는 정서나 신념, 특성 등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39] 비슷한 경험을 한 인구 집단이 일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걸 코호트 효과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세대론 자체가 무의미한 분석틀은 아니다.[40] 다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즉 직업이나 소득, 보유 자산과 같은 변수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41]

잘 설명이 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세대론이나 다음 세대론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이다.[42] 게다가 일부 작동하던 세대론의 공식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다. 세대 간 간극이 벌어지는 동시에 세대 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4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3. 성경의 역할과 성경 읽기의 의미와 중요성

성경은 "새로운 종교언어를 창조했던 말의 보물들과 신학 사상뿐 아니라, 문학적, 예술적 상상력까지 자극했던 풍경과 이미지의 보화들을 쏟아놓았다."[44] 하나님과 자아, 그리고 인간 공동체 및 사물의 처음과 끝은 성

력이 높아지고 자발적 협업이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지시적 리더십으로는 곤란하다. 이제는 직원 개개인이 셀프 리더가 되어, 스스로 일하도록 만드는 '슈퍼 리더'가 필요하다. 여기서 '슈퍼 리더'는 직원들을 셀프 리더로 변화시키는 '상위의 리더'라는 의미이다. 김영기,『MZ세대와 꼰대 리더』, 개정판 (서울: 좋은 땅, 2023; 원출판년 2022), 8.

38) Ibid., 29.

39) Ibid., 30.

40) Ibid.

41) Ibid.

42) Ibid.

43) Ibid.

44) R. L. 윌켄,『초기 기독교 사상의 정신』, 배덕만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4), 20; R. L. Wilken, *The Spirit of Early Christian Thought* (New Haven: Yale Univ. Press, 2003). 유대의 전통과 기독교 전통 모두 '**성서, 성스러운 책**'(sacred Scriptu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특별히 '**성스러운**'(sacred)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사용할 때, 이 용어는 신앙공동체가 거룩하게 따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S. Brown and F. J. Moloney, SDB,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1.

경의 역사와 성경의 언어 및 성경의 이미지로 서로 엮어져 있다.[45]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형성했고, 그들에게 하나의 언어를 주었다.[46] 고전 전통에 의해 형성된 지성인들로서 최초의 기독교 사상가들[47]은 유식하고 중요한 계층에 속했다.[48] 그들은 자신들의 옛 문화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며 그들은 자신들 언어의 아름다움, 문학의 정교함, 그리고 현자들의 섬세함에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성경을 손에 들었을 때, 그들은 압도되었다. 그 일은 마치 산에 폭우가 쏟아지듯이 그들에게 일어났다."[49]

우리는 모두 '말하는 사람'(homo loquens)이면서 동시에 '읽는 사람'(homo legens)이다. 하루도 읽지 않고 그냥 보내는 날이 없다.[50]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성경 읽기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51] 그러므로 읽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인지, 이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

45) Ibid., 20.

46) Ibid., 81. 언제나 성경은 기독교 교회의 삶의 중심이었다. 예수께서도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구약성경, 곧 당시 유대 문화 속에 깊숙이 녹아 있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다양한 이야기, 노래, 예언, 지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셨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께서 읽은 것과 동일한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연구하고 이해하며 설명하려고 했고, 또한 그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올바로 재정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했다. N. T. 라이트,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15.

47)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을 멤버로 구성한 교회들은 초기에는 회당들로 간주되었다. 교회의 멤버들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1주일에 월요일과 수요일에 금식하는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께서 붙잡히신 날과 십자가에 처형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였다. 이들은 히브리 성경을 사용하여 메시아니즘, 종말론 등을 취했다. W. H. C. Frend, *The Rise of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4), 121-122.

48) Ibid., 81.

49) Ibid., 81. 학교에서 "그들은 호메로스나 베르길리우스의 글에서 긴 문장들을 암송했고, 이소크라테스나 키케로의 고상한 문장들을 모방함으로써 우아한 산문을 쓰고 세련되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창세기를 읽기 전에 플라톤을 읽었으며, 선지자들을 읽기 전에 에우리피데스를 읽었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기 전에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를 읽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기 전에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Lives>을 읽었다."

50) 강영안, 『읽는다는 것』 (서울: IVP, 2020), 13.

51) 고대에는 교부나 영성가의 저술이나 성경의 저자가 경험한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전인적인 읽기를 시도했다. 즉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듣고, 지성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온 감각 기관을 사용한다. 이러한 읽기를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 칭한다. 이러한 렉시오 디비나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읽기의 대상물이 성경으로 좁혀지고, 그 목적 역시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는 기도의 방법으로 발전해 갔다. 유해룡, 『영성으로 발자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209.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52] 한보희도 적절하게 제시한 바와 같이, "읽는다는 것은 언어적 공동체에서 숨 쉬며 살아간다는 것"이다.[53] 따라서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언어적 공동체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 그런 공동체 바깥에 내팽개쳐졌다는 것, 상징적 세계에서 살아갈 힘과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뜻한다.[54] 읽을 수 없는 자는 '바깥에 갇혀 있는' 자인 셈이다.[55] 이를 통해 볼 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신앙적 공동체에서 숨 쉬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기원후 1세기에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사람이 낭독해 주는 방식으로, 즉 읽어 주기 방식으로 성경을 공동으로 함께 읽었다. 기원후 수 세기 동안, 문헌 전승은 공동체가 함께 읽고 낭송하는 사건을 통해 전파될 때가 잦았다.[56] 1세기의 구전 문화 배경을 생각할 때 성서는 독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읽혔다기보다는 공동체 앞에서 공연자(performer)에 의해 큰 소리로 구연되었다. 즉 성서는 오늘날과 같은 인쇄된 출판물로 '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로 '들려지고 보여졌다'. [57] 기독교 공동체를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저자는 그의 서신 수신자더러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우선시하라며 이렇게 가르친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데 전념하라'(딤전 4:13).[58] 공동 읽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 듣기를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에 공동 읽기를 통하여 믿음으로 공동 듣기를 한 이후, "그의 백성들은 기도, 찬양, 순종으로 응답한다."[59]

이와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 "기원후 1세기에 공동 읽기 사건이 현재 학계의 통설이 추정하는 것보다 지리상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고 더 흔한 일이었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 공동 읽기 사건이 일어난 사회적 무대가 광범위했음을 증명했다."[60] 공동 읽기 사건은 초기 그리스도인, 필론, 그리고

52) 강영안,『읽는다는 것』, 14.
53) 한보희, "근대 사회의 출현과 읽기의 경험: 읽기에 대한 미디어 철학적 성찰", 박진우 편,『디지털 시대의 읽기문화』(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14-54, 14.
54) Ibid., 14.
55) Ibid.
56) B. J. 라이트,『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 읽기』, 박규태 역 (서울: IVP, 2021), 29; B. J. Wright, *Communal Reading in the Time of Jesu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7).
57) 이지은, "공연비평적 성서읽기",「신약논단」28:1 (2021), 251-286, 257.
58) B. J. 라이트,『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 읽기』, 29.
59) D. E. Graves, *Key Themes of the New Testament*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3), 219. 칼뱅은 말씀(the Word)을 듣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고 진술한다. B. C. Milne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Brill Archive, 1970), 101-102; D. E. Graves, *Key Themes of the New Testament*, 219, n.68.
60) B. J. 라이트,『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 읽기』, 47-48. 로마제국에서 '공동 읽기'(Public

다른 많은 이가 참여했던, 복잡하고 다양한 국면을 지닌 문화 마당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61] 발전해 가는 전승, 폭넓은 사회 스펙트럼, 광범위한 기독교 세계에 존재하던 다양한 문헌 형식 가운데 존재하던 공통분모 가운데 하나가 공동 읽기 사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런 사건이 기독교 전승 전달을 통제하는 요인으로서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62]

성경이 읽힐 때에는 항상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그런 방식으로 책을 접할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살아 있는 음성으로 회복되었다. 읽기는 음성을 사용하는 행위였고 공동체가 참여하는 행사였다.[63]

사도 요한의 밧모섬 환상에서 일곱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눈으로 읽지 않았다.[64] 그들은 귀로 그 말씀을 들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65]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 시대에 기록된 글이 낭독되어 반향될 때, 기록된 글과 생생한 음성과의 관계는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독서가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요즘에는 글과 살아 있는 음성의 연결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66]

성경이 잘 낭독될 때, 성경 자체는 성령 충만한 설교만큼이나 깊은 사역이 가능하다. 어떠한 부가적 해설 없이 단순히 낭독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영감을 불어 넣었고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밝히 비춰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신학자 존 데이비스(J. Davis)

Reading)에 대해서는, J. Carcopino, *Daily Life in Ancient Rome*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68; org. ed. 1940), 193-201.

61) Ibid., 345.

62) Ibid., 345-346.

63) E. H. 피터슨, 『균형있는 목회자』, 차성구 역, 재조판 (서울: 좋은 씨앗, 2022; 원출판년 2002), 139; E. H. Peterson, *Working the Angels: The Shape of Pastoral Integrity* (Grand Rapids, Michigan: Wm.B.Eerdmans Pub., 1987).

64) Ibid., 139-140.

65) Ibid., 140.

66) Ibid., 140. "성경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로 구술되는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며"(W. J. Ong, *Orality and Literacy* [New York: Methuen, 1982], 75.) 비록 구텐베르크의 발명 이후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낭독되는 소리를 통해 말씀 그 자체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다. E. 피터슨, 『균형있는 목회자』, 143.

는 "심각하게 말해서 성경의 퍼블릭 리딩은 인간 설교자로부터 떨어져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권위를 인정하는 방편"이라고 언급했다.[67]

3. 온라인 디지털 매체를 통한『새한글』활용

오늘날 대세가 되어 가는 전자책이 인쇄된 책을 누르고 일반화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인쇄된 책들을 통해 형성된 우리의 습관을 완전히 내몰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은 힘들다.[68] 움베르토 에코의 표현대로, "구텐베르크와 그의 발명품이 하루아침에 코덱스(Codex)의 사용을 폐지하지 못했고, 코덱스 역시 볼루멘(Volumen: 두루마리 책)이라고 불리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교류를 중단시키지 못했듯이, 관행과 관습은 공존하게 마련"이다.[69]

MZ세대는 많이 읽지만, 이 '읽기'는 '눈으로 보기'에 가깝다. 특히 대부분의 '읽기'가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텍스트를 정독하거나 천천히 읽는 일은 드물다.[70] 디지털 읽기의 경우, 읽다가 지루해지면 창을 꺼버리거나 읽기 싫은 것은 넘길 수 있다.[71]

MZ세대의 보기에 가까운 읽기, 즉 '보는 읽기'가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행위인지에 관한 의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72] 이는 보는 읽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문을 꼼꼼히 읽어내는 버릇을 디지털 읽기로는 기르기 힘들다. 디지털 읽기는 사진을 찍듯 텍스트를 '보고' 부분부분 훑는다.[73] 이런 읽기에 익숙한 MZ세대는 "필요한 정보를 추려내고 취합하는 일을 어려워한다. 자연히 긴 텍스트 접하는 일을 기피하는 성향이 생긴다. 문자 텍스트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긴 영상도 싫어한다."[74]

---

67) J. D. 아서스,『말씀을 낭독하라』, 김은정 역 (서울: 국민북스, 2017), 13; J. D. Arthurs,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Well-Spoken Word* (Grand Rapids, Michigan: Kregel Ministry, 2012).

68) 박진우,『디지털 시대의 읽기문화』(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4.

69) U. Eco and J.-C. Carriere, *This is not the End of the Book* (Random House UK Ltd, 2011), 370; Ibid.에서 재인용.

70) 김효정,『MZ세대 사용설명서』(파주: 넥서스BIZ, 2022), 228.

71) Ibid.

72) Ibid., 228-229.

73) Ibid., 230.

74) Ibid.

긴 텍스트를 회피하는 성향으로 나타난 모습 중 하나가 1.5배속 보기다. 요즘 MZ세대는 드라마나 영화를 OTT를 통해 보면서 빠르게 돌려 본다.[75] 한 가지 확실한 것은 MZ세대는 긴 텍스트를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76] 이러한 세대에게 짧은 텍스트로 분할하여 번역된 『새한글』 번역은 매우 읽기에 적합하다.

한편, MZ세대는 각자 말하기에 익숙하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행하던 밈 중에는 '무플 방지'가 있었다.[77] 요즘 MZ세대는 '좋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아예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 상업적 의도가 없는 이상 집단적 독백 상황에 익숙해져 가는 게 MZ세대의 소통 방식이다.[78]

문해력, 특히 디지털 문해력이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을 포함한다.[79] 비교는 MZ세대를 대표하는 행위 중 하나다.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여겨지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MZ세대는 비교하는 일에 익숙하고, 비교를 체화하며 살아간다. 소셜미디어 탓이 크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시간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비교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80]

소셜미디어는 이런 태도를 MZ세대 생활 전반에 걸쳐 확장하도록 도왔다. 단지 교육을 받고 스펙을 쌓는 데만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노는 것, 먹는 것, 입는 것까지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MZ세대가 우열을 가리기 좋아하고 점수를 매기는 데 익숙한 까닭이다.[81] 한편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일반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MZ세대의 점수화는 권위적이기도 하다.[82]

누구나 자기 경험에 점수를 매기는 문화다. 예전에는 점수를 매기는 역할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던 것이다. 그러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미식가나 푸드 칼럼니스트가 아니라도 자기가 먹은 음식에 점수를 매길 수 있다.[83]

---

75) Ibid. 이렇게 보면, 자막을 틀고 10분짜리 영상을 6분 40초 만에 보는 것이다.
76) Ibid.
77) Ibid., 231-232.
78) Ibid., 232.
79) Ibid.
80) Ibid., 236.
81) Ibid., 236-237.
82) Ibid., 237.
83) Ibid., 238.

이 점수화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세대가 MZ세대라는 점이 중요하다. MZ세대에게는 윗세대가 지니지 못했던 권위가 있다. '이름이 있는 권위'는 아니다. MZ세대는 익명이기는 해도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다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이 권위를 은근히 즐긴다.[84]

3.1. 블로그를 통하여 성경 읽기 공유하기

최근 페이스북은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85] 영향력 있는 페이지도 줄고 있으며, 기업들도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다른 미디어로 전환하고 있다.[86] 다음 세대는 블로그를 부담 없고 편한 플랫폼으로 여긴다.[87] 인스타그램처럼 사진과 글자 수 제한도 없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공유할 수 있어서 일상을 기록하기에 부담 없기 때문이다.[88] 대세였던 짧은 글과 동영상, 이미지 위주의 플랫폼과 달리 길고 편한 '투 머치 토크'를 위해 블로그를 찾는다는 점이 재미있다. 이 세대에게 블로그는 오히려 낯선 SNS이기 때문에 새롭고 힙한 플랫폼으로 다가왔다.[89] 공고판으로 편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고, 남들 다 하는 채널이 아니라 특별히 느낌이 드는 것도 이 세대가 꼽는 블로그의 매력 중 하나다.[90]

개인이 사회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미닝 아웃'(Meaning Out)이라고 한다.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온다'는 뜻의 '커밍 아웃'(coming out)의 합성어이다.[91] 90년대생은 직접 움직이는 봉사활동보다 소비에서 가치관을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92]

---

84) Ibid., 239.

85) 밀레니얼 세대는 38.5%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답한 데 반해, Z세대의 페이스북 이용률은 57.6%로 19.1%나 차이가 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서울: 위즈덤하우스, 2021), 93. Z세대는 본고에서는 MZ세대로 포함하여 다룬다.

86) 이런 상황에도 Z세대의 페이스북 이용률이 이전 세대보다 높은 이유는 페이스북을 메신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Ibid.

87) 다음 세대(Z세대)는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았던 블로그가 3위(37.1%)로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트위터가 5위, 틱톡이 7위로 나타난 것과 달리, Z세대의 응답에선 트위터(31.2%)가 4위, 틱톡(15.9%)이 5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도 눈에 띈다. Ibid., 94.

88) Ibid.

89) Ibid., 94-95.

90) Ibid., 95.

91) 고광열,『MZ세대 트렌드코드』(서울: 밀리언서재, 2021), 238.

92) Ibid.

다음 세대는 '기록'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꾸준히 기록하는 데서 얻는 성취감이 좋다는 것이다. 하루 일과부터 취미, 대외 활동, 전공 분야까지 그 범위는 다양하다. 이런 모습은 다음 세대 사이에서 열풍인 '갓생' 트렌드와도 닿아 있다.[93] '갓생'이란 신을 뜻하는 '갓'(God)에 인생을 뜻하는 한자 '생'(生)을 붙여 만든 신조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말로 스스로 집중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도 갓생 살았다.", "내일은 갓생 살아야지."라는 식으로 쓰인다.[94] 갓생을 살고자 하는 MZ세대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은 소셜미디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만 15세 이상 25세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이버 블로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글을 쓰는 사람은 31.2%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업로드하는 비율 24.4%보다 많다.[95] 이 응답자의 대다수는 블로그에 일상생활을 전시한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죽 나열하고 사진까지 첨부한 다음 "전시 보고 운동하고 친구를 만나 공부도 했다. 갓생 살았다."고 적는 식이다. 관련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많다.[96]

3.2. 성경 읽기를 각자 녹음하여 애플리케이션에 공유하기 - 갓생 챌린지 공유하기: '미라클모닝' 사례

'갓생'은 어떤 다짐이다. 무기력하고 불안한 일상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고 나아지지 않는 현재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갓생은 MZ세대의 새로운 의지다.[97] 나아지지 않는 현재를 개인 차원에서라도 극복해 보려는 모습이다. 다소 절박하기까지 한 표현이다.[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MZ세대는 열 명 중 여덟 명에 가까웠다. 트렌드모니터 조사 결과를 보면 성공한 사람은 규칙적인 삶을 살 거라고 믿는 MZ세대는 열 명 중 여덟 명에 가까웠다.[99] 근면하게 살면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MZ세대를 다양한 방식의 갓생으로 이끌었다.[100] 자기계

93)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 95.
94) 김효정, 『MZ세대 사용설명서』, 242.
95) Ibid.
96) Ibid., 242-243.
97) Ibid., 243.
98) Ibid., 243-244.
99) Ibid., 246.
100) Ibid.

발서는 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101]

동기부여 전문가인 할 엘로드의『미라클모닝』(한빛비즈, 2022)이라는 책을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층이 30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Z세대의 구매 비율만 따져도 65%에 달한다.[102]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챌린지'를 해내는 것도 갓생의 모습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달성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인데, 아예 모임을 만들어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방식도 드물지 않다.[103]

MZ세대뿐 아니라 알파세대인 초등학교 학생들도 성경 읽기를 각자 녹음하여 애플리케이션에 공유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여긴다. 이러한 의미 부여도 갓생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4.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새한글』활용

4.1. 1박 2일 책밤을 통한 성경 활용 - "별 있는 산속, 책 읽는 밤"

우리는 '책밤'이라 부르며 하룻밤 아이들을 모아 놓고 책, 밤, 놀이로 뒤엉긴 비빔밥을 만든다.[104]

> 모이는 곳: 자연과 어우러진 별과 책밤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 모이는 사람들: 책을 사랑하는 엄마와 아이들

엄마들은 고기를 굽고 아이들은 이불 썰매를 타고 베개 싸움을 하느라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셨다. 과연 아이들이 책을 꺼내면 읽을까? 다들 모아 놓고 책을 펼쳤을 때 엄마들은 모두 놀랐다. 활동적으로 놀던 아이들이 책에 놀랍도록 집중하는 모습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광경이다. 여행 계획을 짤 때 각자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읽어 주고 싶은 책 2권을 준비해서 한 권씩 돌아가며 읽어 주자고 했는데, 막상 2권씩 전부 읽어 주었는데도 아이들은 더 읽어 달라고 성화였다. 열광적인 아이들의 반응에 엄마들은

101) Ibid., 246-247.
102) Ibid., 247.
103) Ibid.
104) 조혜윤, "별 있는 산속, 책 읽는 밤", 독서동아리 글모음,『독서동아리가 쓰다: 2020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서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21), 79-86, 79.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책 읽는 밤, 자연휴양림, 별, 이렇게 세 가지를 매달 한 번 모여서 함께 즐기기로 말이다.[105]

책 읽기와 독후활동 후 아이들의 첫 번째 자치 회의가 열렸다. 5, 6학년 아이들이 의장과 서기를 맡고 책밤에서 지켰으면 하는 규칙들을 정하는 자리였다. 아이들은 스스로 설거지하기, 이부자리 정리하기, 신발 정리하기 등 자발적으로 책밤이 운영될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었다.[106]

안면도 휴양림에서 1박 2일 진행된 책밤 모델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성경 읽기를 책별로 담당자를 정하여 함께 읽기를 시도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 본다. 필요시 연령대에 맞는 흥미로운 신앙 서적이나 교양 서적도 성경과 함께 병행하여 읽어도 좋을 듯하다.

4.2. 교회 밖 다양한 장소에서 낭독 모임을 통한 성경 활용

성경을 낭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들이 있다. 입으로 소리내어 읽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과 말의 장단, 적당한 목소리의 높낮이와 띄어 읽기를 주의하게 된다. 또 귀로는 자신의 음색과 말투와 분위기를 느끼며 읽으니, 읽고 듣는 두 번의 행위로 내용을 상상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게 된다. 장연심이 인도하는 '낭독하는 책 여행기' 모임에서 낭독을 해 본 결과, "낭독을 하면 할수록 회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특유의 어색한 억양도 많이 고쳐졌으며, 낭독하는 데에 자신감도 생겼다."[107]

"사람의 뇌 속에 단어를 집어넣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눈'을 통하거나 '귀'를 통하는 길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눈으로 책을 읽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두뇌 훈련을 하기에 가장 빠른 길은 당연히 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귀를 통해 들려주는 소리는 다음 세대의 머릿속 '생각의 집'을 건설하는 튼튼한 기초가 된다. 귀를 통해 들은 의미 있는 소리는 나중에 그들이 글을 배워 눈을 통해 글자를 보게 될 때 이해하기 쉽게 도와준다."[108]

뇌는 소리를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이다.[109] 심리학에서는 획득한 정보를

105) Ibid., 80.
106) Ibid.
107) 장연심, "낭독하는 책 여행기", 독서동아리 글모음, 『독서동아리가 쓰다: 2020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서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21), 68-70, 69.
108) J. 트렐리즈,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눈사람 역 (서울: 북라인, 2007), 47; J. Trelease, *The Read-Aloud Handbook*, 6th ed. (New York: Penguin Books, 2006).
109) EBS 제작팀, 『아이의 사생활』 (서울: 지식채널, 2009), 44.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말로 되뇌는 과정을 '시연'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리를 이용해서 시연을 할 경우, 기억은 30초 이상 유지된다.[110] 따라서 단기기억의 용량을 늘리거나 그것을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면 시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111]

예컨대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이유는 아이와 대화하는 의도와 같다. 자신감을 북돋고, 흥미를 일깨우며, 결속을 다지고, 정보를 전하며, 현상을 설명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영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책을 읽어 줌으로써 얻게 되는 읽어 주기만의 장점 때문이다.[112]

읽어 주기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책 읽는 것을 즐기게 된다. (2) 배경지식을 늘려 준다. (3) 어휘를 늘려 준다. (4) 독서의 모범을 보여준다.[113]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가 책을 즐겁게 읽는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른이 책을 읽어 주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학생쯤 되면 아무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지 않는다.[114]

4.3. 언어능력을 단시간에 높이는 필사 성경 독서법

성경을 베껴 적는 활동, 필사를 활용하는 독서의 방식도 시도해 볼 만하다. "필사는 언어능력을 단시간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독서법이다. 짧은 시간 안에 깜짝 놀랄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115] 초보 독서가인 아이에게 250쪽 분량 책의 경우 2주에 한 권 정도가 적절하며, "이보다 많은 독서량을 요구하면 독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116] 중요한 것은 독서의 질이

110) Ibid.

111) Ibid. 시간이 길어질수록 철자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친숙하지 않은 정보를 기억하려고 할 때, 시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단기 기억력이 급속하게 낮아졌다. 시연 없이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20-30초에 불과했다. Ibid., 45. 관찰 결과 5세 아이는 2명, 7세 아이는 12명, 그리고 10세 아이는 17명이 입으로 반복 시연을 했다. 시연을 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아이들 역시 시연을 사용하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시연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112) J. 트렐리즈,『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47.

113) Ibid.

114) Ibid., 47-48.

115) 이를 실천한 결과, "중등 2학년 학생 중에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수능 국어영역 편집본 평가점수를 30점 끌어올린 사례도 있다. 3개월만 제대로 하면 국어는 물론이고 사회, 과학 계열 과목의 성적까지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 최승필,『공부머리 독서법』(남양주: 책구루, 2018), 100.

다.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읽을수록 언어능력의 상승 정도도 커진다.[117] 표준 독서 속도는 소리 내서 읽는 속도와 같거나 더 느린(한 권당 4시간 이상) 정도가 적절하다.[118]

> 2주 성경 읽기 계획표
> 10일 - 성경책 정하기 / 책 읽기: 필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0일 안에 지정된 성경 전체를 읽는다. 바울서신 13권 읽기.
> 4일 - 바울서신 중 빌립보서/빌레몬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필사하기: 대상별 시간 계획에 적절하게 선택한 서신 한 책 전체를 베껴 적는다.
> 대화하기: 도입부나 서신 한 책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다.[119]

『새한글』을 필사할 때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필사할 때는 숙제를 해치우듯 빠르게 쓰면 안 된다. 문장의 뜻을 숙지하며 한 문장 한 문장 꾹꾹 눌러쓴다. 다 쓰고 나서는 반드시 자신이 필사한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본다."[120] 읽기와 쓰기는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잘 읽는 사람이 잘 쓰고, 잘 쓰는 사람이 잘 읽는다. 읽기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이해의 깊이가 얕고, 쓰기만 하고 읽지 않는 사람은 문장의 내실이 빈곤할 수밖에 없다.[121]

4.4. 반복 읽기를 통한 성경 활용 - '세종대왕처럼 읽기'

세종대왕은 세자로 있을 무렵 글을 읽으면 반드시 백 번씩을 채워 읽기도 하였다.[122] 『좌전』과 『초사』라는 책은 백 번 넘게 읽었다. 중국 송나라

116) 최승필, 『공부머리 독서법』, 69.
117) Ibid.
118) Ibid. 참조.
119) Ibid. 참조하여 응용하다.
120) Ibid. 101.
121) "나는 책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이나 단락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용을 수첩에 천천히 옮겨 적는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미처 깨닫지 못한 문맥의 의미가 구체화되어 그 뜻을 체득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말로 들어 인정하는 것보다 직접 시도해보지 않으면 그 효과를 체험하기가 힘들다. 이해하기 힘든 문장은 물론 아주 좋은 문장들도 베껴 씀으로 인해 그 맛과 풍미가 더 깊어진다. … 또한 옮겨 적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리 내어 몇 번이고 되뇌어 읽어 그 문장을 통째로 외워 버린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함께 읽으면 쉽게 외워지고 더 오래 기억된다. 이렇듯 읽고, 쓰고, 외우는 삼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어떤 내용이든 완벽하게 자신의 것이 되어 적재적소의 순간에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석연, 『책, 인생을 사로잡다』 (고양: 까만양, 2012), 27-28.

대문장가인 구양수와 소동파의 짧은 편지글을 뽑아 엮은『구소수간(歐蘇手簡)』의 경우, 세종은 천백 번이나 읽었다고 신하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123]

4.5. 책에다 점을 찍어가며 읽기 - '타이완의 양즈랑 사례'

문자 독해력이 약한 초중고생이 얌전히 앉아 책을 읽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의 지정한 책을 읽을 때, 연필을 준비하여 책에 점을 찍으며 읽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책에다 점을 찍게 하면, 적어도 아이들이 진짜 책을 읽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124] 사례를 보면, 타이완의 바닷가 시골 마을에 자리한 장화현 루밍중학교의 국어교사인 양즈랑이 대학 시절 한 교수님이 고전 문헌 교재를 강독할 때 시켰던 방법이 점을 찍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점을 찍을 때마다 불평을 했지만 1년이 지났을 때, 신기하게도 고전 문헌을 해석하는 실력이 일취월장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도 대학에서 강의할 때나 중학교 수업 시간에 위의 방법을 활용하여 매우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전한다.

양즈랑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마음을 가다듬고 책을 읽으며 문장부호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거나 점을 찍으라고 시켰다. 이 방법으로 나는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한 글자 한 문장 꼼꼼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글짓기 실력과 문장부호 쓰는 법도 훨씬 좋아졌다."[125]

"먼저 아이들에게 내용을 읽지 말고 문장부호만 빠르게 찾아서 점을 찍게 하고, 그다음에는 한 문장씩 읽으면서 문장부호에 점을 찍게 했다. 그랬더니 두 방법 모두 시간은 비슷하게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면 성공을 눈앞에 둔 셈이다."[126]

"점을 찍어도 되는 책을 하나 골라 반 전체와 함께 읽으며 점을 찍고 독후감을 쓰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짧은 글을 모은 책에서 한쪽 정도의 잘 쓴 글을 고르는 편이다. 10분 정도면 다 읽고 점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적당하다. 그러면서 처음 보는 글자나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로 표시했

122) 김건우,『옛사람 59인의 공부산책』(서울: 도원미디어, 2003), 13-14.
123) Ibid., 14.
124) C. 양,『잊지 못할 책읽기 수업』, 강초아 역 (서울: 미래의 창, 2016), 95; Yang C.-L.,『記得這堂閱讀課』(New Taipei City: 親子天下, 2014).
125) Ibid., 95-96.
126) Ibid., 96.

다가 여백에 써 보게 한다. 그리고 글 한 편을 읽은 후에는 200자 정도로 짤막하게 느낀 점을 써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짧으면서도 힘 있는 글을 읽으며, 틀리기 쉬운 글자를 익히고 동시에 작문 실력도 높일 수 있다."[127]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배용 성경은 1911년에 처음 번역될 때부터 현재의 『개역개정』에 이르기까지 문장 부호 없이 번역되고 출판되었으나, 1967년의 『새번역신약』과 1977년의 『공동』에서 문장 부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979년에는 『개역한글』에 문장 부호를 붙인 『신약전서 개역』이 출판되었으나 교회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성경을 읽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에 전체가 출판되지는 않았다.[128] 하지만, 『새한글』은 현대 문장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기에[129] 점을 찍어가며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6. 캡션기[130]를 활용한 성경 활용 - 핀란드의 사례

'읽기는 습득되는 기술이다'. 이것은 읽기가 자전거 타기나 운전하기, 바느질하기와 같다는 말이다. 잘하려면 많이 해야만 한다. 많이 할수록 더 잘하게 된다.[131] 지난 30년간의 읽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인종, 국가,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이 단순한 공식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읽는 아이가 가장 잘 읽고, 최고의 성취를 이루며, 최종 학력도 제일 높다. 반대로 많이 읽지 않는 아이는 잘 읽지 못한다.[132]

핀란드 아이들은 (미국보다 2년 늦게) 8세가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10세가 되면 미국 아이들을 추월한다.[133] 우선 핀란드에서는 대부분의 엄마가 직장에 다니고, 거의 모든 아이를 두 돌이 지나면 유아원에 보낸다 '학교'[134]는 8세부터 반나절씩 다니는데, 이후 17세가 될

127) Ibid.
128) 전무용,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문장부호를 붙이기 위한 예비적 논의", 「성경원문연구」 54 (2024.4.), 245-268, 245.
129) 현대 한국어법에 맞게 성경을 번역한 것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224-251.
130) 캡션기는 영상의 하단에 자막으로 문장이 표기되는 기능의 전자기기를 말한다.
131) J. 트렐리즈,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49.
132) Ibid., 49.
133) Ibid., 50.
134) 오늘날의 '학교'는 학교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서 퇴색하여 잘못 불리고 있다. 그리스어 '스콜레'(schole)는 '여가'(leisure)를 의미한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대화와

때까지 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135]

정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이나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고, 한 학급의 인원은 30명 정도로 45분간 수업하고 15분간 휴식하며, 모든 급식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료이다.[136] 무엇보다 핀란드의 많은 가정은 책을 읽는 분위기이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일을 매우 강조하며, 이를 지원하는 탄탄한 공공도서관 시스템이 존재한다.[137]

마지막으로 핀란드에는 캡션기가 보편화되어 집에서 아이의 읽기 가정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 엘리의 연구 이후 핀란드는 3년에 한 번씩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측정하는 국제 성적 평가에서 15년 내내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다.[138]

4.7.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한 성경 활용 - G&M 재단의 PRS(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듣기와 보기를 동시에 하거나 주후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모여 성경을 한 사람이 낭독하고 청중은 듣기만을 하는 방식과 같이 성경을 읽어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 듣기와 보기를 동시에 시행하는 지앤엠 재단의 '공동체 성경 읽기'(Public Reading of Scripture, 이하 PRS) 프로그램이 있다.

'앱'(app)으로 제공되는 바이블 트랙커를 활용하여 공동체가 함께 성경 읽은 분량을 각자 매번 앱에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방식인데, 성경 읽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동기를 부여하는 PRS 성경 읽기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하다.

유진 피터슨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행위가 아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마치 동일한 것처럼 취급받는다.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그들의 헌신

게임을 통해 여유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배양하기 위해 제공된 안전한 공간과 시간이었다. 대화 또는 게임을 지도하긴 했지만 방해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정한 학년과 기간과 과목을 정해놓은 현대의 학교는 그리스의 학교와 몇 광년은 떨어져 있다. E. 피터슨,『균형있는 목회자』, 147.

135) Ibid., 50.
136) Ibid.
137) Ibid., 50-51.
138) Ibid., 51.

이 아니라 직업 때문에) 목회자들은 정당화되지 않는 이러한 가정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한다.[139]

이런 일들은 상당히 자주,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로 변질되는 경우들을 주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회복해야 한다.[140]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지, 도덕적인 기록들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았다. 성경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반적인 행동은 성경책을 분석적으로 읽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의지 – 멀리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듣는 귀 – 를 함양하는 것이다.[141] 하지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열정이 감소하거나 아예 사라져 버리는 때가 있다.[142]

4.8. 개별적으로 소리 내어 읽기를 통한 성경 활용

『새한글』은 공동 읽기와 아울러 개별 읽기에도 매우 적합한 번역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성경 번역이기에 낭독에 매우 효율적이다. 과거에 서당에서처럼 소리 내어 책 읽기를 하던 방식이 오감을 활용하기에 잡념을 없애 집중력을 높이고 전인적인 성경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성훈련에도 매우 유익하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다매체에 노출되어 성경 읽기를 접하기는 쉬우면서도 집중하기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에 개별 낭독을 통한 읽기가 적합하다. 개별 낭독이기에 휴대폰이나 녹음기 등의 매체로 음성 녹음을 하여 공유하거나 녹음한 것을 개별적으로 반복 재생하며 경건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139) Ibid., 134.
140) Ibid., 135.
141) Ibid.
142) Ibid.

5. 나가는 말:『새한글』의 활용 방안

『새한글』의 번역 특징은, 다음 세대인 알파세대와 MZ세대가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 활용 방안을 위하여 온라인 성경 읽기 방안과 오프라인 성경 읽기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경우, 온라인 성경 읽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성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활용은 정기적이지 못하고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동 읽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모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경 읽기를 독서라고 할 때, "삶과 독서가 상호적이 되어야 하고, 몸짓과 말 그리고 그것의 상호 작용이 독서를 삶에 동화되게 하고 삶을 독서에 동화되게 해야 한다.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음을 사는 것과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그것에 꼭 필요한 활동이다."[143] 다음 세대가『새한글』을 통하여 성경 활용, 성경 읽기와 성경 듣기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다음 세대가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반영된 창조적인 삶[144]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143) E. H. 피터슨,『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2판 (서울: IVP, 2018), 17.

144) 성경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관계를 창조하고 강화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반영된 새 창조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N. T. 라이트,『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 278.

<참고문헌>(References)

강영안, 『읽는다는 것』, 서울: IVP, 2020.
고광열, 『MZ세대 트렌드코드』, 서울: 밀리언서재, 2021.
고승연, 『우리가 싸우는 이유: MZ세대는 없다』, 화성: 프랜비디자인, 2023.
곽민정, 오영섭, "다문화사회 교양 수업을 통한 MZ세대의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 경험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47 (2024), 39-62.
곽호철, 양인철, "MZ세대에게 필요한 기독교대학 채플의 정체성과 방향성: 한남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47 (2022), 67-103.
김건우, 『옛사람 59인의 공부산책』, 서울: 도원미디어, 2003.
김영기, 『MZ세대와 꼰대 리더』, 개정판, 서울: 좋은 땅, 2023; 원출판년 2022.
김인수, "기독교 교양과 영성 ― 인공지능 시대에 참-인간 형성을 위한 대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2 (2024), 275-315.
김정희, "알파세대의 영성훈련을 위한 제언", 「대학과 선교」 62 (2024), 329-359.
김진옥, "MZ세대와 소통하는 맞춤형 대학 채플의 모색 ― 명지대학교 채플 사례를 중심으로 ― ", 「대학과 선교」 55 (2023), 9-29.
김효정, 『MZ세대 사용설명서』, 파주: 넥서스BIZ, 2022.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 서울: 위즈덤하우스, 2021.
라이트, B. J.,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 읽기』, 박규태 역, 서울: IVP, 2021.
라이트, N. T.,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박장훈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라이트, N. T.,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 김재영 역, 서울: IVP, 2007.
박진우, 『디지털 시대의 읽기문화』,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신상목, "포텐셜 레이어티", 「활천」 855 (2025.2.), 20-25.
아서스, J. D., 『말씀을 낭독하라』, 김은정 역, 서울: 국민북스, 2017.
양, C., 『잊지 못할 책읽기 수업』, 강초아 역, 서울: 미래의 창, 2016.
언더우드, L. H., 『상투의 나라』, 신복룡, 최수근 역주, 서울: 집문당, 1999.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유해룡, 『영성으로 발자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윌켄, R. L., 『초기 기독교 사상의 정신』, 배덕만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4.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10.), 224-251.
이석연, 『책, 인생을 사로잡다』, 고양: 까만양, 2012.
이지은, "공연비평적 성서읽기", 「신약논단」 28:1 (2021), 251-286.
장동선,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파주: 김영사, 2022.

장연심, “낭독하는 책 여행기”, 독서동아리 글모음,『독서동아리가 쓰다: 2020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서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21, 68-70.

전무용,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문장부호를 붙이기 위한 예비적 논의”,「성경원문연구」54 (2024.4.), 245-268.

정민,『고전, 발견의 기쁨』, 파주: 태학사, 2022.

정인모, “서문”,『고전의 힘』, 서울: 꿈결, 2013.

조혜윤, “별 있는 산속, 책 읽는 밤”, 독서동아리 글모음,『독서동아리가 쓰다: 2020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서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21, 79-86.

최승필,『공부머리 독서법』, 남양주: 책구루, 2018.

트렐리즈, J.,『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눈사람 역, 서울: 북라인, 2007.

피터슨, E. H.,『균형있는 목회자』, 차성구 역, 재조판, 서울: 좋은 씨앗, 2022; 원출판년 2002.

피터슨, E. H.,『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2판, 서울: IVP, 2018.

한보희, “근대 사회의 출현과 읽기의 경험: 읽기에 대한 미디어 철학적 성찰”, 박진우 편,『디지털 시대의 읽기문화』,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14-54.

EBS 제작팀,『아이의 사생활』, 서울: 지식채널, 2009.

Brown, S. and Moloney, F. J., SDB,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Co., 2019.

Carcopino, J., *Daily Life in Ancient Rome*,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68; org. ed. 1940.

Eco, U. and Carriere, J.-C., *This is not the End of the Book*, Random House UK Ltd, 2011.

Frend, W. H. C., *The Rise of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4.

Goldsworthy, G., *Christ-Centered Biblical Theology: Hermeneut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2.

Graves, D. E., *Key Themes of the New Testament*,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3.

Höfrová, A., Balidemaj, V., and Small, M. 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education for Generation Alpha”, *Discover Education* 3:125 (2024), https://doi.org/10.1007/s44217-024-00218-3 (2025.2.14.).

Jha, A. K.,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OSF Preprints, 2020, doi: 10.31219/osf.io/d2e8g (2025. 2.14.).

Luther, M., “Sermon Psalm 5”,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Böhlau, 1883, 9-11.

McCrindle, M. and Fell, A.,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McCrindle Research, 2020),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2803353_UNDERSTANDING_GENERATION_ALPHA (2025.2.14.).

Milner, B. C.,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Brill Archive, 1970.

Ong, W. J., *Orality and Literacy*, New York: Methuen, 1982.

Witherington III, B., *The Biblical Theology: The Convergence of the Can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19.

Ziatdinov, R. and Cilliers, J., “Generation Alpha: Understanding the Next Cohort of University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10:3 (2021), 783-789.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새한글성경』

이수인*

1. 머리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읽기

미국 예수회 신부이자 고전 연구자인 월터 옹(W. J. Ong)은 자신의 책『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서 인쇄라고 하는 미디어의 변화가 사회 전체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인쇄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영속적인 유럽 르네상스로 바꾸어 놓았고,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실현시켰으며, 가톨릭의 종교 관행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서 서유럽이 전 지구를 탐험하게 했고, 가정생활과 정치를 변하게 했으며, 일반화된 문자성을 진지한 목적으로 하였고, 근대과학 융성을 가능케 하였으며, 그 밖에도 온갖 방식으로 사람들의 사회적·지적 생활을 바꾸었다.[1)]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물리적 혁신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구조와 사회 질서, 그리고 문화적 실천 전반을 재편하게 된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거의 모든 사회의 프로세스와 문화, 그리고 미디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현 상황

* Talbot School of Theology에서 기독교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아신대학교(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교수,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연구위원. yi500@acts.ac.kr.

1) W. J. 옹,『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임명진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18), 193.

이 현대인들의 인지 구조와 주의력, 기억과 학습, 그리고 의사소통과 사회적 인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미디어와 독서 관련 통계들은 현대인들의 '읽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경로는 '4대 뉴스 매체'라고 하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였다.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 언론수용자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매체는 텔레비전(76.2%), 인터넷 포털(69.6%),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25.1%), 메신저 서비스(14.5%), 숏폼(1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이신문은 10.2%, 잡지는 0.4%로 나타났다.[2] 즉 이제는 종이와 인쇄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지 않고, 온라인과 동영상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8,3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를 보면 음성 통화를 제외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시간 13분으로 나타났고, 특별히 10대와 20대의 이용시간은 각각 3시간 1분과 3시간 18분으로 나타났다.[3]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조사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의 2023년 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성인들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다 합쳐도 평일은 18.5분, 그리고 휴일은 25.0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이처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과 영상 미디어 이용에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는 시간은 적다 보니 1년 동안 책을 1권 이상 읽은 성인들은 43%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전자책과 오디북을 제외한 종이책을 1년 동안 1권 이상 읽은 사람은 32.3%밖에 되지 않았다.[5]

그런데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미디어들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학습하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이자 IT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N. Carr)는 2008년 애틀랜틱(The Atlantic)에 기고했던 유명한 에세이인 "구글

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언론수용자 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19.
3) 방송통신위원회,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2024), 142.
4)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23), 6.
5) 이를 일반적으로 '종합 독서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를 제외한 종이책, 전자책(웹소설 포함), 오디오북 중 1개 이상 매체 도서를 읽거나 들은 비율을 의미한다. Ibid., 3.

이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고 있는가?(Is Google Making Us Stupid?)"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방대한 자료나 정보들을 빠르게 훑는 방식으로 읽다 보면 집중력과 깊이 읽기(deep reading)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6] 또한 인지신경학자이자 아동발달학자인 매리언 울프(M. Wolf)는 그녀의 책『다시, 책으로』에서 뇌에는 가소성(plasticity)[7]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의 모든 문화가 디지털로 옮겨가고, 문해(文解) 기반 문화에서 디지털 기반 문화로 옮겨가게 되면 인간의 뇌의 배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되고 그 결과 인간 사고의 본질에 변화가 찾아오게 됨을 지적한다.

>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물론, 우리 자신에게 제기되는 어렵고도 구체적인 질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독자는 디지털 매체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지 능력을 흡수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인쇄 매체를 통해 길러지는 시간 소모적인 인지 과정도 키워나갈까요? 이를테면 디지털 포맷으로 읽는 습관과 함께 매일 다양한 디지털 경험(소셜미디어로부터 가상현실 게임에 이르는)에 함몰됨으로써 깊이 읽기를 구성하는 비판적 사고나 개인적 성찰, 상상, 공감 같은 보다 느린 인지 과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8]

미디어는 단순히 어떤 정보와 콘텐츠를 전달하는 도구나 그릇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배우고 생각하는 과정과 방법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현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깊이 읽기'(deep reading)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상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

---

6) 이 에세이는 카의 가장 잘 알려진 책인『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챕터가 되었다. N. 카,『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최지향 역 (서울: 청림출판, 2020), 26-28.

7) 가소성 혹은 신경가소성(神經可塑性, 영어: neuroplasticity)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인간의 두뇌가 학습, 기억 등에 의해 신경세포 및 뉴런들이 변화되는 시냅스 가소성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위키백과, "신경가소성",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A%B2%BD%EA%B0%80%EC%86%8C%EC%84%B1 (2025.2.12.).

8) M. 울프,『다시, 책으로: 순간접속의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 전병근 역 (서울: 어크로스, 2019), 30-31.

은 물론, 그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우선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과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의 '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다양한 문헌과 연구의 내용들을 정리하며 살펴볼 것이다. 다만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과 미디어들을 다 다루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텍스트와 디지털 '읽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그 이후에 이러한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 새롭게 번역된『새한글』의 번역 지침과 특징들을 살피며 그 의의를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새한글』의 보다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을 독자, 성경 교사, 그리고 디지털 텍스트 기획·생산자로 나누어 정리해 볼 것이다.

2.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과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2.1.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물성(物性)을 기반으로 해 왔다. 점토판과 파피루스, 그리고 양피지나 죽간(竹簡)과 같이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던 것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는 신문, 잡지, 책과 같이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한 미디어들을 통해 전달되어 왔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 텍스트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디지털 미디어들을 통해 널리 유통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텍스트는 물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쇄 미디어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피터스(M. Peters)와 랭크셔(C. Lankshear)는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디지털 텍스트는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 혹은 비실재화(desubstatiation)의 특징을 가진다. 즉 디지털 텍스트는 코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송되고 네트워크의 다양한 도착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텍스트의 급진적 상호작용성(radical interactiveness)은 독자-저자라는 전통적인 구분을 무너뜨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텍스트는 작성자가 통제하는 동시에 독자가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독자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텍스트의 크기, 모양, 배율을 제어하고 타이포그래피, 가독성, 조명을 변경할 수 있다. 심지어 독자는 텍스트를 저장하고 인쇄하기 전에 자료를 추가 또는 삭제하고, 단락을 재배열할 수도 있다. 셋째, 디지털 텍스트는 통합하는 힘과 변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디지털 텍스트는 알파벳, 그래픽, 소리와 같은 구성 요소를 하나의 공통분모로 재조정하여 단어, 이미지, 사운드를 동시에 처리하는 복합 양식성을 가지며, 하나의 양식을 다른 양식으로 쉽게 변환도 가능하다. 넷째, 디지털 텍스트는 인쇄에 기반한 형식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특별히 하이퍼텍스트(hypertext)는 인쇄 기반 문화의 강제적인 선형적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조작성을 허용하는데 이를 통해 인쇄 기반 텍스트의 중심성과 고정성을 다원성으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선형적 순서를 넘어 연상적이고 다선형적인 읽기 경로를 따르는 새로운 읽기 관행이 일상화될 가능성을 가져온다. 다섯째, 디지털 텍스트는 담론이 이루어지는 장을 재구성(reconfiguration)한다. 특별히 비공식적 의사소통 방식과 전통적인 학술지나 출판 기반의 형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담론 형식을 출현시킨다. 여섯째, 사이버 공간의 디지털 텍스트는 인쇄 텍스트 시스템에 기반한 출판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디지털 텍스트는 텍스트 보급 비용을 줄이고, 인쇄 기반 산업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 메커니즘과 위계를 교란하며, 더 강력하게는 텍스트 생산과 소유에 대한 저자 및 저작자 개념을 무너뜨릴 수 있다.[9)]

이재현은 자신의 저서『디지털 시대의 읽기 쓰기』(2013)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는 멀티미디어(multimedia)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이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다. 둘째, 텍스트 구조(architecture) 측면에서 디지털 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 비선형적으로 정보를 조직하여 전달한다. 셋째, 미디어와 이용자 관계 측면에서 디지털 미디어는 상호작용(interactive)에 기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관계적 측면에서 디지털 미디어는 네트워크(network) 미디어로, 인터넷과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형성한다.[10)] 또한 신윤경은 인터넷 텍스트의 특성을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인터넷 텍스트는 다층성(multiplicity)을 지

9) M. Peters and C. Lankshear, “Critical Literacy and Digital Texts”, *Educational Theory* 46 (1996), 62-64.

10) 이재현,『디지털 시대의 읽기 쓰기』(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ix-xi.

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층적(多層的)이라는 표현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으로 그 제시 방식과 구성 방식이 다양하고 많다는 의미이다. 즉 인터넷 텍스트는 종이에 인쇄된 텍스트와는 달리 역동적인 시각 자료를 포함하는 텍스트이고 음향,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정보가 담겨 있는 텍스트이다. 둘째, 인터넷 텍스트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지닌 텍스트로 이전에는 실현하기 어려웠던 독자와 저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내용의 상호작용(content interactivity)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의 상호작용(interpersonal interactivity)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인터넷 텍스트는 가상성(virtuality)을 지닌 텍스트로 대부분의 문해 활동은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확장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넷째, 인터넷 텍스트는 복합 양식성(multimodality)을 가지는데 이는 인터넷 텍스트가 하나의 단일한 양식이 아닌 다양한 기호를 통해 복합적인 양식으로 구성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11]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연구자는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디지털 텍스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라는 것이다. 즉 디지털 텍스트는 문서 내(내부 링크)는 물론 문서 외부(외부 링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링크로 연결해 독자가 텍스트를 비선형적(non-linear)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 인쇄 매체에서 지면의 한계에 갇혀 있던 주석, 각주, 참고문헌 등의 참조성(referentiality)을 디지털 공간에서 훨씬 더 유연하게 확장시킨다. 예컨대 온라인 기사에 삽입된 하이퍼링크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의 기사에서 다른 기사, 관련 동영상,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텍스트 확장을 극대화한다. 두 번째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은 멀티미디어(multimedia)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자 매체의 텍스트는 단순히 문자를 통해서만 정보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복합적인 양식(modality)을 결합하여 더욱 풍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뉴스 기사에서는 텍스트 본문에 동영상 클립, 음성 파일,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를 삽입함으로써 독자의 직관적 이해와 몰입을 높일 수 있고,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는 텍스트와 영상, 음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은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인쇄 매체에서는 독자가 '수동적 수용자'에 머물렀

11) 신윤경, 『디지털 문식성과 인터넷 텍스트 읽기 교육』 (서울: 미래엔, 2020), 52-54.

다면, 디지털 매체에서는 댓글, 공유, '좋아요', 실시간 대화창 등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적극적 참여자' 혹은 '공동 창작자'가 될 수 있다. 네 번째로, 디지털 텍스트는 즉시성(instantaneity)과 유연한 업데이트(flexible update)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인쇄 매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상의 공간에 디지털 신호로 작성되고 보관된 텍스트는 전 세계 어디든지 네트워크 연결만 있으면 순식간에 전송·공개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종이책과 달리 온라인 기사나 전자책(e-Book)은 저자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거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원문을 고치고 독자에게 업데이트된 버전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텍스트는 접근성(accessibility)과 확산력(spreadability) 측면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자 기기를 통한 텍스트 배포는 인쇄 및 물류 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저비용·고효율의 전파가 가능하고, 정보의 유통도 검색 엔진, SNS, 이메일 뉴스레터 등 다양한 경로로 독자들에게 도달하며, 독자들 간 '공유' 기능을 통해 텍스트가 바이럴(viral)[12] 형태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 이는 새로운 작가나 언론 매체가 비교적 쉽게 대규모 독자층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이러한 확산력은 다채로운 관점이 혼합·재생산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표 1>은 인쇄물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의 개념과 특징을 비교·정리한 것이다.[13]

<표 1> 인쇄물 읽기와 디지털 읽기에서의 텍스트의 개념

	인쇄물 텍스트	디지털 텍스트
대상	· 읽고 있는 인쇄물(책) 그 자체	·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정보 및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정보

12) 바이럴(viral) 혹은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잠정적인 소비자들 사이에 소문이나 여론을 조장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전파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의 일종이다. 영단어 'viral'은 바이러스(virus)의 형용사형으로, '바이러스의', '바이러스에 의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전염되는'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go viral'은 '입소문을 타다'라는 뜻이며, 'viral success'는 '(주로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크게 성공함'이라는 뜻이다. 나무위키, "바이럴 마케팅", https://namu.wiki/w/%EB%B0%94%EC%9D%B4%EB%9F%B4%20%EB%A7%88%EC%BC%80%ED%8C%85 (2025.2.12.).

13) 김종윤, "인쇄물 읽기와 디지털 읽기 비교 관련 선행연구 고찰 – 디지털 전환 시대 속 책 읽기 교육의 방향 탐색",「국어교육학연구」58 (2023), 40.

	인쇄물 텍스트	디지털 텍스트
물질성	· 종이나 종이가 제본된 책의 형태	· 물리적 실체가 없음 · 디지털 화면은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전자 정보를 화면에 보여 줌
조작	· 만질 수 있음 ·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거나 하이라이트가 가능함	· 직접 만질 수는 없으나 조작 가능함(마우스나 키보드, 스타일러스 등) · 디지털 기기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양한 조작이 가능함
구조	· 선형적 구조	· 하이퍼텍스트 구조
양식 표상	· 언어 문자 중심 · 부가적으로 2차원적 시각 자료(사진, 그림, 그래프) 등이 포함됨	· 문자, 음성, 시각 등의 복합 양식 · 정적 시각 자료 외에 동적 시각 자료(동영상), 조작적 자료(조작적 시뮬레이션 등)가 포함됨
부가 기능	· 목차, 책의 색인 · 각주나 미주	· 디지털 기기에 검색 엔진 수반됨 · 텍스트 내 찾기 기능
주요 활동	· 텍스트 '독해'	· 텍스트의 '탐색' 및 '독해'
기타	· 텍스트의 이해 및 해석이 바탕이 됨	· 정보의 '탐색'이나 '검색'이 중요해짐 ·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짐 · 디지털 기기의 특성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함

2.2. 디지털 텍스트의 영향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디지털 텍스트를 접하고 읽는 것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연구자가 위에서 정리한 디지털 텍스트의 다섯 가지 특징을 틀로 삼아 정리해 보겠다. 첫째 하이퍼텍스트(hypertext)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텍스트는 독자에게 비선형적(non-linear) 탐색과 보다 유연한 참조성(referentiality)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링크 클릭이나 페이지 이동은 독자의 주의 집중 시간을 단축시키고, 텍스트를 단편적으로 소비하게 만든다. 특히 하이퍼링크를 따라

가다가 본래 읽으려던 본문과는 무관한 정보로 이탈하게 되면, 전체 맥락의 흐름을 놓치고 산만하게 읽게 될 수 있고, 링크가 지나치게 다층적으로 구성되면, 독자는 여러 창이나 탭을 순환하며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맥락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디지털 텍스트 읽기는 '읽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깊이 읽기'(deep reading)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하이퍼텍스트가 야기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몰입(immersion)과 조작(operation) 사이의 갈등인데, 텍스트를 넘어 텍스트가 표상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읽기(looking-through)가 아닌 텍스트의 표면에 머무는 읽기(looking-at)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읽기의 피상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14]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실제 실험의 결과를 봐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의 칼턴대학교 응용인지연구소의 심리학자인 다이애나 데스테파노(D. DeStefano)와 조-앤 레페브르(J. A. LeFevre)는 1990년에서 2004년까지 수행된 하이퍼텍스트 읽기와 관련된 38개의 실험을 메타분석 하였는데, 많은 연구에서 독자들은 하이퍼텍스트 내에서 부가적인 의사결정과 시각적 처리까지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인지적 과부하를 경험했고, 그 결과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히 작업 기억용량이 적고 사전지식이 적은 독자일수록 하이퍼텍스트는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두 번째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은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멀티미디어(multimedia) 텍스트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양식이 과도하게 결합된 콘텐츠는 독자에게 인지 부하(cognitive load)를 가중시키고,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게 만들 우려가 있다.[16] 이는 텍스트 본문에 부차적인 시청각 자료가 과도하게 삽입되는 경우, 독자의 주요 정보 처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적 요소는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정보량·가독성·디자인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편집 전략이 필요하다. 락웰(S. C. Rockwell)과 싱글톤(L. A. Singleton)은 132명의 연구참여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텍스트, 텍스트+오디오, 텍스트+오디오+비디오의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접하게 했다. 그 결과 미디어를 많이 접한 그룹의 참가자들이 가장 적은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자들은 현재

14) 이재현,『디지털 시대의 읽기 쓰기』, 82.

15) D. DeStefano and J. LeFevre, "Cognitive Load in Hypertext Reading: A Review", *Computers in Human Bahavior* 23 (2007), 1635-1637.

16) P. Chandler and J. Sweller, "Cognitive Load Theory and the Format of Instruction", *Cognition and Instruction* 8 (1991), 295.

보편화된 멀티미디어 기술이 정보 획득을 증진하기보다는 도리어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17]

세 번째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은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가 텍스트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 터치, 스크롤, 댓글,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재현은 이러한 '읽기'를 '소셜 읽기'(social reading)라고 명명하고 텍스트를 읽기 전과 후, 그리고 읽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둘러싸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정서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읽기'로 설명했다.[18]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정보 과잉(information overload)과 텍스트의 질 관리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특정 기사에 달리는 무수한 댓글 중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스팸, 혐오 표현 등이 뒤섞여 있을 수 있으며, 독자는 텍스트 자체와 무관한 논쟁 속에서 혼란을 느끼거나 혹은 텍스트를 잘못된 관점으로 오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소셜 읽기'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독자들 간에 텍스트 공동체(text community)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황 안에서 텍스트를 대하게 될 때, 독자는 자기 자신만의 관점과 해석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미 정리해 둔 해석과 내용에 의존하게 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읽기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음도 문제가 될 수 있다.[19]

네 번째로, 디지털 텍스트는 종이 매체처럼 인쇄 및 물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즉시성(instantaneity)과 유연한 업데이트(flexible update)가 용이하다. 그러나 임시 정보가 넘쳐날 수 있고 영구적 기록물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공개하고 배포하는 과정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정확도나 품질 검증 없이 잘못된 정보들이 마구잡이로 게시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특히 오탈자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졌을 경우, 이후에 수정이 이루어져도 이미 확산된 최초 버전에 대한 통제는 어렵고, 원본의 관리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시점의 텍스트가 원본인지 모호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은 독자로 하여금

17) 이 실험에서 세 가지 방법(텍스트, 텍스트+오디오, 텍스트+오디오+비디오)으로 정보를 접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접한 정보에 대해 10개의 질문을 던졌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평균 7.04개의 답을 맞춘 반면, 멀티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평균 5.98개의 답을 맞췄다. S. C. Rockwell and L. A. Singleton, "The Effect of the Modality of Presentation of Streaming Multimedia on Information Acquisition", *Media Psychology* 9 (2007), 179.

18) 이재현, 『디지털 시대의 읽기 쓰기』, 82.

19) Ibid., 84.

해당 텍스트를 하나의 '임시적·유동적'(temporary and fluid)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의 인식 변화는 디지털 텍스트를 '결정된 사실'이나 '권위 있는 결과물'로 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롭게 쓰이거나 수정될 수 있는 '가변적 초안'(a working draft)으로 여기는 태도를 강화하게 된다. 결국 독자는 텍스트 내용이 곧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때로는 이를 단기 소비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며, 깊이 있는 신뢰를 부여하기를 유보한다. 즉, 인쇄 매체가 지니던 물리적·고정적 특성이 사라짐에 따라, 독자가 느끼는 '정보의 안정성' 또한 함께 약화되고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텍스트는 접근성(accessibility)과 확산력(spreadability) 측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텍스트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대중교통, 대기실 등 짧은 자투리 시간에도 텍스트에 접근하고, 즉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는 인식이 독서의 일상화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독서의 중단과 재개가 빈번해져 텍스트를 '파편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강화하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 형식의 텍스트는 인쇄·유통·보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독자가 다양한 장르와 콘텐츠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게 되고, 독자는 물리적 공간(책장, 서재)을 고민하지 않고도 텍스트를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 열람만으로 소유·접근할 수 있다. 이는 독자에게 가볍게 시도해 보고 필요 없으면 삭제한다는 식의 태도를 부추겨, 텍스트에 대한 '소비적 접근'을 가속할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 텍스트의 접근성과 확산력이 높아지면서, 독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텍스트를 접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독서 패턴에 익숙해지게 된다. 텍스트가 순식간에 확산되고, 온라인상의 유행이 급변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실시간 트렌드'나 '화제성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자들은 디지털 텍스트를 대할 때 종이 텍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과 몰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보지 않으면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텍스트를 충분히 곱씹거나 논리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빨리 읽고 넘기기' 식으로 대할 수 있다. 애커먼(R. Ackerman)과 골드스미스(M. Goldsmith)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종이와 디지털로 다소 긴(1,000~1,200 단어) 텍스트를 읽게 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텍스트를 읽도록 했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시간을 조정하게 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실험에서 디지털로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은 더 짧은 시간 동안 텍스트를 읽어 버렸고 독해점수는 더 낮아졌다.[20] 싱어 트래크먼(S. Trakhman)과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읽을 때 더 빠른 속도로 텍스트를 읽었고, 자신의 성적을 더 높게 평가했지만 실제 독해점수는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여러 실험에서 확인되었듯 독자들이 스크린으로 디지털 텍스트를 읽을 때 읽기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오히려 이해도는 떨어지게 된다. <표 2>는 지금까지 설명한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과 독자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과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하이퍼텍스트	읽기의 피상성
멀티미디어	인지 부하를 가중시킴
상호작용성	읽기의 자율성 훼손
즉시성과 유연한 업데이트	텍스트에 대한 신뢰 유보
접근성과 확산력	파편적 텍스트 소비와 대충 읽기

3. 미디어의 관점에서 본 『새한글성경』 번역의 의의

3.1. 『새한글성경』 번역의 특징

이번에 출간된 『새한글』은 '다매체(multimedia)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번역 지침으로 삼았다.[21] 이 지침에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다는 것은 본 연구의 초점을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매체(multimedia)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했다는 점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과연 다매체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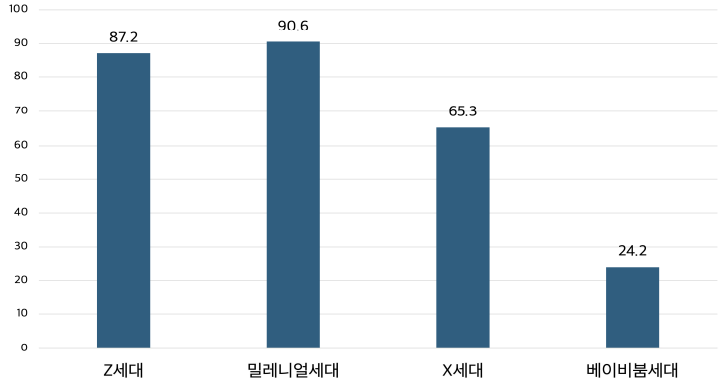
20) R. Ackerman and M. Goldsmith, "Metacognitive Regulation of Text Learning: On Screen Versus on Pape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7 (2011), 18.

21)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230.

고려를 통해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민현식은 많은 현대인들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SNS)를 통해 장문보다는 단문 위주의 발화(심지어 축약어까지 사용)를 하고 있고 구어와 문어의 경계가 무너지며 '말하듯 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문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2]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2024년 5월 9,75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세대별 SNS 이용현황 보고서」를 보면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률은 2021년 55.1%, 2022년 57.6%, 2023년 58.1%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밀레니얼세대가 90.6%, 그리고 Z세대는 87.2%의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또한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주중의 경우 Z세대는 55분(주말: 1시간 16분), 밀레니얼세대는 38분(주말: 49분), X세대는 30분(주말: 36분), 베이비붐세대는 22분(주말: 25분)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은 세대일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드러났다.[23]

<그림 1> 세대별 SNS 이용률(단위: %)



출처: 김윤화, "세대별 SNS 이용현황", 2.

이처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장문 위주의 긴 글보다는 단문 위주의 짧은 글을 소비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요즘의 트렌드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22)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367-368.

23) 김윤화, "세대별 SNS 이용현황", 「KISDI STAT Report」 24-09 (2024.5.), 2-4.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도 무조건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그래서 『새한글』의 번역팀은 독일성서공회에서 진행한 <기초성경>(BasisBibel)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즉 독일의 <기초성경> 프로젝트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익숙해진 독자들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성경 본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문장의 길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문장의 구조 역시 복잡한 복문을 최대한 피하도록 했다. 문장의 길이를 정할 때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효과적인 문장 길이가 얼마인가에 대한 실제 연구 자료를 참고해 한 문장의 길이를 16단어 이내로 제한했고, 번역의 한계로 제대로 풀어내기 어려운 신학 용어나 개념어들은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통해 보충 설명을 제공하였다.[24] 이와 같은 <기초성경>의 방향성은 『새한글』 번역에서도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새한글』의 머리말을 보면 번역 특징들 중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원문의 긴 문장은 짧은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가능하면 한 문장이 50자 내외 16어절 정도를 넘지 않게 하여, 디지털 매체로 읽기에 적합하도록 한다."[25] 사실 기존의 성경 번역본들은 '…하고 …하야 …하니 …'와 같은 고전 소설체와 문어체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고,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대체로 내용이 간결하게 압축되고 여러 절이 이어진 중문, 복문이 많아 문장 길이가 길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새한글』 번역에서는 『새번역』에서도 그러하였듯이 문장을 보다 더 짧게 끊어 번역하였다.[26] 실제로 『새한글』의 문장을 기존의 번역본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의 긴 문장을 단문으로 나누어 번역해 문장들이 굉장히 짧고 간결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 로마서 1:1의 번역 비교

GNT 5판	Παῦλος δοῦλος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κλητὸς ἀπόστολος ἀφωρισμένος εἰς εὐαγγέλιον θεοῦ,
『개역개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공동개정』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사

24) Ibid., 231-232.
25) "머리말",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26)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368.

	람입니다.
『새번역』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새한글』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출처: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234.

연구자는『새한글』번역 특징을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개역개정』,『새번역』,『새한글』의 글자 수, 단어 수, 그리고 문장당 단어의 수를 비교해 보았다.[27] 비교 결과는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4> 로마서 1장의 각 역본별 글자 수 및 단어의 수 비교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글자 수	1,474	1,754	1,895
단어 수	495	561	593
문장 수	19	45	63
문장 당 단어 수	26.05	12.47	9.41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개역개정』성경은 글자의 수도 적고 단어의 수도 적다. 쉽게 풀어쓰기보다는 가능한 축자적(逐字的)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28] 이에 비해『새번역』과『새한글』은 글자의 수도 훨씬 많고 단어의 수도 점점 늘어난다. 특히『개역개정』에서 단 19개의 문장으로 번역되었던 로마서 1장의 내용이『새한글』에서는 무려 63개의 문장으로 풀어서 번역이 되었다. 그리고 한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의 수도『개역개정』에서는 26.05개이지만,『새한글』에서는 9.41개밖에 되지 않는다. 번역 원칙에 천명

27) 이 테스트를 위해『개역개정』,『새번역』,『새한글』의 본문을 절 숫자나 주석 등을 제거하고 내용만을 입력했다. 계산은 무료로 온라인에서 이독성(readability) 검사를 해주는 웹사이트(https://www.online-utility.org/english/readability_test_and_improve.jsp)를 이용했다. 본문이 영어였다면 보다 구체적인 여러 이독성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한글 번역본을 입력했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나 문장 내의 단어의 수만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에 한국어를 위한 이독성 검사도구가 개발된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게 읽힐 수 있을지보다 쉽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는 구두점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연구자가『개역개정』번역본에 임의로 마침표를 찍어서 입력했다.

28)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228.

한 대로 긴 원문의 문장을 여러 개의 단문들로 나누어 번역해 전체적인 문장이 짧고 간결해졌음을 알 수 있다.

3.2. 기쁨과 염려

이와 같은『새한글』의 번역의 시도는 종이가 아닌 스크린을 통해 디지털 텍스트를 읽는 데 익숙해진, 그래서 성경도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을 통해 즐겨 읽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짧고 간결한 글은 이독성(readability)[29]을 높여 독자로 하여금 쉽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텍스트의 난이도(difficulty)나 글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꽤 오랜 시간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글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크게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누는데, 양적 평가는 사용된 어휘의 난이도나 문장의 길이와 같은 표면적 특성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글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텍스트의 양적인 측면만을 이용하여 읽기 쉬운 정도를 평가한 것을 이독성(readability)이라고 한다. 반면 질적 평가는 전문가의 경험이나 직관에 기초하여 약간은 주관적으로 글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인데, 주로 글의 구조, 독자의 선행지식이나 흥미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30] 그런데 텍스트의 난이도에 대한 양적 평가를 할 때는 글의 수준을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내고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필요한데, 이 이독성 공식은 의미적 변수(semantic variable)와 통사적 변수(syntactic variable)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의미적 변수란 어휘 차원의 변수이고, 후자는 문장 차원의 변수로 통사적 변수는 대부분 '평균 문장 길이'가 된다.[31] 그러니까 텍스트의 난이도를 계산하는 이독성 공식을 계산하는 원리만 살펴봐도 문장 길이가 짧고 간결해질 때 독자가 훨씬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지난 2009년 미국 언론 연구소(American Press Institute)는 '독자의

29) 이독성(readability)이란 텍스트를 읽고 얼마나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나무위키, "이독성", https://namu.wiki/w/%EC%9D%B4%EB%8F%85%EC%84%B1?uuid=d6686327-7d57-4bdc-a1a0-14355b879079 (2025.2.12.). 이독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독성(legibility)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가독성에는 텍스트의 양적 질적 측면 외에 폰트나 줄 간격 등 형태적 측면도 따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독성(readabil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0) 문길성, "질의응답 커뮤니티에서 문서 간 이독성 비교",「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0 (2020), 26.

31) 조용구, "글의 수준을 평가하는 국어 이독성 공식,"「독서연구」41 (2016), 74-75.

이해 정도'(Readers' Degree of Understanding)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410개 신문의 수천 개의 기사를 분석하여 문장의 단어 수와 독자의 이해도를 비교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먼저 글의 평균 문장 길이가 8개 단어 미만인 경우, 독자들은 글의 내용을 100% 이해했고, 평균 문장 길이가 9~14개 단어일 경우 90% 이상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장의 길이가 15~43개 단어까지 늘어날 경우 정보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10% 이하로 떨어졌다.[32] 이처럼 짧고 간결한 문장은 글의 이독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번역된『새한글』은 기존의『개역개정』성경이나『새번역』성경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될 것이다.

또한『새한글』의 단문 위주의 문장들은 디지털 텍스트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존 모크스(J. Morkes)와 제이콥 닐슨(J. Nielsen)은 피실험자 그룹을 대상으로 글의 형식에 따라 사용자의 읽기 및 웹사이트 사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대조군의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웹사이트들에서 볼 수 있는 홍보성 글(단순한 사실보다는 과장, 주관적인 주장, 자랑이 포함된 글)을 보여주었고, 실험군의 참여자들에게는 비슷한 홍보성 글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부 정보를 잘라내어 각 페이지의 단어 수를 대조군의 절반 정도로 줄인 간결한 텍스트를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일반적인 홍보성 글보다 짧고 간결한 텍스트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접했을 때 58% 정도의 사용성 개선(usability improvement)이 나타났다.[33] 즉 종이에 인쇄된 텍스트를 읽을 때도 짧고 간결한 문장들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히 스크린을 통해 텍스트를 읽는 디지털 독자들에게 단문 위주의 짧은 문장들은 더욱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새한글』번역과 활용에 있어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텍스트로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내용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원문을 짧게 끊어서 번역한 것은 탁월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짧은 문장들로 번역했다고 해서 독자들이 디지털 텍스트를 접할 때

32) J. Rajeck, "Three Online Copywriting Tips Supported by Research", https://econsultancy.com/three-online-copywriting- tips-supported-by-research/ (2025. 2.8).

33) J. Morkes and J. Nielsen, "Concise, SCANNABLE, and Objective: How to Write for the Web", https://www.nngroup.com/articles/concise-scannable-and-objective-how-to-write-for-the-web/ (2025. 2. 8).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독자들이 종이가 아닌 스크린을 통해 텍스트를 대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새한글』을 디지털 기기로 읽을 때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 인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낯선 단어들을 클릭해 관련 해설을 찾아가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그처럼 링크를 여러 번 따라가다 보면 다시 원래의 본문으로 돌아와 집중해서 깊이 읽기가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읽기의 피상성은 성경을 읽을 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랜 시간의 깊이 읽기와 깊은 묵상을 통해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도 그 일이 쉽지 않은데, 화면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가볍게 훑는(scanning)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텍스트는 종종 영상, 이미지, 음성 등 멀티미디어(multimedia)가 결합되어 있어,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인지 부하(cognitive load)는 텍스트 이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성경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읽게 될 경우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 그래픽 요소, 그리고 추가 링크 등을 함께 다루어야 하기에 그만큼 인지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독자들은 자신의 인지적 자원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텍스트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될 수 있다.

셋째, 소셜 읽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읽기의 자율성 훼손 역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본문에 대한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요약이 먼저 공유될 경우, 독자가 자신의 독창적·비판적 읽기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 타인의 관점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경우 독자 스스로 말씀에 대해 질문하면서 탐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정답'이나 '요약본'에 의존할 위험이 있다. 또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특정 앱이나 사이트에서 추천 성구, 성경 해석 영상 등을 자동으로 제공할 때, 독자들은 해당 알고리즘이 띄워 주는 콘텐츠만 소비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동적 읽기에 빠질 수 있다.

넷째, 디지털 텍스트는 즉시성(instantaneity)과 유연한 업데이트(flexible update)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독자로 하여금

해당 텍스트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수정될 수 있는 하나의 초안(a draft)으로 여기는 태도를 강화하게 될 수 있다. 결국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통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성경조차도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텍스트처럼 인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성경이 갖는 종교적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텍스트를 소비할 때 나타나는 파편적 텍스트 소비와 빨리 읽고 넘기는 식의 읽기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록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성경 본문이라 할지라도 중단과 재개가 빈번한 읽기를 하게 될 경우 본문 전체의 흐름을 놓치기 쉽고, 특정 구절만 발췌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될 수도 있다. 결국 본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성경 본문을 읽거나, 개인적으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문구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실시간 트렌드나 '핫이슈'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성경 읽기도 이와 유사하게 '빨리 훑고 넘어가는' 태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즉 성경 본문을 대하는 독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4. 제언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자들이 디지털 텍스트를 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나타날 수 있으니, 성경을 읽을 때 디지털 텍스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시켜야 할까? 이런 접근은 문자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에 대해 극도의 염려를 하며 반대했던 소크라테스의 모습처럼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새롭게 번역된『새한글』을 어떻게 읽고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제안해 보겠다.

4.1. 디지털 시대의 성경 독자들을 위한 제안

'읽기와 학습' 분야 연구의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언어학자 나오미 배런(N. Baron)은 자신의 책『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How We Read Now)에서 디지털 세계에서의 효과적인 읽기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야 한

다. 첫째, 읽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 둘째, 읽기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라. 셋째, 당신의 주의 깊게 읽는 능력을 직시하라. 넷째, 당신의 읽기 환경을 점검해 보라. 다섯째, 읽기 매체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맞춰 적응하는 법을 배우라.[34] 이와 같은 지침들은 종이로 인쇄된 글을 읽을 때나 디지털 매체로 읽을 때 모두에 유효한 좋은 제안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텍스트를 통해 성경을 읽을 때 독자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 본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 기기는 굉장히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앱을 열 때, 알림을 일시적으로 꺼 두거나 비행기 모드, 방해 금지 모드 등을 활용해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짧은 자투리 시간 대신 일정한 묵상 시간대를 확보해, 디지털 기기로 성경을 읽더라도 본문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다.

둘째, 성경을 읽기 전에 우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져야 한다. 이전의 내용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글을 읽게 되면 종이에 인쇄된 글을 읽을 때보다 정신적 노력을 적게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35] 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텍스트처럼 성경도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잠정적이고 가벼운 글로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 읽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 맥락 중심 읽기와 반복 확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들은 본문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면서 내게 필요한 부분이나 눈에 들어오는 부분만 발췌독으로 읽기 쉽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성경 본문 중 아주 일부를 전체적인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 읽게 되기 때문에 그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뜻에 맞게 곡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록 디지털 기기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단문으로 번역된 구절만 빠르게 훑지 말고, 본문 전체의 흐름(문맥)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성경 앱의 링크나 참고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본문으로 되돌아와 전체 문맥을

34) N. 배런,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병근 역 (서울: 어크로스, 2023), 399-401.
35) Ibid., 164.

다시 살펴보는 규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

넷째, 자신만의 주체적 해석을 위해 계속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사실 초신자나 믿음이 어린 성도일수록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나 요약에 의존하는 습관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생기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나 주석 앱의 해설에 앞서, 먼저 스스로 본문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노트를 준비하여 질문 목록도 작성해 보고 다른 이들의 해석·설명을 보기 전에, 내 생각과 느낌을 메모해 두어 주체적인 성경 읽기 습관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텍스트에만 의존하지 말고 종이 성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즉 디지털 텍스트의 장점을 활용하되, 핵심 본문 공부나 깊은 묵상을 원할 때는 종이 성경을 함께 사용해 보는 것이다. 종이 성경에 직접 밑줄을 긋고 필기를 하는 행위는, 집중력 향상과 정서적 몰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집이나 사무실처럼 이동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이 확보되는 곳이라면 '깊이 읽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종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4.2. 디지털 시대의 성경 교사를 위한 제안

성경을 읽는 개인 독자뿐만 아니라 성경 교사(목회자, 교역자, 교회학교 교사 등)들에게도 유효한 조언들이 있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 맞는 '학습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예상되는 산만함과 주의력 분산 문제를 고려한 수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성경 앱 내에서의 링크 탐색은 5분 내로 제한하고, 이후 본문 전체를 다시 낭독하는 시간을 배치하거나, 특정 구절을 깊이 토론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계별 활동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적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결합하여 성경을 읽도록 지도한다.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텍스트라도 디지털로 접하기보다는 종이에 인쇄된 양식으로 접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 여러 학자와 연구의 결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자꾸 쉽고 편한 길로 가려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성경을 읽더라도 자신이 읽은 본문

의 내용을 수기로 필사하거나 성경 필사 노트에 정리하며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는 오프라인 훈련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개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겨두게 될 경우 쉽게 지치거나 그만두게 될 수 있으니, 오프라인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낭독하고, 서로 나눈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셋째, 성경과 신앙에 대한 교육만큼이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이 중요하다. 단순히 '스마트폰은 나쁘니 쓰지 마라'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디지털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읽고 비판적으로 해석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성경 앱이나 온라인 자료를 활용할 경우, 알고리즘 추천이나 소셜 피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출처 검증·비판적 독해·교차 검토 등을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독서법을 별도로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지 말고,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검색, 노트 작성, 참고 자료 평가법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넷째, 텍스트의 업데이트와 성경 본문의 권위·불변성에 대해 강조한다. 즉 디지털 텍스트가 쉽게 수정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되, 성경 본연의 영적 권위와 본문의 신학적 의미는 변함없는 것임을 교육해 학생들의 말씀 탐구 의욕을 지속적으로 북돋우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새한글』의 번역처럼 성경의 새 번역본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번역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번역이 교정되고 보완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가르치면서, 진리는 불변하지만 번역과 해설은 시대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깊이 읽기 및 성령의 조명을 강조해야 한다. 즉 모든 성경 교사들은 성도들이 디지털 텍스트 환경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기도와 성령의 조명(요 14:26; 16:13)을 통해서만 온전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이번에 나온 『새한글』의 문체처럼 짧고 간결한 번역체라고 해서 쉽게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천천히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도록' 도울 수 있는 영적 실천(큐티, 묵상 노트, 기도 등)을 끊임없이 독려해야 한다.

4.3. 디지털 텍스트 기획・생산자들을 위한 제안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사회와 산업 전반에 일어나면

서 디지털 미디어(media)와 플랫폼(flatform)을 기획·설계 및 생산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물론 제각기 자신의 회사와 이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라 변명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낸 도구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디지털 텍스트, 특별히 성경과 관련된 앱이나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제안점을 드린다.

첫째, 독자의 집중과 몰입을 유지하고 제고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 본문을 읽는 화면에 과도한 버튼, 광고, 팝업 알림 등을 배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UI 디자인을 단순화 및 최소화하여, 독자가 본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사용자에게 '몰입 모드'(immersive mode)나 '방해 요소 최소화 옵션'을 제공하여, 독자가 성경을 읽는 동안 화면 전환이나 추가 UI 요소로 인한 주의 분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언론사의 웹사이트 같은 경우 기사의 내용과 함께 다른 기사의 목록이나 광고 링크 같은 것들이 함께 노출되어 독자의 집중과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같은 기사라도 인쇄 모드로 보게 되면 다른 기사의 목록이나 광고 링크가 사라진 기사를 접할 수 있다.

둘째, 링크나 주석 제공 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귀'(回歸) 기능을 강화하여 독자들이 '하이퍼텍스트의 미로'(hypertext maze)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성경 본문에 하이퍼링크, 주석, 해설 등을 제시할 때는, 원래 본문으로 돌아오는 인터페이스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뒤로 가기'(Back)나 '본문으로 복귀'(Go to Passage) 같은 버튼을 가시적으로 배치해, 독자들이 손쉽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좋고, 아예 본문을 흐리게 하면서 그 위에 팝업(pop-up)으로 주석이나 해설의 내용이 나오게 함으로써 본문의 테두리 안에서 외부의 링크를 확인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셋째, 성경 앱이나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는 멀티미디어(multimedia)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운용해야 한다. 즉 디지털 미디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소리나 사진, 그리고 영상 자료들을 본문에 삽입할 수도 있지만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자극적으로 구성해 인지 부하가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자료들이 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본문과

함께 제시되는 자료는 성경 본문에 꼭 필요한 자료(지도, 역사적 배경, 원문 단어 해설 등) 위주로 제한하여, 독자들이 핵심 메시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넷째, 스크롤보다는 페이지 넘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앱은 성경을 각 장별로 나눠서 그 장의 내용을 스크롤하면서 읽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문장을 찾거나 텍스트가 읽을 만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훑어볼 때는 스크롤을 통해 텍스트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자신이 읽고자 하는 전체 본문을 스크롤 다운해 가면서 읽게 되면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이책을 통해 글을 읽을 때는 책 페이지의 테두리나 인쇄의 레이아웃 등이 독자에게 가상으로나마 지리적인 장소 감각을 주는데 스크롤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어떤 장소 감각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36]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페이지를 하나의 긴 글로 제공해서 스크롤 다운해 가면서 읽도록 하기보다는 전자책 단말기가 주로 사용하듯 한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기능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다섯째, 사용자 주도적 기능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문과 상호작용하면서 본문을 읽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밑줄을 긋거나 책의 여백에 메모를 하는 등의 행위는 종이책을 읽는 독자들이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의 내용과 상호작용하도록 도와준다. 디지털 텍스트에서 종이책과 똑같은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을 제공하기는 어렵겠지만 메모, 하이라이트, 태그 설정의 방법들을 통해 독자가 본문에 대한 개인적 묵상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직관적으로 배치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묵상 기록을 자신만 볼 수 있게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선택적 공개 옵션을 둠을 통해 교회나 소그룹 공동체가 함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여섯째, 성경 앱의 UI를 디자인할 때, 독자의 읽기 속도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즉 독자들이 디지털 텍스트를 읽을 때 훑어보는 식으로 읽거나 종이로 읽는 것보다 빠르게 읽어치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독자가 본문을 조금 더 천천히 읽고 또 중간중간 읽기를 멈추고 묵상을 하도록 방향을 유도하는 기능을 마

36) N. 배런,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176-177.

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각 장의 분량에 따라 적정한 읽기의 속도를 제안해 줄 수도 있고, 독자가 너무 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 할 경우,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성경 앱이 띄워줌으로써 독자의 읽기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즉 성경 앱을 통해 성경 1장이나 특정 단락을 읽었을 경우, 바로 그다음 본문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묵상 질문'이나 '잠시 멈추기'(pause to reflect) 팝업을 보여주는 식으로 독자의 환기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적 간섭을 통해 독자들이 단순히 빠르게 검색하고 적당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읽기와 숙고하는 읽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일곱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UI/UX 개선과 그러한 분석을 통한 맞춤 가이드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 앱을 많은 사용자들이 활용하게 되었을 때 사용자들이 어떤 본문을 읽다가 외부 링크로 자주 이탈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링크를 따라가다 회귀율이 낮아지는지 분석해, 그에 따른 UI/UX를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본문에서 독자들의 잦은 이탈이 감지되면,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움 설명을 확인하셨나요?"와 같은 안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어떤 본문에서 회귀율이 떨어지게 될 경우 "참조 구절을 열람하셨다면 본문으로 돌아갈까요?"와 같은 질문을 하여 독자가 가급적 본문으로 복귀하도록 독려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알고리즘의 추천이나 가이드가 일방적인 제한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직접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텍스트가 사람들의 '읽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새롭게 번역된『새한글』의 의의와 보다 효과적인 활용의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디지털 텍스트는 하이퍼텍스트, 멀티미디어, 상호작용성, 즉시성과 유연한 업데이트, 그리고 접근성과 확산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텍스트의 특징들은 독자로 하여금 읽기의 피상성, 인지 부하 가중, 읽기의

자율성 훼손, 텍스트에 대한 신뢰 유보, 그리고 파편적 텍스트 소비와 대충 읽기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번역된『새한글』은 짧고 간결한 문장들을 사용하여 이독성(readability)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디지털 텍스트를 통해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문을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번역했다고 해도 독자들이 디지털 텍스트를 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그러한 문제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성경 독자, 성경 교사, 그리고 디지털 텍스트 기획 및 생산자들을 위한 몇 가지 제언들을 정리해 보았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문자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하며, 구술(口述) 전통의 가치와 기억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문자는 교육과 문화 전반을 혁신하며 지식 축적과 전수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중세 말엽, 빅토르 위고(V. Hugo)가『노트르담의 꼽추』에서 "이것(책)이 저것(성당)을 죽이리라."(Ceci tuera cela)라고 선언했을 때도, 인쇄물의 등장으로 건축물(성당)이라는 미디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인쇄 혁명이 활짝 열리면서 책과 건축은 저마다의 영역에서 인간의 창조성을 담아내는 미디어로 자리매김해 왔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라디오가 등장했을 때 '극장과 오케스트라가 사라질 것'이라 했고, 이어 텔레비전이 보급되자 '라디오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뒤따랐다.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 시대에 이르러서는 'TV가 끝장났다'는 담론이 반복되었지만, 실제로는 라디오와 TV,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모두 서로 다른 특성과 장점을 지닌 채 공존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기존 미디어나 문화가 송두리째 대체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완전한 대체'보다는 '새로운 접합과 공존'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디지털 텍스트와 성경 읽기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성경은 종이책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편의성과 확산 가능성은 분명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 물론 깊이 있는 묵상과 말씀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변화무쌍한 미디어 환경에 휘둘리는 '소비재'

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형식을 통해 독자·교회 공동체와 더 폭넓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변치 않는 본질을 어떻게 각 시대의 매체 안에 담아낼 것인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술의 진보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김윤화, “세대별 SNS 이용현황”, 「KISDI STAT Report」 24-09 (2024.5.).

김종윤, “인쇄물 읽기와 디지털 읽기 비교 관련 선행연구 고찰 – 디지털 전환 시대 속 책 읽기 교육의 방향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58 (2023), 35-66.

나무위키, “바이럴 마케팅”, https://namu.wiki/w/%EB%B0%94%EC%9D%B4%EB%9F%B4%20%EB%A7%88%EC%BC%80%ED%8C%85 (2025.2.12.).

나무위키, “이독성”, https://namu.wiki/w/%EC%9D%B4%EB%8F%85%EC%84%B1?uuid=d6686327-7d57-4bdc-a1a0-14355b879079 (2025.2.12.).

문길성, “질의응답 커뮤니티에서 문서 간 이독성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2020), 25-34.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23.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353-384.

방송통신위원회,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2024.

배런, N.,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병근 역, 서울: 어크로스, 2023.

신윤경, 『디지털 문식성과 인터넷 텍스트 읽기 교육』, 서울: 미래엔, 2020.

옹, W. J.,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임명진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18.

울프, M., 『다시, 책으로: 순간접속의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 전병근 역, 서울: 어크로스, 2019.

위키백과, “신경가소성”,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A%B2%BD%EA%B0%80%EC%86%8C%EC%84%B1 (2025.2.12.).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224-251.

이재현, 『디지털 시대의 읽기 쓰기』,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조용구, “글의 수준을 평가하는 국어 이독성 공식,” 「독서연구」 41 (2016), 73-92.

카, N.,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최지향 역, 서울: 청림출판, 2020.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언론수용자 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Ackerman, R. and Goldsmith, M., “Metacognitive Regulation of Text Learning: On Screen Versus on Pape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7 (2011), 18-32.

Chandler, P. and Sweller, J., “Cognitive Load Theory and the Format of Instruction”, *Cognition and Instruction* 8 (1991), 293-332.

DeStefano, D. and LeFevre, J., “Cognitive Load in Hypertext Reading: A Review”, *Computers in Human Bahavior* 23 (2007), 1616-1641.

Morkes, J. and Nielsen, J., “Concise, SCANNABLE, and Objective: How to Write for the Web”, https://www.nngroup.com/articles/concise-scannable-and-objective-how-to-write-for-the- web/ (2025. 2. 8).

Peters, M. and Lankshear, C., “Critical Literacy and Digital Texts”, *Educational Theory* 46 (1996), 51-70.

Rajeck, J., “Three Online Copywriting Tips Supported by Research”, https://econsultancy.com/three-online-copywriting-tips-supported-by-research/ (2025. 2.8).

Rockwell, S. C. and Singleton, L. A., “The Effect of the Modality of Presentation of Streaming Multimedia on Information Acquisition”, *Media Psychology* 9 (2007), 179-191.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 연구

권순희*

1. 머리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으로 『새한글』을 2024년 12월에 출간하였다. 이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새로운 번역 성경이며, 쉽고 간결한 문장에 다양한 높임법을 사용하였고, 인명 지명을 비롯한 고유명사의 음역을 교과서 기준에 맞추고, 도량형을 현대화하는 등 청소년 세대가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

『새한글』의 주요 독자층은 한국인이겠으나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문화 시대가 되면서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 외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역시 『새한글』의 독자층이다. 박동현은 "한국어 사용자에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재외 동포와 북한 동포,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읽는 사람, 그리고 21세기 청소년이 그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1] 이에 다문화 배경의 독자층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새한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알아보고, 1998년 『개역개정』과 비교하여 한자 문화권 유학생에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에 의하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 배경 학생은 2014년 약 6.8만 명(전체 대비 1.1%)에서 2024년 약 19.3만 명(전체 대비 3.7%)으로 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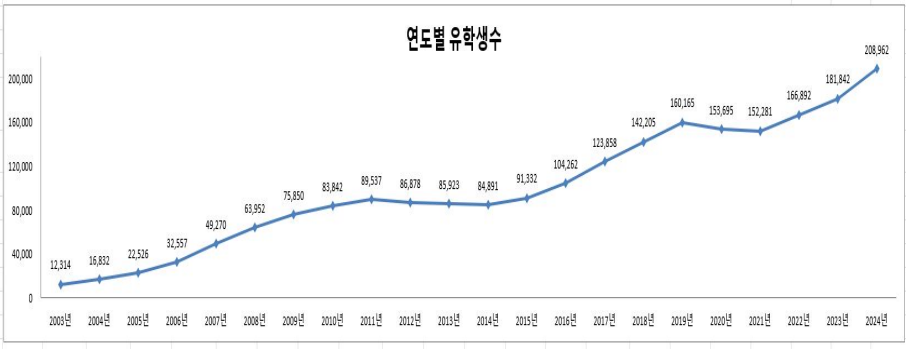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shkwonkim@ewha.ac.kr.

1) 손동준, ""유월절은 6월이죠?" 묻는 세대 위한 새한글성경 출간", 「국민일보」, 2024.12.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881269&code=61221111&cp=nv (2025. 2. 19.).

증가하고 있다.[2] 부모 출신 국적[3]을 살펴보면 베트남·중국(한국계 포함)이 약 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필리핀, 일본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이다.[4] 이주 배경 인구는 2020년 약 218만 명(총인구의 4.2%)에서 2040년에는 약 323만 명(총인구의 6.4%)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22).[5]

이주 배경 학생과 더불어 유학생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연도별 유학생 수(<그림 1>)와 국가별 유학생 수(<표 1>)의 추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유학생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4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표 1>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미국	기타	합계(명)
2021	67,348 (44.2%)	35,843 (23.5%)	8,242 (5.4%)	6,028 (4.0%)	3,818 (2.5%)	2,218 (1.5%)	28,784 (18.9%)	152,281
2022	67,439 (40.4%)	37,940 (22.7%)	8,608 (5.2%)	7,348 (4.4%)	5,733 (3.4%)	3,369 (2.0%)	36,455 (21.8%)	166,892
2023	68,065 (37.4%)	43,361 (23.8%)	10,409 (5.7%)	10,375 (5.7%)	5,850 (3.2%)	3,214 (1.8%)	40,568 (22.3%)	181,842
2024	72,020 (34.5%)	56,003 (26.8%)	12,025 (5.8%)	12,317 (5.9%)	5,250 (2.5%)	3,179 (1.5%)	48,168 (23.1%)	208,96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4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2)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023. 9. 26.), 1.
3) 부모 출신 국적 비율: 베트남(32.1%), 중국(31.0%), 필리핀(9.1%), 일본(4.2%), 기타(23.6%)
4)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19.
5) Ibid., 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중국인 유학생이며, 유학생 중 60% 이상이 한자 문화권에 속한 유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 대상으로 하되, 베트남, 홍콩 등 한자 문화권 유학생을 포함하여 『새한글』과 『개역개정』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새한글』, 『개역개정』의 이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크리드(KREAD)>를 사용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경을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집단과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자의 수준 및 성경 이해도에 맞춰 서면 설문 조사와 대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비기독 유학생 집단은 연구자가 설명을 보충하면서 서면 설문 조사를 한 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기독 유학생 집단은 연구자의 설명 없이 서면 설문 조사를 한 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서면 설문 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추가 질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한 『새한글』 홍보물[6]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개역개정』 중 읽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 조사
- 『새한글』 중 읽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 조사
- 무엇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조사
- 무엇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인지 조사
- 이해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요인 조사
- 각 사례별로 차이를 인식하는지 조사

(예: 어려운 어휘 많음/적음, 전문적 배경지식 요구됨/요구되지 않음, 정보량 많음/적음, 문장 복잡함/간결함)

6) 참조, 대한성서공회,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 새한글성경을 소개합니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이해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1~10점 척도 중에서 수치가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이해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설문 조사에서 한 문항의 성경 구절이 시편 112:1-3이라고 하면 한 문항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표시하거나 각 절별로 이해도를 표시하도록 재량권을 허용하였다. 비기독 유학생의 경우 절별로 이해도를 기입한 경우가 많았으며, 기독 유학생의 경우 단위별 성경 구절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독 유학생보다 비기독 유학생이 성경의 문구를 이해하는 데 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6급 대학원생이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이중언어 구사자이다. 비기독 유학생 4명과 기독 유학생 4명으로 구성된 참여 유학생의 전공은 모두 한국어교육이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명명		재학	국적	전공	한국어 습득 시기 (최초, 누적연수)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 급수	성경 독서 여부
비기독인	A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중국	한국어 교육	2017년, 7년 6개월	7년 5개월	6급	×
	B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베트남	한국어 교육	2020년, 5년	11개월	6급	×
	C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중국	한국어 교육	2015년, 10년	5년	6급	×
	D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중국	한국어 교육	2018년, 7년	3년 6개월	6급	×
기독인	E	일반 대학원 박사수료	중국	중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2016년, 8년 6개월	9년 6개월	6급	2018년 교회 출석, 2020년 3월 믿기 시작했음, 매일 30-50분 성경 독서
	F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중국	한국어 교육	2013년, 12년	10년	6급	2020년부터 예수님을 믿음, 매일 30분-1시간 정도 성경 독서

연구 참여자 명명		재학	국적	전공	한국어 습득 시기 (최초, 누적연수)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 급수	성경 독서 여부
	G	국제 대학원 석사과정	홍콩	한국어 교육	2018년, 7년	7년	6급	2019년부터 2025년 현재 매일 30분 묵상, 매주 9시간 성경 공부
	H	국제 대학원 박사과정	홍콩	한국어 교육	2011년, 14년	8년	6급	주님을 믿은 지 4.5년, 매일 아침 성경 묵상 30분, 오후 30분-1시간 성경 독서

비기독 유학생 4명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성경을 읽은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이다. 비기독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76분간 대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기독 유학생 4명은 한국에 7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예수님을 믿고 훈련을 받은 지 4.5년 이상 된 학생이다. 기독 유학생 4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6일(목) 오후 5시부터 66분간 대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새한글』과 『개역개정』의 이독성 비교

『새한글』과 『개역개정』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독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최소영·박태준[7]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정보 텍스트의 이독성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영·박태준·류수경·장지혜·길호현·이인화에서 제시한 질적 평가 요인 중 텍스트 이독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8]을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소영 외는 텍스트의

7) 최소영, 박태준, “텍스트 이독성 질적 평가 요인의 설명력 분석 - 교육용 정보 텍스트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 179 (2022), 251-294.

8) 최소영 외, “교육용 텍스트의 이독성 질적 평가 준거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국어교육」 176 (2022), 1-57.

수준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은 텍스트의 '목적', '구조', '표현'보다는 주로 '내용' 범주임을 확인하였다. '내용' 범주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려운 어휘 많음/적음, 전문적 배경지식 요구됨/요구되지 않음, 정보량 많음/적음'과 같이 텍스트에 포함된 어휘의 수준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요인, 문장 복잡함/간결함과 같이 문장 구조 복잡성 요인임을 밝혔다.[9] 최소영 외의 결과로 추론해 볼 때, 『새한글』이 어휘와 문장에 중점을 둔 개정 방향은 옳았다.

이독성 측정으로 난이도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AI 도구로는 <크리드(KREAD)>를 들 수 있다. 이는 교육기업 대교와 천경록 외 국어교육 교수진과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인공 지능 전문 기업인 투블럭 AI의 Deep NLP(인공 지능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한국어 독해 지수로, 글의 난이도와 학습자의 읽기 능력 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크리드(KREAD)>는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뭉치에 근거하여 교육용 어휘를 7등급으로 데이터 처리한 김광해[10]의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두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크리드(KREAD)>는 국어 텍스트 자동 분석을 통한 독해 지수 측정 방법 및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언어적 변수를 자동으로 분석해 텍스트 난이도 수준을 정량적 수치로 산출해 준다. 지수는 0~20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며, 예를 들어, 8세 수준의 난이도는 800대 지수로, 18세 수준의 난이도는 1800대 지수로 표시된다.

『개역개정』의 창세기 2장을 난이도 AI 검사 도구 <크리드(KREAD)>에 입력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9) 최소영, 박태준, "텍스트 이독성 질적 평가 요인의 설명력 분석 - 교육용 정보 텍스트를 중심으로 -", 251-294.

10) 김광해, 『등급별 어휘교육용 어휘』, (서울: 박이정, 2003), 27.

어휘량	누계	국어교육용		비고	
		등급	개념		
1,845	1,845	1	기초 어휘	소사전	중사전
4,245	6,090	2	정규 교육 이전		
8,358	14,448	3	정규 교육 개시 – 사춘기 이전, 사고도구어 일부 포함		
19,377	33,825	4	사춘기 이후 – 급격한 지적 성장, 사고도구어 포함		
32,946	66,771	5	전문화된 지적 성장 단계, 다량의 전문어 포함		
45,569	112,340	6	저빈도어: 대학 이상. 전문어(기존 계량 자료 등장 어휘 + 누락어 14,424어 추가)		
125,670	238,010	7	누락어: 분야별 전문어. 기존 계량 자료 누락어휘		

<그림 2> 크리드를 활용한『개역개정』창세기 2장의 난이도 검사



『개역개정』의 창세기 2장은 16~17세, 9~10학년 수준의 난도를 지닌 글이며, 문학적 성격의 글로 판명되었고, 전체 글자 수가 1,277자, 문단 수 25개, 문장 수 25개, 복문 수 23개, 단어 수 322개, 서술어 수 95개로 나타났다.『개역개정』은 절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장 부호가 없기 때문에[11] 문단 수와 문장 수가 동일하게 25개로 나타난 것이다.

평균 문장 길이의 수치와 문장 구조 점수는 낮을수록 난도가 쉽다는 의미인데, 평균 문장 길이가 12.88, 문장 구조가 23.35로 나타나『새한글』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수치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그 결과『개역개정』창

11) <크리드(KREAD)> 프로그램은 문장 부호가 있는 글을 분석하는 것을 디폴드값으로 설정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문장 부호가 없는『개역개정』분석 시 오류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세기 2장은 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복문 비율은 92%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문 수를 전체 문장 수로 나누었을 때의 값이다. 전체 문장 중에 복문 수가 많기 때문에 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어휘 다양성 비율은 0.44, 어려운 단어 비율은 0.60으로 나타나 난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새한글』의 창세기 2장을 난이도 AI 검사 도구 <크리드(KREAD)>에 입력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크리드를 활용한 『새한글』 창세기 2장의 난이도 검사



대한성서공회 『새한글』 읽기 사이트[12]에서는 절별 편집이 아니라 문단별 편집의 성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을 <크리드(KREAD)>에 입력하여 얻은 결과 값은 <그림 3>과 같다.

『새한글』의 창세기 2장은 11~12세, 4~5학년 수준의 글이며, 문학적인 성

12) 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읽기”, https://www.bskorea.or.kr/KNT/index.php (2025.2.19.).

격의 글로 판정되었다. 전체 글자 수 1,495자, 문단 수 10개, 문장 수 53개, 복문 수 36개, 단어 수 363개, 서술어 수 111개로 나타났으며, 어휘 다양성 비율은 0.43, 어려운 단어 비율은 0.45이다. 『개역개정』 창세기 2장에 비해 글자 수가 218자 더 많아졌으며, 문장 수, 복문 수, 단어 수, 서술어 수가 증가하였다. 본고의 결과 값으로 살펴보면, 『개역개정』 창세기 2장에 비해 『새한글』 창세기 2장의 문단 수가 40% 감소하였으나 번역 프로그램인 파라텍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창세기 2장을 3개의 문단별 편집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값으로 할 때는 문단 수가 약 3.3배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휘 다양성 비율은 비슷하며, 어려운 단어 비율은 0.15 감소하였다.

<크리드(KREAD)>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서비스는 2,000자까지라서 마가복음 1장은 34절까지 입력하여 결과 값을 얻었다. 『개역개정』 마가복음 1:1-34까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크리드를 활용한 『개역개정』 마가복음 1:1-34의 난이도 검사



『개역개정』 마가복음 1:1-34는 18~19세, 11~12학년 수준이며, 문학적인 글로 판정되었다. 전체 글자 수는 1,533자, 문단 수 34개, 문장 수 34개, 복문 수 29개, 단어 수 392개, 서술어 수 131개로 나타났다. 『개역개정』은 절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장 부호가 없기 때문에 문단 수와 문장 수가 동일하게 34개로 나타났다. 반면 번역 프로그램인 파라텍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역개정』은 마가복음 1:1-34를 8개의 문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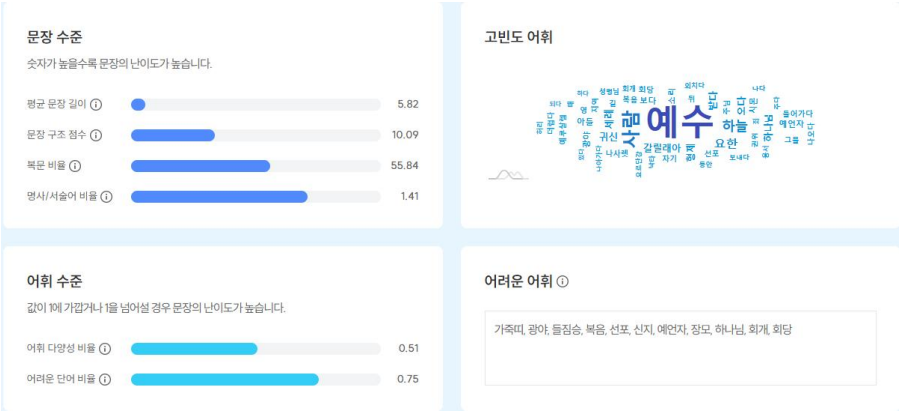
평균 문장 길이는 11.53, 문장 구조 점수는 17.78로 『개역개정』 창세기 2장의 평균 문장 길이 12.88, 문장 구조 23.35에 비해 낮은 편이다. 복문 비율은 85.29%로 창제기 2장의 복문 비율 92%에 비해 6.71%p 낮은 편이다. 문장 구성 차원으로 볼 때 구약 창세기 2장보다는 신약 마가복음 1장이 더 쉬운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창세기 2장의 어휘 다양성 비율은 0.44, 어려운 단어 비율은 0.60이고, 마가복음 1장 일부의 어휘 다양성 비율이 0.52, 어려운 단어 비율이 0.64로 어휘 차원에서 난도는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이 약간 어려운 편이다.

『새한글』 마가복음 1:1-34까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한성서공회 『새한글』 읽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단별 편집의 성경을 입력값으로 사용한 분석 결과이다.

<그림 5> 크리드를 활용한 『새한글』 마가복음 1:1-34의 난이도 검사





『새한글』 마가복음 1:1-34는 11~12세, 4~5학년 수준이며, 문학적인 글로 판정되었다. 전체 글자 수는 1,973자, 문단 수 14개, 문장 수 77개, 복문 수 43개, 단어 수 448개, 서술어 수 140개로 나타났다.

『새한글』이 『개역개정』 마가복음 1장 일부에 비해 문단 수가 41%로 감소하였으며, 문장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절별 편집에 근거한 비교 해석이다. 그러나 문단별 편집에 근거하면, 『개역개정』은 마가복음 1:1-34를 8개의 문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값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문단 수가 약 1.8배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어 수, 서술어 수는 유사하다. 평균 문장 길이는 『새한글』이 5.82이고, 『개역개정』이 11.53으로, 평균 문장 길이는 『새한글』이 『개역개정』의 1/2이 되었다.

『개역개정』 마가복음 1장 일부의 문장 구조 점수가 17.78, 복문 비율이 85.29%인데 비해 『새한글』의 문장 구조 점수가 10.09, 복문 비율이 55.84%이므로 『새한글』의 난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어휘 다양성 비율은 『개역개정』이 0.52, 『새한글』 0.51로 유사하며, 어려운 단어 비율은 각각 0.64, 0.75로 나타나 『새한글』 마가복음 1장이 『개역개정』 마가복음 1장에 비해 어려운 단어가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개역개정』은 9~11학년 수준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이는 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일 때 가장 대중적인 난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맞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새한글』은 초등학교 4~5학년 수준으로 나타나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어려운 단어(어휘) 비율이 『새한글』 마가복음

1장이『개역개정』마가복음 1장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시로 보건대『새한글』의 난도는 신약과 구약 부분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살펴본 것은 성경 일부의 입력값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다양한 성경 구절을 샘플로 만들어 세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크리드(KREAD)>에서는 30만 자까지 분석이 가능한 베타 버전이 개발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용성을 점검하는 중이라며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4.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 결과 분석

2장에서 언급한 대로 비기독 유학생 4명, 기독 유학생 4명에게 선별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이해도 정도를 1~10점 중에서 표시하도록 하고,『개역개정』과『새한글』의 차이와 이해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찾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각 성경 구절에 대한 반응을 하단에 기술하겠다.

4.1. 어휘와 문법 면에서 다른 이해도 반응

『새한글』은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한 문장을 50자 내외 16어절 정도를 넘지 않게 하였다는 번역 원칙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표 3>『개역개정』과『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응답(사 42:1-4)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비기독 유학생 이해도*	기독 유학생 이해도*
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1 (하나님) "보라, 나의 종이다! 내가 그를 붙들고 있다. 내가 골라 뽑은 사람이지.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다. 그가 정의를 민족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2 그는 소리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 목소리가 거	A유학생 3/6 2/4 2/3 2/5 B유학생 8/8 10/10 10/8 9/10	E유학생 8/7 F유학생 8/6 G유학생 8/8 H유학생 9/7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비기독 유학생 이해도*	기독 유학생 이해도*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3 그는 구부러진 갈대라도 꺾지 않고, 스러지는 심지라도 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실하게 정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 4 그는 스러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까지는. 그의 가르침을 바닷가 사람들이 기다릴 것이다.”	C유학생 3/4 4/6 4/6 5/5 D유학생 5/7 4/5 3/3 2/4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비기독 학생은 성경에 대해 낯설다고 반응하였으며, 표현 전체보다는 어휘에 초점화하여 반응하였다. 이사야 42:1-4에 대해 비기독 유학생은 『개역개정』 이해도에 2~10점으로 반응하였고, 『새한글』 이해도에 3~10점으로 반응하였다. 비기독 유학생은 성경의 각 절마다 이해도를 응답하였는데, 69%가 『새한글』이 이해하기 쉽다고 답변하였고, 25%가 이해도가 동일하다고 답변하였으며, 6%가 『개역개정』이 이해하기 쉽다고 답변하였다.

『새한글』이 어렵다고 답변한 구절은 이사야 42:3이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는 구절보다 “그는 구부러진 갈대라도 꺾지 않고, 스러지는 심지라도 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실하게 정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구절이 더 어렵다고 반응하였다. ‘구부러진’, ‘스러지는’이라는 고유어는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어휘라고 반응하였다.

비기독 유학생들은 『개역개정』이 종교적 느낌[13]의 글이고, 『새한글』은 이야기식 글 같은 느낌이라고 반응하였다.

이에 비해 기독 유학생의 경우는 4명 중 3명이 한자어가 많은 『개역개정』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이해 정도가 동일하다고 응답하였다. 기독 유학생은 『개역개정』 이해도에 8~9점, 『새한글』 이해도에 6~9점으로 반응하였다. 『새한글』에 대한 이해도 점수가 낮은 이유는 첫째,

13) 장엄하고 고풍스러운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 유학생의 경우 한자 문화권 유학생이라 『개역개정』의 한자어에 친숙하기 때문이며 둘째, 이들이 서울YMM교회(가명)의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묵상과 성경 독서[14]를 자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역개정』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새한글』에 대한 비기독 유학생과 기독 유학생의 반응은 차이가 있었다. 비기독 유학생이 대체적으로 『새한글』이 쉽다고 반응한 반면, 기독 유학생의 경우는 『개역개정』이 쉽다는 반응이었다.

이들의 반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에서는 한자어가 더 많아서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쉽다. 『새한글』에서는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은 반면 모르는 고유어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반응이었다.

문법 면에서는 『새한글』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반응하였다. 『개역개정』에서 '-(하)리라', '-은즉', '-하지 아니하며' 등 생소한 문법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어 이해가 어려운 데 비해 『새한글』은 '-것이다.' 등의 어미를 사용하고 있어 이해가 편하다는 반응이었다.

<표 4>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응답(고전 13:4-7)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비기독 유학생 이해도*	기독 유학생 이해도*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4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A유학생 7/9 B유학생 9/8	E유학생 9/8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5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10/10 10/10 9/10 C유학생 8/8	F유학생 9/4 G유학생 9/7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6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D유학생 7/6	H유학생 9/6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	7/7	

14) 묵상과 성경 독서를 할 때 중국 성경을 주로 이용하며 『개역개정』을 참조한다고 답변하였다.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비기독 유학생 이해도*	기독 유학생 이해도*
	우에 견뎌 냅니다.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고린도전서 13:4-7에 대해 비기독 유학생은 『개역개정』이 절마다 문장 구조가 비슷하고 형식이 같아서 더 정리된 듯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 '-느니라' 등의 어미는 일상어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또한 『개역개정』에는 문장 부호가 없어 어디에서 끊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새한글』은 '-습니다'를 쓰고 있어 문장이 길다. "견디느니라"에 비해 "견뎌 냅니다"는 이해하기 쉽다고 하였으며, 『새한글』에는 문장 부호가 있어 좋고, 마침표가 있어 좋다고 반응하였다.

기독 유학생의 경우 『개역개정』은 문장이 길게 표현되어 있고, 『새한글』에서는 문장을 풀어서 말하듯 표현하고 있으나 어휘는 고유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고(G유학생), 느낌(→문체의 느낌, 어감)이 달라졌다(F유학생)고 응답하였다.

> - 『개역개정』이 시적인 표현이 많은 반면, 『새한글』은 잘 모르는 단어가 많고, 구어체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E유학생)
> -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다른 버전도 봤었어요. 『개역개정』의 '오래 참고'가 『새한글』에서는 '참습니다'가 되어 정도가 사라졌어요. 오래 참고 이거 들을 때는 오래 정말 근데 이게 『새한글』은 그냥 사랑은 참습니다. 가벼워졌어요. 저한테는 한국어는 정말 정도의 언어예요. 중국어에 비해서는. 근데 이 정도가 사라졌어요. '시샘', '우쭐대지'는 사전 찾지 않으면 잘 몰라요. 처음 봤어요. '성내다'보다 '화내다'가 더 이해 잘되어요.(H유학생)
> - 저는 『개역개정』이 시적인 표현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근데 『새한글』은 '않습니다. -습니다'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새한글』에서 많은 단어들을 잘 몰라요.(F유학생)

'시샘하지', '우쭐대지', '거들먹거리지' 등의 고유어가 매우 낯설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개역개정』의 '성내지'라는 표현보다는 『새한글』의 '화내지'라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더 와닿는 표현이라고 답변하였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표현이 '사랑은 참습니다'로 개정되었는데, '오래'라는 시

간적 정도가 빠진 듯하여 『개역개정』이 더 와닿는 표현이라고 응답하였다.

4.2. 문법 차이로 다른 느낌의 내용

『새한글』의 특징 중 하나는 장르에 따라 문체가 주는 묘미를 살린 것인데, 예를 들어 바울서신의 경우 나이 지긋한 바울이 믿음의 아들 격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학적 장르 특성을 고려하여 '하게체'로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표 5>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응답(딤전 1:1-2)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비기독 유학생 이해도*	기독 유학생 이해도*
1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2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1 바울이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지. 2 디모데에게, 곧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 은혜, 한결같은 사랑,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비네!	A유학생 6/8 B유학생 8/10 9/10 C유학생 3/6 D유학생 5/7	E유학생 10/10 F유학생 7/8 G유학생 9/8 H유학생 8/9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디모데전서 1:1-2에 대해 비기독 유학생은 『개역개정』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바울, 디모데' 등 인물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새한글』에서는 "마침표가 있고, 문장형[15]이 잘되어 인물 관계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디모데전서 1:1-2에 대해 기독 유학생은 『개역개정』은 수식어가 많고 문장이 길고 복잡하다. 또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렵다고 4명 모두 답변하였다. 반면 『새한글』에서 '한결같은 사랑'은 이해가 잘되며 그 의미가 추측된다고 답변하였다.

15) 문장형은 중국인 유학생이 사용한 용어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 한 문장 안에 주어, 서술어가 각각 한 개로 구성되어 이해하기 편한 문장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 『새한글』이 더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개역개정』을 풀어서 설명하는 느낌이다.(E유학생)
-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이라는 구절이 『새한글』에서는 '바울이네.'로 시작하고 있어 어순이 바뀌었다.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 『개역개정』의 '긍휼'을 『새한글』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바꾸었는데, 표현 차이가 크다.(F유학생)
- 종결어미 '-네'는 완전 다른 느낌.(G유학생)
- 『새한글』의 문법이 더 쉬워서 이해하기 좋음.(H유학생)

『개역개정』에서는 연결어미나 종결어미가 어려운 반면, 『새한글』은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등 문법적인 면에서 쉽게 느껴진다는 반응이었다. 기독 유학생 4명 전원이 디모데전서 1:1-2에 대해 『새한글』이 『개역개정』보다 이해하기 쉽다고 답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디모데전서의 편지글은 두 역본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답변하였다. 『개역개정』보다는 『새한글』이 친밀도가 높은 편지글로 이해된다고 반응하였다.

4.3. 현장감 있으나 더 복잡해진 풀이식 표현

『새한글』에서 시편은 운문 형식을 고려하여 번역하였는데 예를 들어, 시편 130:1-6의 경우 시인의 탄식과 간절한 심정이 잘 드러나도록 원문의 어순까지 고려하여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표 6>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응답(시 130:1-6)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비기독 유학생 이해도*	기독 유학생 이해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 5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	1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기도) 아주 깊은 데서부터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오, 여호와여! 2 오, 주님, 들어 주십시오, 내 목소리를.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탄원하는 나의 목소리에.	A유학생 6/9 B유학생 8/10 8/10 10/10 9/9 C유학생 4/7 D유학생	 E유학생 10/9 F유학생 8/6 G유학생 8/9 H유학생 7/9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비기독 유학생 이해도*	기독 유학생 이해도*
씀을 바라는도다 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 5 내가 여호와께 희망을 품습니다. 이 몸이 희망을 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6 이 몸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들보다 더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들보다 더 간절히.	8/7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시편 130:1-6에 대해 비기독 유학생의 경우 『개역개정』은 운율성이 있어 가요처럼 느껴지고, 『새한글』은 감정 표출을 생동감 있게 하는 거 같으나 깊은 뜻은 없어 보인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때 깊은 뜻이란 종교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번역자의 의도가 유학생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수꾼, 성전, 탄원 등의 어휘나 '-(이)소서, -하도다' 등의 종결어미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기독 유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 『개역개정』은 서술하고 있고, 『새한글』은 현실감 있게 구성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표현되었다).(E유학생)
- 번역자(→시편 저자)의 주관적인 감정, 생각을 들어내는(→드러내는) 느낌. 『새한글』에서 '탄원'이라는 의미를 모르겠다. 깊은 곳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가? 『새한글』 시편 130:5는 더 복잡해짐.(F유학생)
- 『개역개정』은 어려운 어미를 쓰고 있으나 시편 130:1-6이 간결함. 『새한글』은 쉬운 어휘를 쓰고 있다. 『개역개정』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를 『새한글』에서 '부릅니다. … 들어 주십시오, 내 목소리를.'로 쓰고 있는데 의미 전달이 약해짐. 문장이 너무 길어짐. '탄원'이라는 단어는 어려움.(G유학생)
- 『개역개정』 '부르짖는 소리' vs 『새한글』 '탄원하는 나의 목소리'에서 느낌이 완전히 다름. 『개역개정』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보다 『새한글』 '기다립니다. … 더 간절히.'가 더 좋음.(H유학생)

4.4. 대화 구성은 쉽지만 서법, 존대법의 다양화는 어려움

『새한글』의 번역 특징 중 하나는 서법의 다양화라고 전한다. 창세기 48:8-9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에 앞서 요셉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성을 나타내고자 '-렴', '-마' 등의 종결어미를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표 7>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응답(창 48:8-9)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비기독 유학생 이해도*	기독 유학생 이해도*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얘들은 누구냐?" 9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주셨지요." 그가 말했다.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렴. 아이들을 축복해 주마."	A유학생 6/7 B유학생 9/10 9/9 C유학생 7/9 D유학생 5/8	E유학생 9/9 F유학생 9/9 G유학생 8/9 H유학생 8/8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창세기 48:8-9에 대해 비기독 유학생의 경우 『개역개정』에서는 '이르되, 아뢰되'를, 『새한글』에서는 '오렴, 주마'를 모르는 어휘라고 답변하였다.

- '오렴' 표현을 보긴 했는데, 남자만 쓰는 어미인가요?(A 유학생)
- '공부하렴'처럼 어른인 거처럼 행사하는 친구의 메시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B유학생)
- '하렴'에서 '렴'은 문장의 끝을 줄여서 말할 때 'ㅁ'을 쓰는 경우(예: 이제 마치다→이제 마침)가 있는데, 명사형 마무리처럼 만든 것인 줄 알았어요.(C유학생)
- '주마'에서 '마'가 금지를 뜻하는 것인지 헷갈림.(D유학생)
- 부산 사투리에서 '마'를 떠올렸음.(A유학생)

기독 유학생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새한글』이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이해가 잘 됨.(E유학생)
- 『개역개정』에서 '이들은', '그들을', '그들에게'가 『새한글』에서 '얘들은', '아이들을', '아이들을'로 각각 인칭대명사가 바뀌었는데 이해하는 데는 별 차이 없음.(F유학생)
- 『개역개정』의 어미 어려움, 『새한글』에 쓰인 어미는 약간 어렵지만 풀어서 써 준 느낌이다.(G유학생)
- 『개역개정』의 '오라', '-하리라'가 『새한글』에서는 '오렴', '주마'로 바뀌었는데, 이해하기 어려움. 『개역개정』의 '이르되', '아뢰되'보다 『새한글』의 '물었다', '대답했다'가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함.(H유학생)

『새한글』 머리말에 보면, 시편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혼잣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등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번역 원칙에 따라 시편 122:6-9에서도 (사람에게 하는 말), (혼잣말) 등을 표기하고 있다.

<표 8>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응답(시 122:6-9)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비기독 유학생 이해도*	기독 유학생 이해도*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사람에게 하는 말) 6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렇게 빌어 보세요. "잘되기를,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7 그대의 성벽에 평화가 있기를! 그대의 궁전에 평안이 있기를!" (혼잣말) 8 내 형제와 벗들을 위해 나 이렇게 말할 거야.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 간절히 빌 거야, "그대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A유학생 6/8 B유학생 9/10 9/10 10/10 C유학생 7/9 D유학생 6/8	E유학생 9/9 F유학생 5/7 G유학생 9/9 H유학생 10/7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시편 122:6-9에 대하여 비기독 유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 『개역개정』의 친구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새한글』의 '벗'은 익숙하

지 않음. 교수님(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보니, '벗'이라는 어휘가 멋진 말이네요.(A유학생)
- (사람에게 하는 말), (혼잣말) 구별하는 말이 있어 좋다.(B유학생)

기독 유학생의 경우 『새한글』에서 일상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 편하고, 『개역개정』에서 이해할 때 놓치기 쉬운 표현을 주목하여 볼 수 있다는 반응을 하였다.

- 『새한글』이 더 일상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다.(E유학생)
- 『새한글』에서 대화 방식으로 제시하니까 『개역개정』 말씀에서 놓치는 대화 내용을 보게 됨.(F유학생)
- 『개역개정』에서 사용하는 어미는 어려운 어미이고, 옛날 느낌이다. '하리니, -(을)지어다, 하리로다'의 문법을 잘 몰라요. 『새한글』에서는 쉬운 단어 쓰고 있다. 반말을 써서 다른 느낌이 난다. 괄호 안에 배경,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G유학생)
- 『개역개정』에서 '-(을)지어다'가 『새한글』에서는 '-기를'보다 더 선포하는 느낌이 난다.(H유학생)
- 『새한글』에서 '빌 거야'와 같이 '빌다'를 쓰면 뭔가 기독교 같지 않음. '(혼잣말)'과 같은 표시는 매우 좋음. 거기서부터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H유학생)

기독교에서는 '기도하다'는 표현을 써야 하고, '빌다'라는 표현을 쓰면 기독교적이지 않고 다른 종교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어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개역개정』에서 '빌어', '빌고', '비니'라는 어휘를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4건이 검색되고 있어 중국인 유학생의 지적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개역개정』에서는 '빌다'라는 표현의 사용을 꺼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 (신 29:19)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 (삼하 14:22)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래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 (삼하 19:39)
…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롬 15:30)

그러나 기독교에서 '빌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는 존재하

지 않는다. 『새한글』에서 '빌다'를 검색했을 때는 87건이 검색되고 있다. 87건 중 '기도하다'라는 의미의 '빌다'와 관련 있는 것만 선별하면 총 74건이 된다.

4.5. 미완성 문장 이해의 어려움

『새한글』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반영하여 부활하시기 전에 무리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표 9>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응답(마 5:3-10)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비기독 유학생 이해도*	기독 유학생 이해도*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3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4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 9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10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 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미참여	E유학생 10/10 F유학생 5/7 G유학생 9/7 H유학생 9/7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마태복음 5:3-10에 대해 존댓말 사용에 대한 차이를 유학생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존댓말에 대한 인식보다는 도치법이 사용된 표현을 미완성 문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독 유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연결어미, 종결어미 사용이 다르다.(E유학생)
- 『새한글』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에서 '일구는'의 뜻을 모르겠음.(F유학생)
- 『개역개정』은 문장이 길지만 전체적으로 간결한 느낌이 있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어려운 어미, 어휘들이

있어 높은 이해도에 도달하기 어렵다.『새한글』은『개역개정』에 비해 길고 풀어서 써 준 느낌이 있어서 배경지식이 덜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과 같은 문장은 미완성의 느낌이 있으며, 구어의 느낌이 있다. 이는 문장을 이해하거나 문장 맥락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G유학생)

-『개역개정』은 한자어가 많아 이해하기 쉽고,『새한글』은 문장이 미완성된 느낌, 구어 느낌, 문장이 많이 끊어져서 이해하기 어려움.(G유학생)

-『개역개정』에서 ‘천국’이『새한글』의 ‘하늘나라’보다 더 마음에 와 닿음. ‘애통하다’가 ‘슬퍼하다’보다 정도가 더 높을 거라 여김.(H유학생)

앞서 살펴본 성경 구절과 유사하게 설문 대상자들의 반응이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질적 분석 시점에서 심층 면담 분석을 마무리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본고에서도 이상으로 심층 면담 결과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5. 마무리

『개역개정』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자 문화권 유학생들이 어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옛날 말투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유학생들에게는 어미 및 조사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고, 한번도 접하지 못한 어미가 나타날 때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예를 들면『개역개정』에 나오는 ‘묻자오되,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일컫느냐’ 등과 같은 어미는 어렵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새한글』에 나오는 어미, 조사 등 문법 요소는 쉽다는 반응을 하였다. 길어진 풀이형 서술 역시 배경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고유어가 많이 들어간 부분의 경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히『새한글』에서 ‘규빗’, ‘리’와 같은 단위를 ‘미터’, ‘킬로미터’와 같이 현대 도량형 단위로 개정한 것을 선호하였다.

대부분의 외래어 번역에 대한 부분은 유학생의 경우 둘 다 어려운 것으

로 반응하였다. 예를 들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표현보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라는 표현의 경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읽거나 기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10>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응답(라 4:11)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11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11 임금님께 보내 드린 편지의 사본은 이러합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 임금님의 노예들인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닥사스다 왕에게’보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라는 번역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불편하고 가독성이 떨어짐.(H유학생)
- 『개역개정』에서는 강이라고 쓰여 있는데, 『새한글』에 ‘유프라테스강’이라고 명확하게 보여 줘서 더욱 이해가 잘 됨.(H유학생)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꿇어 앉아’ 대신에 ‘무릎을 꿇고’로 개정된 어구에 대한 유학생들의 통찰력 있는 반응도 있다.

<표 11>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응답(막 10:17-19)

『개역개정』(1998)	『새한글』(2024)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 19 … 간음하지 말라 …	17 예수님이 길을 나서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 19 …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

- 『새한글』에서 『개역개정』의 ‘간음하지 말라’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 묘사가 잘되어 마음에 더 와닿음. ‘꿇어’라는 표현보다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이 느낌이 강함.(H유학생)
- 『개역개정』에서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장은 이해가 잘 안된다. 『새한글』에서 문장은 어렵지 않지만 단어가 어려워요.(F유학생)
- 맞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문법을 저는 평생 또 안 쓸 거 같아요.(G유학생)
- 저는 한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새한글』처럼 갑자기 바

> 꾸니까 저는 어려웠어요. 『새한글』에서 이 말을 누구(→누가)하는 것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H유학생)

결론적으로 『개역개정』과 『새한글』에 대한 비기독 유학생과 기독 유학생의 텍스트 이해도 측면에서 비기독 유학생은 2~10점까지 널리 분포되어 반응하였고, 기독 유학생은 5~10점까지 반응하였다. 기독 유학생에 비해 비기독 유학생이 대체적으로 낮은 수치로 응답하였다. 한자 문화권인 유학생의 경우 『개역개정』에 나오는 한자어는 추론이 가능하여 이해하기 편하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개역개정』에 나오는 옛말투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는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새한글』에 나오는 고유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하였고, 문법 및 문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어순의 완성된 문장이 아닌 문장, 즉 도치를 사용하여 어순이 변경된 문장,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시적인 표현의 문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하였다.

『개역개정』에 나오는 옛말투의 연결어미[16]와 종결어미[17]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개역개정』의 표현이 더 종교적인 느낌의 글이라는 반응으로 보아 옛말투가 장중하고 근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데 유익함을 알 수 있었다.

16) -(으)되, (으)매, -나니, -(으)ㄴ즉, -거늘, -(으)ㄹ지니, -거니와, -(으)ㄹ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17) -지니라, -하니라, -느니라, -리라, -지어다, -하도다, -소서, -(하)리로다, -이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023. 9. 26.).

김광해, 『등급별 어휘교육용 어휘』, 서울: 박이정, 2003.

대한성서공회,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 새한글성경을 소개합니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읽기”, https://www.bskorea.or.kr/KNT/index.php (2025.2. 19.).

손동준, ““유월절은 6월이죠?” 묻는 세대 위한 새한글성경 출간”, 「국민일보」, 2024.12.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881269&code =61221111&cp=nv (2025. 2. 19.).

최소영, 박태준, “텍스트 이독성 질적 평가 요인의 설명력 분석 - 교육용 정보 텍스트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 179 (2022), 251-294.

최소영 외, “교육용 텍스트의 이독성 질적 평가 준거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국어교육」 176 (2022), 1-57.

한국교육개발원, “2024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101034 (2025. 2. 19.).

약 어 표

〈성서 번역본의 약어표〉

● 한글

약어	번역본
『구역』	『셩경젼셔』(1911)
『개역』	『셩경 개역』(1938)
『개역한글』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
『새번역신약』	『신약전서 새번역』(1967)
『공동』	『공동번역 성서』(1977)
『표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
『개역개정』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공동개정』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1999)
『새번역』	『성경전서 새번역』(2001)(『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2001]을 2004년에 개칭함)
『새한글 신약과 시편』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
『새한글』	『새한글성경』(2024)

● 영어

약어	번역본
ESV	English Standard Version(2016)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2011)

● 히브리어

약어	번역본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 그리스어

약어	번역본
GNT	Greek New Testament(UBS)
NTG	Novum Testamentum Graece(Nestle-Aland)

〈사전의 약어표〉

약어	사전
HALOT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2001)

〈『새한글성경』의 낱권 책명 약어〉

구약

책명	약어	책명	약어	책명	약어
창세기	창	역대하	대하	다니엘	단
출애굽기	출	에스라	라	호세아	호
레위기	레	느헤미야	느	요엘	욜
민수기	민	에스더	더	아모스	암
신명기	신	욥기	욥	오바댜	옵
여호수아	수	시편	시	요나	욘
사사기	삿	잠언	잠	미가	미
룻기	룻	전도서	전	나훔	나
사무엘상	삼상	아가	아	하박국	합
사무엘하	삼하	이사야	사	스바냐	습
열왕기상	왕상	예레미야	렘	학개	학
열왕기하	왕하	예레미야애가	애	스가랴	슥
역대상	대상	에스겔	겔	말라기	말

신약

책명	약어	책명	약어	책명	약어
마태복음	마	에베소서	엡	히브리서	히
마가복음	막	빌립보서	빌	야고보서	약
누가복음	눅	골로새서	골	베드로전서	벧전
요한복음	요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베드로후서	벧후
사도행전	행	데살로니가후서	살후	요한1서	요일
로마서	롬	디모데전서	딤전	요한2서	요이
고린도전서	고전	디모데후서	딤후	요한3서	요삼
고린도후서	고후	디도서	딛	유다서	유
갈라디아서	갈	빌레몬서	몬	요한계시록	계

※『새한글성경』의 낱권 책명 약어는『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과 같으나, 에스라는 '라'로, 에스더는 '더'로 변경됨.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질의서

발표 주제:

발표자:

질의자(소속):

질의 내용:

(재)대한성서공회